

PLAYBOY

ENTERTAINMENT FOR ALL

JANUARY 2018 | KOREA

SPECIAL
ISSUE

KOREAN EROTICISM

한국
플레이보이의
에로티시즘

PLAYMATE OF THE MONTH

라나



HAPPY NEW YEAR

FICTION
시인 강정의
첫 단편소설
〈유리의 감옥〉

PLAYBOY INTERVIEW
김오키와 재즈를

200
보통 남자
봉태규

INTERVIEW CLASSIC
WOODY
ALLEN

1967년, 33살의 우디 앨런은
어떤 꿈을 꾸었나?



WWW.PLAYBOYKOREA.COM

**PLAYBOY PICKS****021 MODERN BOY**

플레이보이의 시작은 더욱 클래식하다. 스타킴부터 자동차, 워진 그리고 호불까지 1월, (플레이보이)가 고른 생애의 풍경을 다하는 것들.

036 NO FILTER SOLID STATE SURVIVOR

수업은 말이지 않는다.

040 PLAYDATA NEW NUMBERS

2019년 생애, 한국인의 생애 관련한 숫자들을 모았다.

PLAYBOY TASTES**041 SPACE CIGAR CLUB SEOUL**

플레이보이가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찾는 그곳. 바로 남한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서울시가들입니다.

044 WATCH OPENING HOURS

명백하고 상세한 아름다움을 품은 레터 스텝의 드레스 워치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며.

048 ITEM BATTLE GROUND

플레이보이는 기쁨을 위해 지갑을 여는 남자다. 그들의 신념을 확실히 기쁨으로 채워줄 물건을 VS로 열선했다.

054 CAR PLAYBOY CAR CLUB

플레이보이와 어울리는 차량, 드물고 색다른 강연자를 한다. 여기에 차량을 즐기지 않는 주인이 몰려서야 비로소 완성된다.

058 SWEETHEART 2월의 달

1월이다. 깨끗하고 정갈하게 물과 마음을 닦아내고, 새로운 시작할 때.

066 INTIMATE ASTROLOGY JAN X NEW YEAR

올해도 당신의 섹스 라이프가 뜨겁게 바라는 마음으로, 별들에게 2019 연애운에 대해 물었다.



041

021

이해한 오일-레의 속지는 유남by SEOULBUND 서점



044



PLAYBOY TALKS

067 MY WAY MICRODOT

레퍼 또는 연예인, 아티스트 또는 배우.
사람들이 마이크로닷을 규정하는 동안 그는
개적으로 꼭 한 친구 같은 <Yodpo>를 만들었다.

070 TV BEHIND THE STRANGER THINGS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부터 (아키라)까지 감독과 배우가 직접
말하는 <7요한 이야기>보다 더 기묘한 그 배경과 이민.

072 ADVISOR STOP SENDING YOUR DICK PIC

체임으로 만난 여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라는 남자가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일까? 미국 (플레이보이)로 날아든 한 남자의 깊은
고민에 픽스 컴퍼니스트 브래짓 패러시가 확신에 찬 말투로 조언한다.

074 SEX 자취의 세계

무려의 손은 오늘도 긴장하게 움직인다.

076 SOCIETY 내 몸은 나의 것

남녀되는 패지이어가 한다. 한국 (플레이보이)의
말장을 세우며 두 말자의 꿈을 싣는다.

080 20Q BONG TAEGYU

광광의 거리를 차나 봉태규의 집을 찾았다. 그는 포근하게
미소 지으며 안사를 간고고, 곧 마리의 키에와 앞에 섰다.
이 일방의 누구도 본 적 없는 봉태규의 사사롭고 큰일한 모습이었다.

088 PLAYBOY INTERVIEW KIMOKI

김오기가 색소폰을 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매일 다른 마음으로.

096 HER JUST IMSUMI

아티스트 일수이는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보고,
그것을 특별하게 만든다. 누구와도 일치 않은 방식으로.

104 PLAYSCENE 夢&7

포토그래피 이태일이 몸속에서 전 여자



067



088

096



080



SPECIAL
ISSUE

KOREAN EROTICISM

한복을 입는다. 춘하를 본다. 박완서의 소설을 읽는다.
윤시래의 노래를 듣는다. 낙자를 먹는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한국의 에로티시즘.

106 ART 춘하 다시 보기

백사암들은 아직도 춘하를 불현듯 시선으로 보는 걸까?

108 LITERATURE 욕망의 물보라

단편인데 한국 문학은 왜 못하냐고 말하냐. 보아하니 허자의
한글 낙자만 봐도...

110 FILM 여자들이 살던 거리

90V-60년대 한국 영화의 색채와 정신은
도무치아름답지 않아요. 거기엔 분명 여자들이 있었어요.

112 FASHION 한복의 에로티시즘

"한복 다 짓을 입었는데 어찌가 일본이름이 들어와
한복은 그대서 이해해." 다자이와 이문희의 이야기.

114 PHOTOGRAPHY A GIRL FROM CARTON

사진가 보다는 "한국에서 여자를 가장 예쁘게 찍는
그림자"가 작가라고 한다"라는 말을 쓴 적 있다. 그게 정동영가?

116 PEOPLE FILM FOR EROS

한국에는 '에로 영화'라는 특별한 장르가 있다.
그 영화의 신의 주역들을 만났다.

120 MUSIC 韓樂

여말의 시대에 또 거슬러올라가서 '한글'을 연구하거나
재작했어? 아니, 지금도 먹을 수 있는 미물 곡의 한국 가요.

122 FOOD EROTIC EATING

전통, 채식, 고, 동양화, 한우만이 좋게하는 이 세 가지
한국인의 공통분모는 바로 '소식'이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 더했다.

126 HOMMAGE 崔順國

대한 신문복과 강릉 김홍희, 그리고 현재 최우석의
그림속 겨울이기에 겨울을 좋아해 말한다.
최우석의 그림속의 겨울을 공개하는 이문희가... 이문희가...
사뿐히 그려낸 사내의 그림.

136 PLAYWORDS 여한 심상

이름 해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여한 심상은 있다. 그 여한 심상은...



**PLAYBOY LOVES**

- 138 PLAYMATE RANA**
20대권을 여는 첫 번째 플레이메이트인 RANA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 146 US PLAYMATE HAPPY NEW YEAR**
미국 플레이메이트 브리짓 램프와 함께하는 새해는 가장 좋은 웃음으로 가득하다.
- 154 PLAYGIRL THE ESCAPE ARTIST**
사탕가물러 스릴은 통정 속에 자신을 연인다.
- 162 PLAYGIFT DOGGY STYLE**
무술년이 밝았다. 폭목하고 총직한 개지 배를 기념하는 아이팅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을 것.

PLAYBOY REMINDS

- 164 ARTIST IN RESIDENCE YANG DAEWON**
불편한 잔상을 만화탄 사진으로 바라보는 작가 양대원의 세계는 누구와도 같이 있지 않다.
- 168 CARTOON MODERN ROMANCE**
가장 완벽한 삶의 남자가 겪은 골짜기한 하루.
- 174 FICTION 유리의 감옥**
시간 감정이 첫 번째 단편 소설 <유리의 감옥>을 한국 <플레이보이>를 통해 최초 공개한다.
- 180 CLASSIC KIM BYOUNGDUK**
김병덕의 실존은 인간 김병덕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 182 INTERVIEW CLASSIC WOODY ALLEN**
1967년, 가장 우대했던 33세의 우디 앨런을 만났다.
- 188 CARTOON CLASSIC IN OUR BED**
저가운 겨울밤, 그와의 뜨거운 동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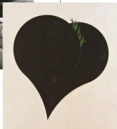
Cover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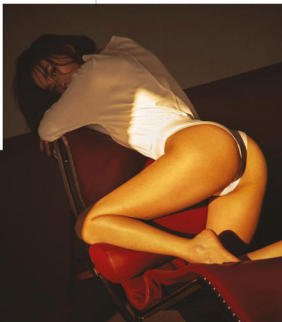
20대권 새해를 여는 <플레이보이>의 첫 커버는 4명의 플레이메이트, 다나와 함께 왔다. 베틀트 이글릭의 귀운 조국의 자라를 렌딩 해드로 만들어준 아이팅은 아이팅으로 볼 수 있는 한국 플레이메이트의 작품이다.

photography by *lee junghoon*

182



164



138



I AM A
BEE

PLAYBOY

Exclusively from Playboy. Shop now.

PLAYBOY **SHOP**
K O R E A



www.playboykoreashop.com



HAPPY NEW EROTICISM!

소미미술관에서 열리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 소장 누드전에 다녀왔습니다. 사 리 깊은 동선으로 구성된 8개 세션의 전시는 19세기 고전주의부터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을 포함한 현대 개념미술까지 이어지는데, 그 흐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드가 드가, 파블로 피카소, 프랜시스 베이컨, 만 레 이, 세라 루카스 등 누드 혹은 '성별'을 대하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도를 만나게 됩니다. 표현 방식으로부터 한 사람의 성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의 내용만큼이나 흥미로운 해프닝은 미술관 밖에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전시 홍보 목적으로 미술관 야외 쉼터에 내건 알리 마하스의 그림 '웃을 걸친 누드'(1906)를 두고 음란물이라며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로, 미술애호가라면 한탄할 노릇이었던 역사상 굴욕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누드라는 예술 장르에서는 새삼 놀라움 일도 아닙니다.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오키타모 요델의 기스(1906-1904)만 해도 지금은 에로티시즘을 상징하는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지만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는 작품 주변으로 가드레임을 설치하는 등 굴욕의 해프닝을 감내해야 했으니깐요. 물론 음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186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스 신화가 아닌 파리의 매춘굴을 배경으로, 우아한 여인이 아닌 당돌한 창녀를 모델로, 마넛가 잔에 담긴 누드를 통해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제시했을 때 평론가들과 대중은 그저 불쾌하다는 반응뿐이었죠.

누구나 잠시 숨을 쉴게 하는 요델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스 조각상이 포함된 '에로티 누드' 세션에는 '19금' 빔장을 걸어둔 은밀한 방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에로틱한 누드 도료를 선보이는 그 공간에는 말년의 피카소가 그린 성적 욕망과 환을, 데이비드 호크니의 동성애 루이즈 부르주아의 여성우월주의종교적인 남녀관계의 위치를 뒤집는 등 매우 사적이고 대담한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근대 예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 폭탄 관람에 일정한 연령 제한을 두지요? 질문부터 달하라면 아니요입니다. 테이트 미술관 관제직조차도 그 부분에 매우 외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만 그 작품들은 어둠이나 청소문들에게 유해한 걸까요? 어쩌면 그들 정서에 융성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보다 그들과 함께 에로틱한 누드를 감상하는 경험 자체가 어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1월, <플레이보이> 에디터들이 준비한 특집은 '한국의 에로티시즘(Korean Eroticism)'입니다. 미술관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한국 사회의 누드를 대하는 태도와 에로티시즘에는 어떤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있는지, 한편 우리 고유의 에로티시즘에는 어떤 은밀한 맛이 숨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적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서가 아닌, 미학적 가치를 존중하거나 자신의 주제적인 성(性)을 주장하는 이들과 함께 보다 행동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이끌어가는 데에로서 한국 <플레이보이>의 시대, 새로운 에로티시즘에 주목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12월 25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소미미술관의 테이트 누드 전시가 2월까지 연장한다는 발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혹한의 겨울에 이보다 후끈한 전시는 또 없을 테니 꼭 한 번 느긋하게 방문해 누드에 대한 두터운 편견을 깨는 기쁨을 누리시고, 세션에는 '우리 모두의 엔터테인먼트'를 자랑하는 <플레이보이>와 함께 에로틱한 특 특목 밤을 즐기길 바랍니다.

편집장 김정민



양지로 나온 섹스토포이스

섹스토포이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마라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상인을 물결이었다. 물결 구석에 허겁지겁 자리 잡은 그곳 시도가 떨 어져나가 어린가 로르게 의심을 자아내는 그곳이 내가 생각하는 섹스토포이스이다. 그래서 한 번도 성 인을 물결에 들어가는 적이 없다. 무시하셨을지? 근책을 자나갈 때면 친구들과 허락하지 않던 언제 한 번 들어보시고 장난을 쳤지만 막상 발을 내디 려면 망설이게 되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보의 싸움과 대표의 인터뷰는 더욱 흥미로웠다. 철부 지 날자들만이 장난 삼아 가는 곳이 아니라 남녀 모두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기 위한 공간이 라는 그의 말은 정말 멋지다.

이대현(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플레이보이》에
대한
독자들의
달콤쌔콤한
의견.



DEAR PLAYBOY



종이 책도 사랑해줘

나는 4살의 아이입니다. 001패드를 가지고 있던 하얀한 마직 종이 낱새가 좋은 나이지. 그런데 《플레이보이》 코 러라는 책이나 홈페이지에 더 성격에 맞는 콘텐츠나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서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약에 책을 계속 사 보기는 하지만 선물 장 구입을 선택하기 힘든 이유기도 하네요. 19권을 읽고 《플레이보이》 특유의 콘텐츠로 거듭날 것 같은데 합니다.

김상현(대전시 서구 복수동)



Entertainment for All

분명 성인 잡지로서 《플레이보이》 코러라는 한국에 맞는 형식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잡지로서 《플 레이보이》는 고개 막간 카운터가 필요합니다. 잡지는 특성 상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책입니다. 《플레이보이》 하 연 연상되는 놀이 이미지를 악인은 제너라는 글의 열과 전지점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 다. 글과 더불어 재미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콘텐츠로 가매출과 무가치를 공존시킨다면 《플레이보이》의 질하 을 유지하면서도 독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으 리 같습니다. 정윤희(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새로운 세상

《모터헤드》 김형은 편집장이 제시하는 미래는 내게 꽤 나 현실하게 다가왔다. 특히 자동차가 공공의 공유물로 바뀌는 미래는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자동차 오 니버널 누구든 주자의 성격에 대해 알 것이다. 자동차 를 공유하면 주자 문화는 쉽게 사라진다. 게다가 주자 공 간을 대신할 녹지도 사라진다(물론, 주차장이 없어진다 고 그걸을 완전한 녹지, 채우려만 보장은 없다.) 아직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그 가능성이므로 충분히 흥분되는 미래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은 쓴 김형은 편집장이 고맙다. 김형은(서울시 용매문구 계곡동)



PLAYBILL

허태형

음악으로 사랑을 만나두려워 할 때면 가장 먼저 사진가 허태형이 떠올랐다. 이번 달에는 그의 함께 마이क्र로닷을 만났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살 것 같은 독특한 공간에서 그는 단번에 마이क्र로닷과 어울리는 그 가치를 찾아냈다. 소년과 남자 사이에 있고 싶다는 마이क्र로닷을 소녀와 여자의 시선으로 담아낼 그의 사진은 'my w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게 에로티시즘을 가르쳐준 건 정사신 집으로, 세시한 무드를 만들어낸 황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다.

홍서우

영양한 목소리와 귀요미 소녀 같은 미소를 지닌 루돌프아일랜드 홍서우에게 익숙한 재료로 어떤 물레아트를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그와 헤엄친 아련한 음색 사진을 대충 주고 받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는 촬영 내내 너무 직관적이라 조심스러웠다. 그림을 이루질지 알 수 없었다. 물레아리스나 페니스, 복스를 할 때의 제우 그는 음식 재료에서 아련한 구석을 누구보다 재빨리 찾아냈다. 이렇게 그의 감각을 반영해준 건 작가 예은 실재의 작품이라고 한다.

김란티

〈물레아보아〉는 해당 좋은 치와 슬과 음식, 스타일, 공간과 세시한 게 담겨있고 있다. 그리고 그간 모든 사진가 김란티의 작품이다. 대변해 보여지면 알고 보면 내밀하고, 세시한 면이 더 많은 그는 "물레아보아" 사진에 대해 누구보다 오래 고민하며 사진을 찍었다. 은밀하게 세시한 그의 사진은 아쉽게도 다섯 번째 책에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그림자는 가벼운 말 대신 어느 날 멋진 슬로 아트를 나누기로 했다. 그런 그에게 에로티시즘은 사진가 에드워드 웨스턴에게 작품을 따랐다고.

김지양

'스케일'이란 말. 김지양은 한 것이 아니라고 전한다. 나아가 하루에 대해 생각하는 듯했다. "오늘 영화 찍는 것 좋아" "참 좋은 촬영이네요" 무지보다 내가 씹어 조개까지 내는 에디터에게 그 게 불확실했다. "김요미 씨의 오우를 담는 거지" 그해부터 나도 노력할 수 있었다.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연출한 일과, 저 무서워하는 순간, 그 순간이 사진에도 드러나는 데까지 같은 하루, 그는 사진공간이 위험한 데이비드 린치 영화의 여주인공에서 에로티시즘을 떠올린다고 했다.



〈물레아보아〉식 'Korean Eroticism'을 만들어준 8인의 여성 아티스트에게 물었다. 나에게 에로티시즘을 알려준 것.



하시시식

하시시식의 사진은 '전다' 알고 '읽는다'가 더 많다. 그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찍힌 당시의 공기를 상상하게 된다. 그런 그가 남긴 흔적을 세시하게 읽는다. 어떤 사진일까? 200 화보에서 배태가 내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평소 하시시식만 볼 수 있는 세시한 남편의 모습이다. "하" 했다. "그때쯤이다." 쓰러지는 물은 촬영을 위해 준비한 그와 그와 공자를 보았다. 하시시식이 에로티시즘을 느낀 작품은 전다 보라스 감독의 영화들이다. "80s 카트러시"라는 영화를 보았다.



김유인

한국 순화론 제대로 읽어줄 인물이 필요하면 허태형은 속삭이 들었다. 화양연화 물레아트 순화성정신사상을 전 것. 이곳을 기록한 김유인 하시시에게 기록을 전 달했다. 그는 순화론 좋은 글과 순화론 정의를 찾아냈다. 몇 번씩 글과 이미지를 확인하며 정성을 기울인 그의 노고 덕분에 유망한 정보가 가득 담긴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순화론을 공부한 그는 처음으로 에로티시즘에 대해 인식한 건 김요미 장 지크 어느 감독의 영화 〈연인〉이라고 한다.



백보연

관계의 허-하에도 그려내고자 하는 그림과 영혼이 있어야 하기엔 어떤 영혼보다 어려운 게 스타일링이다. 백보연은 "이런 스타일링"이란 그림을 완성해내는 스타일링이다. 자신의 스타일링이 어떤 식의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녀의 작업은 언제나 어렵지만 즐겁다. 이번 달 "대중문화"에 "하" "하"는 예술과 대중의 경계에서 그가 만들어낸 매력적인 스타일링이 담겨 있다. 그녀의 에로티시즘은 영화와 어떤 장면 안에서 만든 사진집이라고.



이명호

임구정동에 차려낸 매춘도 이명호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른다. 나긋하게, 그러나 정숙하게 몸이 벌어지는, 경외와 존경, 그리고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진 대가의 공간. 그곳의 수장, 이명호는 (대가다운) 백보연, 순화론 '정숙도' 화보의 재능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끝없는 만남이 시작되었다. 아, 그녀의 대표작 '하'의 '하'는 신문의 그의 그림보다 에로티시즘 상상을 펼치기 더 나은 작품이다. 〈물레아보아〉의 매춘도 이명호의 만남이 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Hoodie W79000, Sweatshirt W89000
Now available at www.playboykoreashop.com

PLAYBOYSHOP
KOREA

EVERY ISSUE. EVER.

THE COMPLETE PLAYBOY ARCHIVE



Access the ultimate stack of Playboy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latest — only on iPlayboy.



TAKE A FREE 14-DAY TRIAL AT
iPLAYBOY.COM/FREE-TRIAL

〈플레이보이〉의 메이트, 플레이메이트에 지금 도전하세요!

〈플레이보이〉의 주인공은 플레이메이트입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밝고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달의 플레이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관후지 말고 맘껏 드러내세요. 지금 〈플레이보이〉가
특별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who is a playmate?

매달 막 한 명 선정하는 플레이메이트는 〈플레이보이〉를 대표하는 주인공입니다. 미국 〈플레이보이〉의 첫 플레이메이트는 메릴린 먼로였죠. 플레이메이트가 되면 국내외 최고의 사진가와 사진 촬영을 하고, 근사한 화보와 함께 〈플레이보이〉의 상징 센터폴드(Centerfold)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브랜드 광고 촬영, 행사 및 파티 참여 등 〈플레이보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체적이고 매력적인 당신, 무뎌 주저하나요?

benefits

- 국내 톱 모델 그랜머, 스타일리스트, 비디오그래퍼와의 화보 및 영상 촬영
- 플레이메이트 화보 및 영상 출연료 지급
- PLAYMATE OF THE YEAR로 선정 시 상금 지급
- 〈플레이보이〉 행사 및 파티 참여 시 활동비 지급
- 플레이메이트로서 대외 활동 시 발생하는 수익 분배



www.playboykorea.com

※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 사항은 playboykorea.com
상단의 PLAYMATE 버튼을 참조하세요.

광고 문의 02-317-4851

정기구독 신청 문의 02-317-4825

PICKS:

Modern Boy

플레이보이의 시작은 더욱 클래식하다. 스타일부터 자중차, 취진 그리고 호텔까지.
1월, 《플레이보이》가 고른 세대의 풍격을 더하는 것을.



FULL CUPS OF TEA

우아한 꽃무늬 사발.

여기 불꽃한 생김새와 유려한 꽃무늬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사발이 있다. 별상차 많은 이 사발은 풍조, 요가 원실 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꽃의 꽃이자 부수영화를 상징하는 보관꽃을 분형사기 위에 빠지기 법으로 조각해 전통 수공예 도자기의 우아함이 깃들여 있다. 형제의 정기를 느끼며 그네와 마시는 도려자차 한 사발, 새해 아침을 맞는 장면으로 그만이었다.

A VEST THE BEST

포근함을 더하는 패딩 베스트.

패딩 베스트의 원형은 1960년대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사용한 우주복의 패딩 부분에서 유래한다. 이 패딩은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패딩은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Mr. Playboy
Says

"죽은 날씨엔 패딩
베스트만 한 효자도 없다.
얇은 것은 외투 안에,
두꺼운 것은 외투 바깥에
걸쳐 입은 뒤, 상황에 따라
일고 벗으며 체온
조절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딩의 날씨가 추위를 막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옷을 입을 때는 패딩의 두께가 중요하다. 너무 두꺼우면 활동이 불편하고, 너무 얇으면 추위를 막지 못한다. 이 패딩은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패딩은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패딩은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1 CLUTCH BEST FRIEND

일품작한 단짝 친구.

불필요한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인형적인 브라운 컬러에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이 매력적이다. 베uton을 제외하곤는 그 어떤 장식도 없지만 스타일감을 깨우려할 때 자꾸만 손이 간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단짝 친구새끼이 클러치는 어떤 스타일에도 멋지게 당신의 권을 책임질 것. 간결한 디자인의 클러치는 **L.M.Z PREMIUM** 제품

2 ACCESSORY PICK AND CHOOSE

나만의 시계 컬렉션.

새 워치들을 펼치면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빈 공간을 하나씩 채워갈 생각이 가슴에 설 때문. 찾아온 시계들을 정성스레 배치하면 취향에 딱 들어맞는 나만의 시계 컬렉션이 완성됐다. 워치들을 돌돌 말아 끈을 묶으면 파는 걱정 없이 휴대가 가능해 어디서나 매의 장소에 어울리는 워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워치로는 **F.H.A. HMAN by BARBERSHOP** 제품



3 GLASSES MAKE A STATEMENT

더 대답해져도 좋다.

영스 무난한 인상을 선했다면 올해는 보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 둥근 프레임에 부드러운 호피 무늬가 들어간 테도 좋고, 각기 다른 재질을 시중에 재미 있을 테도 좋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대답해 줄 시간이다. 둥근 프레임의 **BYWP by SIWON EYEWEAR**, 개성 소재의 사파이어 안경은 **JILL STUART by SIWON EYEWEAR** 제품

4 SHOP SPECIAL SELECTION

한옥에 좋은 유려미만 구두.

한적한 서촌 골목에 위치한 물리는 품격 있는 유려미만 브랜드의 구두로 가득하다. 전통 한옥 구조들의 이 공간에선 세련된 디자인의 버클부터 독일 헤이켈로 지어 전통 신발을 선보이는 래플로까지,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두를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구두 관리 용품과 가방과 벨트 같은 남성 액세서리도 구비되어 있으니, 서촌에 들어선다면 이곳에 들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서울 서촌로구 효리동/입 02-750-9974**



면도를 하다 보면 면도날에 피부 노폐물이 쌓이고, 칼날 노폐물 때문에 무더진 면도날은 그날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게 일반적. 하지만 레이저컷의 면도날 클리퍼는 면도기 사용 전후에 물을 얹어 묻히면 그만큼 세척이 가능한 제품으로, 면도날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신년 새가를 위한 바루에 먹줄 갈듯 깨끗하게 날려준 면도기로 아침의 문을 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TIME TO SHARPEN UP

벼루를 닦은 면도날 클리퍼.



"면도기 세척은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 중 하나다. 하지만 면도기는 물과 닿기에 세균 번식이 쉽고, 이를 피부에 직접 사용하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매끈한 턱선을 위해 제대로 된 면도기 세척은 필수다."



1 SKINDEARE RESPECTION

활발한 활이벤트.

생기 있는 피부는 유지하기 위해선 피부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 세는 뛰어난 보습력과 풍부한 영양을 갖춰 피부에 힘을 되찾아준다. 설화수의 '본문 에센스'와 '본문크림'은 인성 세 오일과 더불어 각종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다. 본문에 에센스'와 '본문크림'은 모두 SULWHASOO 제품

2 BARBERSHOP BLESSED HAIR

한해를 맞이하기 앞서,

새해에는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고 싶은 날. 가장 순하게 스타일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이다. 아직 한가 무렵이지만 클래식 바버숍의 시그니처 머리 두피 마사지를 받아보자. 시원한 마사지와 함께 집념이 새겨질 것이다. 이제 브랜드에서 나온 영웅 샴푸를 사용에 두피는 물론 오일까지 건강하게 관리해준다. ① 서울시 강남구 연동로129번길 ② 02-547-3088



3 ANTI-AGING 3 STEP REPAIR

피부 탄력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

추위를 얻는 시간에 비해 지우는 시간은 너무나 가혹하다. 하지만 집중 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그런 시간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 벨리프 '프러임 인퓨전 리페어 브로그'를 애플들은 단계별로 사용하는 세 가지 애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는 작은 각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껏 매끄러워진 피부에 수분을 채워 넣는다. 마지막으로 피부 항산화 효과가 풍부한 애플을 통해 버려진 보디 건강해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프러임 인퓨전 리페어 브로그'의 애플 3종은 BELIEF 제품



4 PERFUME MELTING IN VANILLA

추위를 녹이는 달콤함.

은은한 바닐라 향은 특유의 고급함으로 몸을 따스하게 해준다. 두꺼운 옷으로 겨울 추위에 맞서기 전 바닐라 향이 들뜬 달콤한 향수를 뿌려보자. '오기제 바닐라'는 달콤한 바닐라 향에 오기제와 톨카민 향까지 더해 온기를 전하는 향을 완성했다. 이 향수를 곳곳에 뿌리는 것만으로 모든 계절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기제 바닐라' 향수는 VAN CLEEF & ARPELS 제품

FUTURE OF CAMERA

라이카가 나아갈 미래,

영리 카메라에 브레송이 사랑했고, 로버트 카파와 함께 전쟁터를 누빈 카메라. 사진의 역사를 되짚을 때 라이카는 반드시 언급된다. 그만큼 호화로운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라이카는 동급 카메라보다 가격도 두 배 이상이었고 세계 최초로 35mm 틸름카메라를 만든 브랜드답게 그 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런 라이카가 지난 전 최초로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 "T"를 공개했다. 100년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던 라이카가 편의성과 효율성을 우선한 카메라를 냈다는 건, 디지털 시대를 모용하고 더 넓게 사랑과 만나겠다는 포부였다. 그리고 지금 라이카는 두 번째 미러리스 카메라 "CL"을 발매했다. 모든 면에서 전작보다 많막이 나아갔다.

2400만 화소의 마에스트로? 이미지 프로세서와 초당 30 프레임의 고해상 4K 비디오 기능도 탑재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건 230만 화소의 고해상 전자식 뷰파인더다.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기술적인 진보와 아날로그적 감성을 추구하는 "CL"은 라이카가 나아갈 미래를 이야기한다.



미러리스 카메라와 35mm 렌즈는 모두 LEICA 기술



Mr. Playboy
Says

"기술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가치와 전통 그리고 낭만을 아로새긴 디자인. 라이카만큼 '플레이보이다운' 카메라가 또 있을까?"

1 EARPHONE BETTER YET

어디서 무얼 하든.

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사용자의 일상에서 더 빠르고 거침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 이상 선이 꼬일 걱정도, 여딘 곳에 걸릴 걱정도 없다. 언제나 불편함 없이 귀에 자리할 수 있게 '트랜스패어런스 모드'(Transparency Mode)까지 장착했다. 음악에 푹 빠지고 싶을 땐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길을 걸을 땐 이 모드를 사용해 외부 소리를 다시 청취하면 된다. '베오플레이어'와 함께라면 어디서 무얼 하든 최고의 시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베오플레이어'의 어려움

은 BANG & OLUFSEN 제품



2 POLAROID TAKE ME BACK

아날로그와 현대의 매력을 한 몸에서.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담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혹은 찍는 사진도 볼 수도 있고, '인생 샷'을 건지기 위해 여러 번 셔터를 누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불편함이 오히려 아날로그의 매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아날로그의 매력과 현대의 편리함이 적당히 섞인 카메라가 있다. 바로 폴라로이드, 즉의 사진이다. 폴라로이드 '앙스트로'는 미니 폴라로이드보다 더 큰 형상을 인기였다. 게다가 새로 출시되는 '앙스트로'는 'u-type' 필름에 더할 거 600 필름까지 호환 가능한 이더 컬러와 흑백 필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연출로 재미를 줄 수 있다. 추억을 즉시 손에 쥐어주는 '앙스트로'는 POLAROID 제품

3 SPEAKER VAMPING UP

작지만 강하다.

조각품을 빼고는 실용성에 비대한을 위해 특별하게 한 크 베드라트 페브릭을 더했다. 비파 '게이퍼'는 블루투스 스피커의 휴대성과 통상한 시공간 모두를 충족시킨다. 두 개를 연결하면 스테레오 사운드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게이퍼'의 블루투스 스피커는 VIFA 제품



4 TECH SCENE REAL SOUND

오디오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대회를 통해 사람을 알아가듯, 오디오 역시 감각이 필요하다. 얼마나 깊은 소리를 내는지, 어떤 장르의 사운드를 잘 전달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오디오를 견학해야 한다. 청담동에 위치한 소리의 천공아파트에서는 각종 이 어폰과 헤드폰은 물론이고, 그거와 스테레오까지 즐길 가능하다. 예약 후 해장을 방문하면 세 개의 다른 테마의 청담아파트에서 열리는 스테레오를 프라임하게 감상할 수 있다. ①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96길 29 대림빌딩 1층 02-3440-0300





Mr. Playboy
Says

"말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 생명체에 가장 가까운
건 자동차다." 재규어
창립자 윌리엄 라이온즈의
철학이다. 신사다운 품위,
맹수다운 역동성, 재규어
'더 뉴 XJ'는 플레이보이다운
인세기 차다."



GENTLE BEAST

품격 있는 맹수.

자동차의 품격을 논할 때 재규어 '더 뉴 XJ'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역창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재규어의 장수를 증폭할까 파문이다. 더 뉴 XJ는 맹수로 태어났지만, 만만함 주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LWB의 디자인은 살너도 포근하다. 하지만 맹수는 쉽게 감동하지 않는다. 시선에 나타난 재규어가 이빨을 드러내듯, 더 뉴 XJ는 시선을 끌면 차분하면서도 거친 숨을 불어선다. 최고출력 300마력, 최대토크 71.4kg·m, 풀급 중 가장 우수한 출력 성능이다. 더 뉴 XJ를 즐기려면 헛장보다 문천사이다. 맹수 있는 맹수와 적절 교감하는 것만큼 멋진 일은 또 있을까. 더 뉴 XJ는 JAGUAR 199

1



1 EXHIBITION
WITH THE WIND

시간을 초월해 주는 바람.

[illegible]

2 EXHIBITION
PAPER PRESENT

줄이의 매력.



세계적인 아티스트 10명이 종이를 접고, 오리고, 입혀두었다. 작품들은 살짝 젖은 상태로 바람에 자연스레 흔들리고, 빛과 그림의 공간에 장막처럼 대립하면서 자신과 접하는 Paper, Pencil이라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감성을 결합해 절정 아름다움을 지니고 대륙을 일제히 뒤흔들었다. 순순히 슬픈 나라의 가루와 소금, 인내력이 다져진 듯 다양한 분홍과 노란색 등의 무한한 가능성이 정교하다. 인공의 힘과 권위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자. 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3길 7 대림미술관 ② 5월 7일~5월 27일 ③ 4800원

자세한 내용은 02-720-0967

3 CONCERT
BOYS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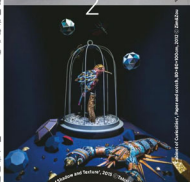
2018년의 시작, 해외의 '모던 보이'들이 한국을 찾는다.

1 Hurts 밀물하게 지어입은 수호의 가자편히 접든한 해
아스탈, 일국의 신스름 유은 하교가 모다시 찾아온
정구 4월 일출 《Desire》 발매를 기념한 아사시의 부자
통해 1집 발매 한국을 방문하고, 4집을 낸 아사시의 신사이
자와 기타 선을, 태오 히라코레코트의 보컬은 관객에게
1991년 1월 뉴이스트와 최신 밴드의 조화음을 들려
예정이다. ① 서울시 미로구 신당로 32 우정초 ② 1월 27일
02-7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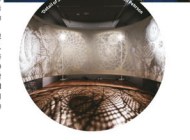
2 Joey Bada\$\$ 꾸준히 국내외 힙합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조이 배다\$\$는 이름을 가작할 거다. 2019년, 조이 배다\$\$는 미국의 힙합 씬에 대대적으로 데뷔했다. 그는 미국 힙합 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힙합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의 음악은 힙합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것으로, 그의 음악은 힙합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음악은 힙합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것으로, 그의 음악은 힙합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culpting, paper, wood, metal, glass, lead and adhesive, 1000-110-300cm, 2017 © Sculpture and Photography Richard Bennett



Journal of Calculators, www.journalofcalculators.com, 10 • 10 • 1000 • 1000 • 1000000



100



Mr. Playboy
Says

"실험적인 음식을 내는 레스토랑에서는 설부를 얹은채보다 질문을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 호기심 가득한 질문은 그녀의 눈에 귀엽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잔에 먹던 걸로' 같은 아재 개그는 낯속이 날아줄 것."



FIRST PLATE

미각을 깨우는 첫 식사.

음식은 맛거나 볼 것만 있는 맛과 색깔이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지만 도산공원 뒤에 조용히 자리한 컨템퍼러리 한식 레스토랑 '돌음'의 맛은 이를 그대로 준다. 양류 메뉴 없이 오직 테이스팅 메뉴 한 가지만 선보이는 자신감을 약속한 듯 정갈한 맛으로 증명해낸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맛을 돌음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뉴 중 1월에 어울리는 신맛한 도화새우 재피체를 맛봤다. 아주 친해지든 과일에 유자드레싱을 더한 과일 레터투마, 향긋리드레싱으로 허락해드린 오화새우, 사인머스켓과 허리 생강 피클, 그리고 으스스라 개미와를 차려낸 달은 이 메뉴는 한데다로 허와 모든 신경을 깨우는 것이다. 아주 가볍고 세련다. 새해 첫날처럼.

☎ 서울스카이라인 구로점 02-848-7096 ☎ 02-848-7096



1

1 DESSERT FROM THE STEAMER

시루에서 나온 디저트.

일거무로 만든 순한 디저트가 아니다. 시루게이코는 시루에 한 걸음, 게이코를 만든다. 한입 맛보면, 크림과 초콜릿이 웨이브 의뢰로 잘 어울린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쌀 레시피 공모전에서 우승한 주인공의 감칠을 바탕으로 만들며 시간이 아주 짧다. 명칭에만 박집을 걸게 되는 요즘, 우리 전통 간식에 대한 사랑을 손쉽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그래서 이런 새벽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클래스도 진행 중이다. 정성을 가득 담은 하루에 한정 수량만 조금씩 내놓으니, 당분간이 건강관 디자인을 그와 함께 나눠 먹으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④ 서울시 미로구 학우천로14길 4 ☎ 02-6294-7700



2 CAFE BACK TO THE 80S

시간이 멈춘 공간.

1980년대 서울에서의 테이빙은 어떤가요? 직접 노르망디로 십대던 브런치 카페 서울테이빙을 찾은 것. 여름철을 맞이하며 제철한 곳과는 이곳의 콘셉트를 영감하게도 라운드, 세팅된 공간보다는 그 시절의 분위기가 묻어나는 친근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붉은 벽으로 직접 제작한 테이블과 벽면의 강제 벽화를 활용해 옛날 집처럼 꾸민다고. 골드 컬러의 조명으로 시간 이 너무 과거로 흐르지 않도록 현대미를 더했다. 커피와 우유, 달달한 크림을 손세대로 달은 시그니처 메뉴 '서울 시루'를 은은한 게티 향으로 이곳만의 감성을 전했다. 감동하고 행복하다는 오늘날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받기며, 서울테이빙은 오는 11월부터 오후 10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없이 문을 열 예정이다. ④ 서울시 연평구 관악로3길26 ☎ 02-689-0226

3 RESTAURANT

知味方

즐겁게 음식을 탐미하는 방법.

조선 시대에 한글로 제작한 최초의 조리서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의 뜻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다. 그 이름을 본뜬 익산디미방을 찾아보면,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오래 근무했던 셰프의 음식을 탐미할 수 있다. 인형적인 생김새를 입고 익산동 골목에 반듯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이유는 손님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모두에게 친화적이고 언제나 정성을 기울이는 이곳의 요리는 10여 년 넘게 파인 다인성을 선보였던 노화우를 담아 프랑스식 조리법에 한식의 요소를 거미었다. '전정향 로스팅 통삼겹살', '창랑구 추 배산물 부 야베스 파스타' 등 메뉴의 이름을 완전히 살펴보면 애정 어린 고민이 느껴진다. 오래된 한옥 공간은 따뜻한 골드 컬러의 테이블을 들어 고층스러우면서도 모던한 매력을 상했다. 골짜기 정성, 전통과 현대를 모두 담으니 둘만의 한판이 더욱 특별해진다. ④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9길 17-27 ☎ 02-747-3478



2



RABBIT IN THE BOTTLE

토끼굴에 빠진 화요.

온전해 보이지만 속은 부드럽다. 명확한 색이 있지만, 어디에선가 잘 어울린다. 프라임 증류주 화요 이가다. 화요의 시리즈 중에서도 유독 보수적으로 보이는 '화요'의 깊고 단단한 보틀 뒷면에 엘리스 청담의 토끼 로고가 새겨진 '화요' 엘리스 에디션이 출시됐다. 300명 한정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 한국 전통 증류주는 와인과 위스키, 보드카로 채워진 바 안에서 제법 빛을 발한다. '플레이보이'와도 잘 어울리는 '화요'를 '엘리스'다운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은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김용주 비엔다가 만든 '카우일' 회사 리바이벌이다. 화요에서 새로운 문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Mr. Playboy
Says

"특유의 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깔끔한
증류주는 취향에 따라
마시는 방법을 달리하기
좋다. 술을 즐길 줄
아는 그녀와 함께라면
스트레이트 또는
온더록스를 먼저 권해보자.
술 자체의 향을 그대로
음미한 후 두 번째
잔은 같은 술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 좋겠다.
그녀의 마음을 얻는 데
단 두 잔이면 충분하다."



HWAYO

The rediscovered, pure taste of Korean distilled
spirits with a 700-year tradition

Vol. 750 mL

41



1 PUB LIQUID LUNCH

한옥에서, 낯술 한잔.

식사의 틈에 술을 알뜰이 한국 전통의 뿌리를 찾으려한 동양신학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 그 시대의 반주 문화를 2018년 서울의 한옥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 기와지붕 아래, 옛 모양 그대로이 불을 뿜는 벽난로 주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 메뉴와 거가막 어울리는 술이 있다. 소주와 맥주뿐 아니라 '막걸리, 청주, 알성한 전통주'까지 다양하게 구비했으나, 특별한 공간을 위해 '허허는 식사'를 탄약화시켜 제라이다. 오가는 술잔에 톨도, 미음도 뜨거워지곤, 완전 다녔다. 두렵지 않다. ① 서울시종로구 회현로143길 3 ② 02-429-3599



2 BAR JAZZY NIGHT

재즈와 함께.

20세기 후반, 거센 재즈 열풍이 국내에 불어왔다. 윙가운 시간을 보낸 미국 문화를 지금 청담동에서 만나다. 레온지바 갠들러에서는 매일 라이브 음악이 울려 퍼진다. 감미로운 색소폰과 휘핑크림 소리, 보컬과 랩댄스까지, 화려한 무대를 연출하고 있으니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하다. 라이브 이름 또한 <레온>, <리버> 야수, <세제> 등 영화 제목을 붙여 분위기를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세트, 료음으로 꾸민 이곳의 밤은 언제나 환상적이다. ③ 서울시 강남구 도산로5길 6 ④ 02-547-0899



3 DRINK KOREAN DRINKS

우리 것의 품미에 취하고 싶을 때.

1 장인의 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문경도지기에 숙성해 오미자 분향의 맛과 향을 살린 음류주는 <고운달 맥자 2> 청외대 당찬주로 쓰임 만큼 고소한 누룩과 향긋한 과실 향의 조화가 고급스러운 맥주는 <봉정사계 춘 3> 이면문을 40일 동안 자른에서 주조해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일품한 향을 구현한 맥주는 <아래로 수리 4> 새색시공 농축액에 최고급 흑미를 첨가해 은은해진 자 맛을 자라내는 맥질에는 <새벽별종 흑미막걸리 5> 알뜰을 발효시켜 만든 한문도까지 정성으로 손수 '얼른' 학질하는 일은



4 PUB THE STAGE

아름다운 술의 무대.

상수를 한껏 골목에 자리 잡은 한식주점 주(主)무대는 <재미> 알찬 술의 무대다. 단출한 공간이지만, 다양한 맥질과 손님에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다. 버블은 '막걸리 시대'까지 거슬러 왔다. 단양에는 <삼지선>, 목지한 <목선> 김씨는 청담동에서, 향미를 고르며 내려가면 언제나 원만한 음주를 할 수 있다. 고기를 두루벌로 올린 숙육 전골과 최후 간식을 받은 학질과 나오면, 공간이 시작된다. 술의 무대 위, 주인공은 우리들뿐이다. ⑤ 서울시종로구 무선로33길 3 ⑥ 02-347-0297



hotel

multimedia editor kim sahee
photographer kim jordan



Mr. Playboy
Says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에는 긴 시간을 지켜온
가치가 남아 있다. 골목길
끝자락에 깊숙이 숨어 있는
이곳에서, '고이' 지켜온 그와의
굳건한 사랑을 확인해보자.
온돌방의 새하얀 이불 속은
언제나 뜨겁다."

GOI

시간의 흐름 속,
고이는 간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은 '별당'과 도로를 뚫고 집주하는 차양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600여 년의 시간을 밝은 서울은 새로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조금씩, 혹은 급격하게 변해왔다. 현재의 서울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는다면, 단연 북촌이다. 고즈넉한 한옥이 줄지어 모여 있는 마을. 좁다란 골목길은 마치 미로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걷다 보면 어느새 다른 골목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 한 지점에서 만나기도 한다. 북촌의 길은 이토록 자연스레 흐르는데, 과거와 현재는 왜 단절된 기분이 드는 걸까.

한옥 호텔 고이는 아득히 떨어진 시간 사이의 간격을 이어준다. '고이'라는 이름은 '정성을 다하여'라는 의미의 순우리말, 전통과 현대 사이의 적절한 농도를 찾으려는 고민 끝에 마련된 이곳은 한옥의 매력을 지키면서도 오늘날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 처음 발견했을 땐 작고 낡아 불편하다고 여긴 공간이었지만, 문안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최소한으로 진행했다. 넓은 공간을 차지 않은 것도, 세련되지 않은 문물 그냥 내려놓은 것도 이유가 있는 셈이다. '한옥'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바닥을 나무 활목으로 교체하지 않은 것에는 그저 전통 방식을 고집하지 않을 뿐이다. 기존의 데코 타일이나 강화재루로 만든 바닥을 유지해 현대적인 실도 보여주고자 한 것. 이러한 고이의 생각은 작은 인테리어나 하나하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좌식 생활에 맞도록 침대를 틀어지우는 대신 프크란 이불과 오를 땀었다. 앉아서 편안하게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직접 가구를 제작하기도 했다. '주거의 완성은 사람'이라는 철학 아래 뽕뽕 찾아 수집한 소품들은 자연스럽게 장식적이자이다. 오랜 역사를 이어가는 집안보다 현대 골예가와 디자이너의 작품이 많은 건 시대에 알맞은 공간으로 존재하고 싶기 때문이다. 머무는 손님들의 안락한 휴식을 위해, 욕실 아메니티에는 전통기와 함께 작업한 고이만의 향을 담았다. 비엔 일상에서 느꼈을 초조함을 누그러뜨리고 행복을 선물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하지만 고이는 고집 부리지 않는다. '서울 사람의 서울 집'은 오늘날도 달달히 하루를 살아가고, 현재에 충실한 채 과거를 간직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3길 14-1 ☎ 02-4766-9530 www.goyehotel.kr





no filter : editor yoo jiang photographer kim jondae
hair & makeup artist lee jeun

SOLID STATE SURVIVOR

수많은 망설이지 않는다.

신곡 'Mirrorball'엔 자극적 소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음식도 자극적인 것을 되게 즐겨요. 그런 느낌이 오는 행동을 좋아하고, 작업할 때도 표현 방식이 선 편이에요. 예를 들어 곡에서 리듬이 딱딱 나오다 막 빠지고 펄드 계열 소리가 나오는 순간을 상상한다면 "여기서는 내가 분출을 한 뒤에 '한자타임' 있을 재를 상상해 봐"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것도 순화시킨 거예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느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결국 자기가 잘 경험하고, 잘 또대로 음악을 만드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섹스 중에 들은 예로 가사를 쓴 것도 있어요. "f**k Me" 같은 곡은 사실 1절은 미스테리해이션을 하는 내용이고 2절에선 그걸 관찰하는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남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이든 아성이든 통성아든 처음 보낼 때 매력적이면 서슴없이 다가가요.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성격이죠. 단순하고, 좋은 일 있으면 흥분하고.

“
음악이든 아성이든
통성아든 처음 봤을 때
매력적이면 서슴없이
다가가요.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성격이죠.
단순하고, 좋은 일 있으면
흥분하고.”

”

전 것 같아요. 독자 읽고 단단한 울퉁은 착안돼. ②



EXAGGERATED GIRL

정문헌은 불인정한 시기가 있을까?
 친구 아티스트 크리스토퍼 세로비노
 (Cristobal Servino)는 변화의 가솔
 데 놀리 천천히 연막을 씌운 듯했다.
 다. 마치 서둘러 누르는 순간에 닿게
 하더라도 한 듯. 그의 사진은 깊은 흰
 밑감을 준다. 은은하게 비친 햇살과
 꽃, 빛과 빛깔은 삶, 그 모든 게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에 충혼을 떠올리게
 한다. www.saybybyuusa.com

POTPOURRI

신중히 고르고 멋대로 골랐다. <플레이보이> 편집팀이 선정한 지구를 아우르는 소식



60가지 맞춤법 문제

사태와도 성격과 모양이 다른데, 왜 관공은 여러 사자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 내심 의아했다면 이 공문을 주목할 것. 마이애미(Miami) 관공은 성격이 강하고 두꺼비 수치를 이용해 60가지 사자로 만들어졌다. 내게 꼭 맞는 사물을 구해줄 수 있으니, 더욱 편안하고 희망 넘치는 사명을 나눌 수 있다. <http://myoneconomy.com>



I DON'T WANT IT AT ALL

목걸이 상어송라이더의 집 폐쇄는 본
표판 신곡 1 Don't Want It at All은 그
가득 소환력을 뽐내 신나게 소환을 해
원하기도 했다고 노래한다. 엄청난
보여준다. @/mooet-as

TARANTINO WANTS <STAR TREK>

수행한 디킨스는가 (스티브) 하이스의 평가를 남겨 받지 못한다. 언뜻나 그렸을 '모험'으로, 제2차대전 때의 모험가로서, 그 에이브링스도 동의했다. 디킨스는 감동은 모험선에서 일어난 일로 보았을 미치여으로 문해할 것을 자주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배를 탔었다. 디킨스는, 그 해일승 (스티브) 하이스는 어떤 모습일까?



BATHROOM SEX

했다 뒤 역으로 자기를 보면, 같은 곳을 향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육신에서 사망을 나는 한 지별이 조성되지. 육신(결혼)이라는 육신에서 역으로 나타나는 도를 '난정한 무상'을 일한 사람들이 많다며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적당한 자세로는 벽에 기대고 앉고 허기, 마주 보면서 허기, 무릎을 꿇고 '공자지 자세로 허기를 존중한다.' www.dailystar.co.kr

NEW NUMBERS

36

2018년 새해, 한국인의 성에 관련된 숫자들을 모았다.

220,000

영매와 이들의 솔직한
섹스 토크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조회 수
22만을 돌파했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아들과
섹스에 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영상은
부모님에게는 섹스의
장'지도' 못'라는 보통
사람들에게 놀라움이자
부러움이다.

100

인스타그램은 전국
5곳에 스페셜 콘텐츠
시공한 친환경 콘돌을
100원에 판매하는
지원기를 설치했다.
채널채널이 자란
콘돌의 가격은 '청소년
피임'을 위한 것
판매 수입은 서울
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눔'에 기부된다.

함경도에서 국경
수비를 하는 군인들의
군무 과정을 일기로
기록한 조선 시대의 책
(해방일기)에 의하면,
군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3일은 여자(와) 섹스를
한다고 적어 있다. 그
여자의 정체는 여형 도종
일시로 모든 집의 여자
노비, 솔집 여자, 그리고
가성 중 하나였다고.

1

국내 최대 인문 사회학
섹스인 'VR 섹스' 문화가
도입됐다.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3~4년
전부터 도입됐던
'VR 포르노'를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가 성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VR 성인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성인용 VR렌즈
생기고 있다.
VR 섹스의 탄생은
우리의 성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동성애자는 신라 제2대
왕인 해공왕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해공왕은 여자같이
행동하고 못 입기를
즐거 했다고.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왕에 왕은
여자였는데, 남자의
몸을 두려 왕이 했으니
나라에 불길하다'고 하여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0.650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8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0.
대상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여성 각자가
사회에서 경험한 개인적
경험이 몇 가지 시간과
맞물리며
전대 이후는 여전히
프가운 감지로 일들이
오가는 중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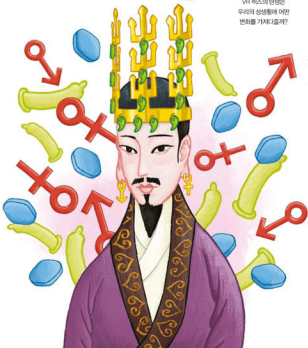
87

세계 30개국
40~60세 남녀들
대상으로

"연애에 있어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87%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3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9.7

제약회사
비이그라에서 조사한
전 세계인의 성생활
만족도 중 한국이 둘째.
남성은 9%, 여성은 7.8%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성생활이
좋은데는 의견에는
남성 9%, 여성 8%가
답했다.
이성과 현실의 괴리가
이렇게 크다.



PLAYBOY

TASTES:

남자들의 공간, 시계, 차, 예쁜 여자..., 플레이보이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모았다.



SPACE • WATCH • ITEM • CAR • SWEETHEART • INTIMATE ASTROLOGY



플레이보이가
오호이 자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찾는 그곳.
바로 남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서울시가클럽이다.

CIGAR CLUB SEOUL

서울시가클럽의 문을 열자 전한 일 함이 후기를 가득 채웠다. 남성용 황수에서 많이 알았던 우리 계명 했었다. 시가들 다루는 공간이라면 분명 해쾌한 냄새에 젖어 있었리라는데 데디터의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진 순간이다. 맞이 가득한 아담한 내부엔 오래 서둘러 반쯤반쯤하게 깊이 난 소파와 스포츠 줄게를 볼 수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 쿠백신 소품과 유머러스한 그림으로 가득했다. 문명 으르르리한 아이템으로 반짝일 거라는, 근거 없는 상상이 또 다시 무너졌다. 이곳의 대표인 프랑크 태생의 피에로 조엔-엑크넨은 일찍이 시가를 즐겼다. 시가를 피우는 스크린 속 화려한 배우들의 모습, 그리고 일요일 아침마다 풋살이 드는 창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시가를 피우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다. 유년 시절 접한 음악과 향에 대한 기억은 그를 시가 애호가로의 길로 이끌었다. 한국에 왔다 시가와 와인을 유통하는 사업체를 꾸린 그는 시가를 추구하는 생활양식과 이질로 본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준다고 여기게 되었다. 시가를 피우며 부와 위함을 과시하지보다, 시가가 선사하는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것, 피에로 대표가 서울시가클럽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이다.

"서울시가클럽은 남산의 정기를 마시며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테크니션들의 휴식처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정한 휴식을 즐기거나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곳을 찾죠." 어떤 남자들이 서울시가클럽을 찾는지에 대한 피에로 대표의 답변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서울시종로구 소월로222 남산빌딩 402호

② www.pierocigar.com

③ @pierocigar

④ 02-790-45228





한쪽 벽면을 삼나무로 마감한 칸디다바는 모든 종류의 최고급 무안 시가를 갖추고 있어서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반대쪽에는 고급 와인만 물론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터가 있어 친구들끼리 술이나 커피도 즐기기에 좋다.

명쾌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품은 레더 스트랩
드레스 워치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

OPENING



HOURS

VACHERON CONSTANTIN

1960년대 출시된 바쉐론 콘스탄틴 반외치 제형에서 영감을 받은 레트리모니 컬렉션 약 70년 전 모형을 원형으로 했다는 걸
믿기 힘들 만큼 오래된 이 시계는 조화로운 비율과 군더더기를 덜어낸 디테일로 본질에 다가섰다.

6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창이 있는 레트리모니 워치형 알렉산더 4400으로, 6시간 직독 60분 기능을 갖춘 링크 콘트 레어스프
"레트리모니 42" 시계는 VACHERON CONSTANTIN 제품



ROLEX

헬리나 캠크선의 시계는 롤렉스 제품 중 가장 드레스 위치의 한쌍에 가깝다. 화려한 시계가 즐비해 반항하는 유아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는 롤렉스의 모든 캠크선과 공통분모를 갖는다.

메뉴얼 471101형식의 롤렉스 메뉴얼이 영어로, 약 48시간 동안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오토Wind 파워의 '롤렉스 캠크선' 시계는 **ROLEX** 제품



MONTBLANC

스위스 워치메이킹 코드에 반영된 필수 기능과 유용한 성능에 집중된 명품강의 메리타치 크로노메트리 컬렉션
그중에서도 이 모델은 인덱스, 겹 모양의 아워 및 마넨 핸즈의 골드 컬러 그리고 다이얼의 상해 질리가 매력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MT 34.09 메리타치 4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은 탑재한
메리타치 크로노메트리 오도메터 시계는 MONTBLANC 지문



ROGER DUBUIS

로저 드뤼의 엑스칼리버 컬렉션은 전사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았다. 애서 왕의 명검, 엑스칼리버를 지닌 사칭과 분침, 그리고 트라폴 리그와 강철한 룬인 오퍼스가 이 대담한 컬렉션을 대표하는 특징이다.

남자 할라스를 세련된 장이 있는 오토매틱 ROXO0 영리해, 그리고 48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장착한
엑스칼리버 42 오토매틱 시계는 ROGER DUBUIS 제품

BATTLE
지갑을 여는 남자다. 그들의 신년을 확실한 기쁨으로 채워
GROUND

플레이보이는 기쁨을 위해 지갑을 여는 남자다. 그들의 신년을 확실히 기쁨으로 채워줄 물건을 VS로 엄선했다.

photography by *kim jandee*



Socks Sneakers or Smoking Slippers

모름지기 플레이어의 슈츠라면 반입해와 스타일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흔해보니 닥에 입백이 플레이어의 슈츠로 이름을 알린 스포츠 슈트였기 때문이고, 이번 시즌 스포츠라이프의 중심에 있는 001의 작스 스타디움즈가 그렇다.

영감을 받은 멋진 옷들의 '레스 라베르세'에는 FENDI 코트와 폴란 헝가리 코트와 유머러스한 스커트인 DOLCE & GABBANA. 장미꽃 모양의 넥타이와 셔츠는 CR2. 원형 의상에서 코스타니는 TOTAL MARBLE 작품.

실이라는 뜻인 조한 동아시아의 거울에 꼭 필요한 아이들, 오늘 평소 사용하던 로션이나 크림에 한두 방울 정도 섞어 바로 간편 조한을 이겨낼 수 있다.
예민한 피부임수록 단일 성분 또는 바닷물만 믿었던 제품을 추천한다. 주위를 알뜰히 둘러싼 용출을 찾는 아이에게는 캐시미어 향기를 제안한다.
시리시리도록 보글보글 캐시미어 향을 맡고 싶으려면 잠자니마 주위를 일깨워 줘라.

[illegible]

Electronic Cigarette

매캐한 냄새도, 날름 자도 없다. 2018년을 사는 흡연자의 욕구를 정확히 읽어낸 전자담배는 시장과 환경의 지미와 수많은 불편한 담배 애호가와 흡연자를 위한 놀임다.

KTAG가 선보인 빛은 일체형 본체에 연속으로 켜지는 장점 외에, 후방 주머니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석연하고 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키스톤의 전자담배 충전기는 빛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빛'을 선택할 때는 STONE JEJU by SEOUL BUND, 유기 트레키는 NOTDAM 제품



타인 스코프의 범위는 무리에서 작아지고 다양한 원인이 타인 스코프를 좁혀왔다. 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다분할 때는 갈수록 많은 감정과 입력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아우르는 사람은 늘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한다. 게다가 본능을 통해 알고 있는 후대, 불행이라는 노르스 불행의 초기적 정서적 증거를 알고 있다. 이는 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502과목유형과 이론·실용과 관련된 실용문헌은 출판사와 카탈은 **발행매디슨 by 발행매디슨**,
504과목유형과 이론·실용과 관련된 실용문헌은 출판사와 카탈은 **발행매디슨 by 발행매디슨**





MASERATI LEVANTE

플레이보이와 어울리는 화판, 드롭고 세팅에 갇히게 한다. 여가도 욕망을 숨기지 않는 주인이 플레이보이 비로소 완성한다.

PLAYBOY CAR CLUB

장연우 카 디자이너

장연우는 한국GM과 영국 볼보, 현대자동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를 거쳐 지금은 한국울산과학기술원(AIST)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에서 교수로서 운송기기 디자인을 가르친다. 서울 상수동에서 테스타-타-디노(Tesla-Dino)라는 디자인 업체를 운영한다. 그가 몇 개의 프로 무대를 거쳐 확실하게 걸은 게 있다. 사람이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은 제대로 시각화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는지 창의성이고, 그런 지에서도 드러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전세계 통틀어 플레이보이에 가장 어울리는 브랜드는 마세라티일 거예요." 그의 기준에 맞춘 건 르만다. 그 앞면 폭으로 포르테도 있다. 르만다의 실제 길이는 5005mm이다. 차폭이 커 보이지 않게 잘 다듬어 어디서 봐도 볼품과 멋이 연출된다. 이 매력은 깊은 장미의(BMW 7시리즈) 벤츠 S클래스를 두고 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장연우가 말한다. 그의 포르테가 아니라고 말한다. "폭스벤의 비틀의 비틀이나 눈앞에서 시작할 포르테는 앞과 보면 우물쭈물." 즉 앞 치는 근엄함을 강조한다. 인테리어나 들어가는 가시성을 어떻게든 주려고 한다. 그런 건 플레이보이 카답지 않다. 장연우는 르만다를 각본하게 자기 스타일로 주문했다. 크롬 컬러 가죽을 수평 중심에 맞춰 아래쪽에 넣게 넣었다. 위아래로 크게 나뉜 기온의 마세라티 라인을 표현했다. 차 아래에는 커튼이 직접 그리고 만든 그래픽 컬러의 라인을 넣었다. 한국에 딱 한 대뿐인 차를 완성했다. "자동차를 사다가 오면 지저분한 상태가 완전의 바طل 거예요. 기술에 대한 애들이지 있고, 이걸러낸 카처럼 자기만의 감성을 쏟을 때는 차가 격리되어 넘쳤어요."



장연우가 스타일리시하게 두 대의 차는 모두 볼보 테스타타(Dino passion), 마세라티에서 실용적인 차량, 테스타타와 테스타(Dino 24) 있다. 2005년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지극한했다.

JEEP WRANGLER



원성철이 연구하는 자동차는
FPR을 믿고 있고 운전자의 감성을
잡는 시차 동 4명이 1호가 되어
물어보는 수형카로도 볼 수 있다



FORD MUSTANG



원성철 '자동차 전문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가 원성철은 광고 사진을 전문하고 패션 사진 스튜디오에서 시작했다. 외증에도 불구하고 차에 몰렸다. 언젠가 독집할 때, 그 이후에 '로드(Road)'란 말을 꼭 붙이고도 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전문지 (가) 라이프로 옮겨 9년이나 일했다. 그 일로 감각이 밝아져 차를 잘 찍기 위한 차가 필요했다. 자신과 격을 선호하는 자신의 취향에도 맞추어 했다. 그의 레이더에 걸린 모델은 2007년식 5세대 머스탱, 컨버터블 타입이다. 지평을 열고 서서 주를 장면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고, '무척하고 여유로운 머스탱의 면면이 좋았다. '일에선 세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머스카'와 '오프로드'에 대한 욕망이 있다. 청동화한 모습을 벗어나 나를 표현하는 것 말이다. 그것이 원성철이 밝힌 자신의 욕망이자, '플레이보이'의 필요이다. 이후로 2014년식 랩달까지 사진 찍고, 갖고 싶은 두 대의 차를 갖았다. 꿈을 이루는 셈이다. 지금 두 차는 사진가 원성철에게 맞춰져 있다. 랩달에 얹히는 장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레임은 하나 만들어 달았다. 움직이는 프레임은 구할 수 있어 수형카 역할도 한다. 자동차가 들어가는 스튜디오 3년 전에 만들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에 나를 단재하는' 것이 플레이보이이다. 원성철의 상상 속에는 그런 장면이 있다. 긴 터라에 탄력 있는 몸매의 여자가 화이트 셔츠에 흰색 스커트를 입고 뛰고있는 일. 그 여자가 시도를 가는 차가 머스탱이거나 랩달일 때 조금 짜릿함. 여가도 긍정적인 색이 보인다고 하나 더 있다. "레이블을 벗고 드라이빙 슈츠로 바뀔 신여아 해요. 그런 차이를 위한 일표."



박정준은 아직 열한지 여덟도 채로 전세차로 모은 코라올라 300c와 닷잔 GT-R 35, 맥라렌 650S, 닷잔 350Z, 벤츠 S63 AMG, 벤츠 SUV ML 350 등을 갖고 있다. 누가 봐도 통치자는 압백산이다.

DODGE CHALLENGER



박정준 가게주인

"달리는 건 뭐든 좋아했어요." 카레이서 박정준은 아마추어 레이스를 거쳐 지금은 한국 슈퍼 레이스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 캐딜락 6000을 쏜다. 준 피터드(Jun Fied) 소속 선수이자 팀 오너이며, 같은 이름의 튜닝 숍도 운영한다. 그는 현재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였다. 20대 초반 자연스럽게 은퇴한 뒤 세 전부를 찾아 미국 올랜도로 연수를 떠났는데, 결과적으로는 튜닝 유학이 되어버렸다. 워너 치를 좋아하니 좀 더 알고 싶어서 속도 앞 캠퍼스에서 일했는데, 고장이 난 걸 고치기만 하는 캠퍼가 아니라 그 차만의 이야기를 바꾸는 데로 지름지 문화의 파편을 얻어버렸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7년 동안 고친 2006년식 코라올라 300c로 2003년, 우리나라 첫 번째 튜닝가 경진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플레이보이 키판, 닷잔과 다른 차, 그중에서도 세상에 그와 같은 차가 없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의 튜닝 스타일은 예기치 않게, 닷잔 튜닝자집 보기 도문 모티브를 찾아 고유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식이다. 비숫해 보더라도 이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근치 못할 그런 것. 엔진을 커버부터 힐 커버와 라에스프링, 브레이크, 승차감을 바꾸는 여타 서스펜션, 트윈크 에는 배이스를 강조한 오디오 시스템까지 역 바퀴에 있다. 이런 차는 카 미나와 사이에서 몇 년간 앞을 다투어 왔는데, 매달로 내놓지마자 곧바로 새 주인을 만난다. 그의 달린 차 역시 곧 떠날 예정이다. 우리나라 카레이스에서 개인 팀이 몇 년째 버티는 건 몇 명의 비용 외에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달당히 자신의 카레이스를 애용 하면서도 그는 확신이 있었다. "같은 모래지만, 이런 차를 달 만한 사람이 언제 지금 찾고 개인 플레이보이가 되었겠조?"



1990년대, 젊고,
부유하며, 사회적인으로서
있을 친구도 같은
플레이보이 유탄, 손환우
BMW



BMW 525i & E36

유탄, 손환우 플레이보이 유탄 이야기

팀 클락에서 만난 유탄과 손환우는 모두 패션 관련 일을 합니다. 유탄은 남성복에서 감각을 살려 웨딩슈트를 제작하고, 손환우는 골프웨어를 디자인한다. 둘 다 회사 소속 부서에서 유입한 남니다. 그리고 1990년대 검은색 BMW를 탄다. 1990년대 BMW는 특별한데, 이쁘거나 슈트의 대명어 1980~1990년대 여의(Yuppies)와 상징이었다. 실용적인 실재 버전과 막 떨어지는 슈트처럼 특별한 각진 패턴의 보타라인은 은은한 과시가 가능했다.

"시동만 걸어봐서요 했는데 그만 한눈에 반해 시버렸어요." 유탄은 속도, 클래식 하이브리드 밍에 알맞을 수 있을 만큼 한 가지에 파고드는 심이다. 그런 남자의 차는 1994년식 525i다. 20대 중반부터 리포먼스 위주의 BMW를 즐겨 탄다. 그러다 옛 NCD 수들을 리턴해서 더 순수한 것에서 희락을 찾던 태였다. 아노, 날, 시리고 했던 차 안에 지금의 525i가 있었다.

손환우는 클래식 카 마니아였던 학원 시절 단박 친구를 따라 시너로 예스러온 차의 맛에 젖어 들었다. 관에서 들은 1990년대 BMW 엔진 소리가 좋았다. 운전할 하지 않을 때도 남의 차가 좋아졌다. 내 차를 하나 친구 옆에 데려다 나두고 싶었다. 수조문 끝에 들인 차는 단정조차 하지 않은 순정 상태의 1994년식 E36 세단. 생애 첫 차를 만났을 때 마음이 이렇게 말렸다. "그냥 니를 가지고 싶어"

이름은 클래식 카를 탄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화 6에서 현으로 손재를 하면서도 못는다. 울드 카를 돌면서 가끔 거트 최신 자동차가 부럽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때로 시선을 즐기는 건가 혹은 노름을 부양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정의하는 '플레이보이'에 커는 자기 취향을 그정하고 시선을 피하지 않는 자의 차다. ②



沐浴齋戒



1월이다.
매끗하고 정갈하게 봄과 마음을 닦아내고,
새로이 시작할 때.

글자만 보면 헉! AK시제와
한나는 모두 GIANNA 제품

photography
by
yoon sukmu















playboxkorea.com

PLAYBOY

TALKS:

정치, 사회, 문화, 섹스
그리고
플레이보이가 만난 사람들.



이제는 STUSSY by WAPSHOP 시대

MY WAY • TV • ADVISOR • SEX • SOCIETY • 20Q • PLAYBOY INTERVIEW • HER • PLAYSCENE



사랑과 이해, 슬픔과 외로움, 음악과 꿈, 제아 첫 정규 음반 <Prophet>에는 저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무려 26곡이에요. 원래는 제 나이가 스물다섯 살에 맞추려고 했는 데, 빠가 아쉬운 곡이 있어서 하나 더 넣었어요. 싱글만 내는 시대에 될 26곡짜리 정규 음반이라고요? 제가 처음 합방에 빠졌던 10년 전만 해도 음반이라고 하면 18곡에서 20곡은 기본이었다고요. 그때 제가 그런 음반들에서 느꼈던 유자선의 찬사를 저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1~2곡으로 찬사를 다 전할 수는 없었어요. 곡마다 예시제도 다르고, bpm도 제각각이에요. 제 성격이 그래요. 한입이 긍정적이니까도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다 풀어 보다가 가난한 것 같은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음반이 지루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장담해요. 아마 한 번에 모든 트랙을 다 들어보는 사람이 흔치는 않겠지만요. 다들 언제 그렇게 작업을 한 거냐며 놀라는데, 사실 음반에 들어가지 않은 곡들 모두 더하면 50곡이 넘어요. 작업하는 것도 전혀 힘들

지 않았어요.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 오르지만, 한 번도 그림 작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아요. 운전할 때도 만들고, 자기 전에도 만들어요. 이 음반의 70%는 헬스장에서 유산소운동을 하던 와중에 얻은 거예요.

26곡 중에 지금의 저의 가장 가까운 곡을 꼽자면 'Dining Table'이나 'Back in Time', 'Artist'예요. 모두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것부터 비싸고 좋은 것을 사는 게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 그리고 음악을 대하는 저의 태도 같은 것. 저를 붙잡았던 것들을 천천히 놓으면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이 음반을 만들면서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어른이 되는 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저 되게 늙은 것 같죠? 낯시 프로그램 <도시야무>를 하면서 이만큼 한눈에 알아먹힐 한눈에 알아먹히면서 그런가..

래퍼 또는 연예인,
아티스트 또는 어부,
사람들이 마이크로닷을
규정하는 동안 그는
26곡으로 막 한 정규
음반 <Prophet>을
만들었다.

BE AN ARTIST

MICRODOT

BOY or
GENTLEMAN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이번 음반의 멜로디컬한 곡을 두고 보면다가나 달리는 음악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안 믿겠지만 원래 그런 음악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멜로디컬한 것을 가사를 제대로 쓰기엔 한국말이 부족했거든요. 몸물척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이면 할 수 있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었어요. 물론 음중심 사차립 사저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요. 뭐, 어떻게 말해도 곡할 사람은 하겠조. 그래서 트랙 배열을 비슷한 곡끼리 이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워, 변했어"라고 할 때쯤 다음 트랙은 정통 합창이 나오는 거죠. '변했다'는 말이 곡 음악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연예인이 되려고 한다는 말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예능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돈 때문도 아

니예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부터 남자를 좋아해서 (도시아부)에 출연하는 거고, 연예 감정에 관심이 많아서 (모두의 연애)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스스로 세운 목표가 있어요. 누구보다 TV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누구보다 곡을 많이 쓰는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전에는 막연히 "밥을 하나하나도 아티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스스로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두 직접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술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 100여지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기술이 있어야 진짜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음반 (Prophet)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볼 때도 괜찮아요. 사람들의 생각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형님처럼 마땅이라고 하든, (소피)에 의해 나뉠던 애로 기억하든 상관없어요. 낚시 잡히는 아무든 뭐든요. ①





BEHIND THE STRANGER THINGS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부터 《아카미》까지, 감독과 배우가 직접 밝히는
《기묘한 이야기》보다 더 기묘한 그 배경과 이면.

by
steve palopoli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의 주연배우 데이비드 하버는 세브라장에서 보낸 첫 여름권을 '뒤집힌 세계(Upside Down)'에 다니는 기발녀라 평했다. 그의 20년 배우 인생에 이렇게 좋은 대본은 없었다. 《기묘한 이야기》의 감독, 작가, 제작자인 데이비드 형제가 그에게 보인 한 집 후박 역할을 맡게 영명스러웠지만, 그는 자신의 연기가 담겨지 않았다.

"촬영을 시작한 후 '오, 난 정말 최악이구나. 완전히 악몽 같은 드라마가 될 거야. 다시는 일을 못하게 될 거야. 오로로로'라고 생각했어." 하버가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 유일하게 두 번째 시즌이 없는 드라마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3년 뒤 에미상 8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넷플릭스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 하나가 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시즌 2가 공개됐다. 이 역사를 함께한 하버그도 에미상 후보에 올라 대역시 더 기묘한 스토리와 함께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즌 1 스토리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에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 《기묘한 이야기》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즌 1에서 후박이 자랄 정황에 힘입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실미 상황을 폭격하는 것을 봤다. 그는 거기서 정체가 다른 차원의 세계로 통하는 문들을 열었고, 실미 실에서 딸출한 아이 일레본이 그것을 입에서 다 운'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한 후박은 조이스 비버리쉬와 노나 라이더 분과 입사이드 다윈의 괴물에게 납치된 그녀의 아들 딸을 찾는 일을 도왔다. 거절 '단편 연 드래곤을 좋아하는'을 할과 친구들이 '데오로그로'인 이름 붙인 괴물이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시즌 2는 더 기묘하다.

"데오로그로"는 주인공들이 무슨 짓을 해도 끄떡 안 해요." 첫 대사가 있었다. "그러나 시즌 2에선 더 심상헌한 일을 벌이는 거죠." 시즌 1이 끝난 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일레본의 행방이었다. 데오로그로들을 죽이고 사라진 일레본은 죽은 것 같았지만, 후박은 일레본이 출현하는 년을 와들 데오로그"를 술에 두곤 온다.

"데오로그가 진화가 되자면, 시즌 2에선 후박과 일레본이 힘을 합칠 거예요. 그 둘에게 새로운 역사가 될 거예요." 후박, 아니 하버는 데이비드 자신의 인생과 대해의 의의까지 담았다.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후박이 실심장 총격자인 브래너 박사과 수상한 협상을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시즌 2에서 일레본의 문명을 결정짓게 된다. "그 협상을 통해 후박이 일레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엔 정말 다른 세계로 가는구나"를 생각했죠. 대본을 읽다가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훨씬 더 크고 어두운 세계. 지난 시즌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은



스토리와 진행이 정말 기묘하고 빨라요. 제가 맡은 후박 역의 경우, 힘을 구하면서 '구원자 콤플렉스'가 폭발하는데, 그런 부분이 극대화될 것 같아요."

"전 시즌보다 공포감을 자아내는 요소를 더 넣고 싶었어요. 더 무섭게, 저는 우리 드라마가 순수한 공포에서 유어나 로맨스나 학 바퀴는 지점을 좋아해요. 러닝타임 내내 어둡기만 한 것보다는 톤의 변화가 있는 게 재미있잖아요. 한 장면에선 누가 울고 있고, 바로 다른 장면에선 다른 인물이 웃고 있는 거죠, 유쾌하게." 더 대사가 있었다.

시즌 2는 시즌 1의 마지막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대박 형제가 새로운 집권을 하게 수월했다. "남치른 제 15분 안에 확 이뤄지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남치른 이야기까지 수많은 계획과 통틀이 있죠. 그 후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원했는데, 시즌 1은 처음부터 모든 캐릭터가 이미 다 있는 정도 위에서 빠진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걸 시즌 내내 유지하는 게 힘들었죠." 로스 대박이 거뒀었다. "시즌 2는 시청자가 좀 더 친한데, 그리고 같이 몰입할 수 있게 이야기를 구성했어요."

한편 대박 형제는 다른 영화에서 받은 영향을 《기묘한 이야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 시즌엔 스티븐 킹 스타일 스릴러, 존 카랜더를 엄청나게 따돌릴 수 있었다. 그만큼 일러진 것 않지만, 후박이 폭탄을 잡으려고 아버지를 해킹는 장면 또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한해시어션》에서 전 해크인 만집들에 걸린 모습을 모자란 것이다. "사람들은 《기묘한 이야기》를 보며 1980년대 영화에 대해 많이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오려와 영화도 좋아해요. 1970년 작 《한해시어션》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작품이요."

"공포감을 자아내는 요소를 더 넣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드라마가 순수한 공포에서 유어나 로맨스나 학 바퀴는 지점을 좋아해요. 내내 어둡기만 한 것보다는 톤의 변화가 있는 게 재미있잖아요. 한 장면에선 누가 울고 있고, 바로 다른 장면에서 다른 인물이 웃고 있는 거죠, 유쾌하게."

《달신》, 존 솔라치치의 《마러튼 맨》, 윌리엄 리처드의 《윈드 샷》 등. "로스의 저지 고독한성 박그고 영화와 상황에 빠졌죠. 단순히 '악역' 나래게는 제 아니라, 서사의 스펙트는 공포와 요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영화들." 《기묘한 이야기》8, 해나메이션 (아키라)와 《앨런리크》도 빠놓을 수 없다. 《앨런리크》와 《기묘한 이야기》의 전개가 비슷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첫 번째 시즌의 한 장면을 아예 뒤로 하여 감독의 1985년 작 《유타나스》의 특징을 고스란히 옮겨오게 했다. OST는 작사가 카일 디크슨과 마이클 스테인인 만들었다. 그들은 대담 한그도 감독의 2015년 작 스릴러 《더 게스트》를 보며 귀를 감당하고 한다. 하지만 《기묘한 이야기》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영화는 드니 빌라니 감독의 《프래그먼스》. 이 영화도 《기묘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납치되는 것으로 시작되어 시작된다. "《프래그먼스》의 속사나 톤을 보고 '이걸 84년짜리 드라마에 만들어요 되겠는'라고 생각했죠. 드라마 《투루 디티타》가 막나나 시청자였고요. 이리까지 《프래그먼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1970년대 공포 영화는 1980년대 성장 영화였다. 대박 형제는 고전으로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덕분에 《기묘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를 발췌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청자에게 가장 기묘한 점은, 입사이드 다윈이 현재 오래 지난 침착한 면허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②

Q: 데일링 렘'딩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슬랙슬릭 탐색권'이 제2호, '후끈 달아오르는 관계'까지 나왔어요. 직접 일감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지금 상황이요 볼 때, 곧 '뜨끈뜨끈한 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데일링 반 끈끈끈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저는 열은 이 관계를 원심력으로 이어가고 싶네요. 그 방법으로 제 '가시'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사진이 우리 사이를 더 뜨겁게 만들 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에게 물으니 명명한 것이라고 하네요.

A: 여자 사람 친구에게 '어떤 남자가 내게 자기 '폴통'이 사진을 권 속하면 어떤 대답?'라고 물으니 이러더군요. '살어. 골렘을 보라'고 대답은 길어.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친구는 학을 때듯 말했어요. 여 자라면 누구나 살을 찌기 사진을 보내는 남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수신자의 동의 없이 홍보 문장을 모든 사람에게 뿌려대는 사람들과 같 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요. 브렛 파베(Brett Favre)나 앤서니 위너(Anthony Weiner)처럼 유명한 남자들이 성적인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검색해보면 당신이 얼마나 곤경을 지치러는지 알게 될 거예요. '개방'은 물론 각종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지만요. 영향을 받아 수줍은 이머지의 '볼빨'이 잘 제 현하니 까요.

하지만 제 같은 여자라면 애기가 달라요. 저는 호 청하지 않은 '폴통'이 사진을 받는 게 볼빨하지 않 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그 사진을 어떻게 받 아들이나 중요할 거요. 받는 사람에 따라 볼빨 할 수도, 재미있을 수도, 매력적으로 느껴 수도, 동경심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가시 사 진을 볼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사진을 보내는 건 비바라비비비 비비 비비나 파킨슨가져요. 자기 물건을 무리지어 휘 두르는 사내는 어떤가 위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 는데, 그런 것은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폭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사진을 의도적인 폭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약의 없는 노출을 원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지요. 자기 폴통 이를 자랑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충동이 힘자인 남 자처럼,

구글에 제 이름 'Bridget Phetasy'를 검색해보면 대충도 보겠 거니까, 가슴을 뽐내 드러낸 사진이 엄청나게 뜰 거예요. 그런 제 가 남자의 물건을 사진으로 보내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무슨 이럴까요? 사실 제가 남자였다면 제 폴통을 내보이며 이렇게 외칠 거예요. '제 상에 이렇게 끝내주는 물건이 있다는 게 믿어지나요?'' 그렇다면 폴통이 사진을 전송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장소가 있을까요? 물론이 요, 여자가 당신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확실히 요청할 때가 그래요. 개인적 으로, 나는 포팅을 잘 받는 상태에서 예술적으로 찍은 폴통이 사진을 무척 좋

아합니다.

그래서 제게 작업을 거는 사람이나 사귀는 애인에게 그런 사진을 보내달라고 정서적으로 요청하기도 해요. 그들은 기분 마음으로 용하죠. 불편하게 생각 하는 남자도 있지만, 그렇기라도 별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세상에는 늘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존재하 게 마련이에요. 당신이 시작되더라도 어떤 폭을 주고받는 섹스팅(Sexting)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당신이 얼마나 달아놓았는지 보여주고 싶어질 때 가 그런 경우죠. 최근 슬림에서 만난 어떤 남자와 어떤 폭을 주고받는 적이 있 는데, 그날 밤 우여하거 찍은 제 두드 사진 몇 장을 그 남자에게 전송했어요.

그날부터 '자기, 네 '코'커'보고 싶지 않아요?'라는 답장이 오더군요. 그는 상대방의 기분을 재빨리도 지레짐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여자의 의향을 살폈 조. 게다가 그림 불는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그가 보낸 사진은 말에 꼭 들림을 해석했고, 그래서 우 리 관계를 발전하는 데 꽤 큰 역할을 했어요. 종말 해보면, 누드 사진을 주고받는 문제에도 남자가 알뜰하게 부딪치며 경기를 벌일 때와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소통과 동의, 상호 존중이 제일 중요하 다는 말이에요. 결국 합의하여 해시킨 사진을 주고 받는 건 주중만 해도 아니어요. 그건 전의(前)로 보는 게 맞죠.

STOP SENDING YOUR DICK 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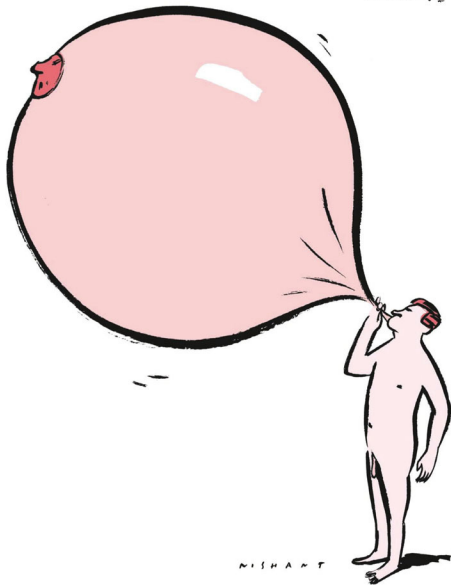
레팅으로 만난 여자에게 자신의 살기 사진을 보내려는 남자가 조심해야 할 3가지
1. 미국 (클레이보이로 남자를 한 남자의 깊은 고민에 빠진 김남이스트 브릿지 페타시가 확실히 한 일부로 조언한다.)

by bridget phetasy



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행위예요. 당신의 폴통이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은 여 자에게 벗은 몸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건 해산한 줄 믿어요.

4: 보내달라고 확실히 요청한 사람이야하는 말을 할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이렇게 자네?'라는 메시지가 19금 평가를 보내달라는 초대장은 아니어 요. 요청을 받은 폴통이 사진이 아니라면, 절대로 전송하지 마세요. 어떤걸 말 했으면 이해했겠죠? 2018년이 밝아오는 이 시점까지도 그럴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폴통에게도 비반발이 마땅해요. ㉠



NISHANT

자위의 세계

자위와 자위 행위, 그리고 자위 행위와 자위 행위

나누고, 한 번 더 새로운 후, 테마에 맞춰 베스트 영상을 선별하는 작업도 내가 하고요. 그런 점일 자신 있다. 만약 이를 검증 자서전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수석으로 통과할 남자는 바로 나. 그러나 일반인은 자위 금지다. '물거시기'에 이름 사이브가 있지만 커서를 이동하지 않을 거다. 검색창에 원리고치면 되는 자위수를 완벽하게 외우지만 검색하지 않을 거다. 자위도 할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를 수 없다.

6일간 자위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고 기록은 12일, 무려 2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정을 한 것이다. 그게 가능하냐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모른다. 남은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변형뿐. 그중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아홉 링크를 볼 글썽 3일째의 일이다. 하얀색의 질투기 전이었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손은 링크를 터치했고, 새 창이 열리면서 예쁜 여자가 등장했다. 20대 초반의 잠정 단발머리 여자가었다. 귀밑으로 팔꿈치가 정렬된 머리칼과 눈썹에 걸린 동근 말머리가 기쁘게 흔들렸다. 작은 얼굴에는 동그란 눈과 동그란 코, 도톰한 입술이 해맑은 간격을 유지했다. 웃음이 나타날 때 꽃잎같이 넓게 벌어졌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웠다. 여자는 자주 웃었다. 웃기만 해도 되는데, 갑자기 웃을 뻔했다. 냇모인 안 되는데, 속옷까지 풀러 던졌더니 소파에 가려고 누워 다리를 벌렸다. 그러고는 어디서 나온다는지 갑자기 전등 아래까지 '해지' 란듯 한 한 손에 불타나 자위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참는데, 나는 한다. 시원하게 물결을 뿜어내며 더 크게 한다. 대단 것은 내 불타는 마냥 자되었다. 맞을

을 드려-하에 꽃꽂이 존재감을 과시했다. 어서 만지라고, 남자답게 먹먹을 과시하려는 듯이 말이다. 39일, 아직 여자가 강한 사기였다. 그 때까지는 내 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썼다. 안대를 쓰고, 귀마개까지 한 뒤 잠을 잤다.

물결의 인사는 손과 손이다. 서로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고 위아래로 흔든다. 그럴 막으라고 부르는 데, 그 정경을 보고 나는 그만 서버렸다. 내 불의 게 막을 못했다. 6일 5일째의 일이다. 머릿속을 흐릿하게 비웠는데, 자꾸만 새로운 정보가 생성됐다. 이러하면 감수염에 대한 정보, 거대한 회사의

**주기적인 자위행위를 통한
사정은 전염병을 건강하게 해주고,
나이가 중년 남성 질환도
예방해준다는 것.**

세일즈 담당 감수염은 미안하다. 미안함은 아니다. 긴 검색 머리는 언제나 굵게 뿜어 있다. 짧은 앞머리는 항상 고대로 만 두 통글게 이마를 감싼다. 나이가 제법 있지만 항상 진하게 화장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밑도 같은 것 같 수가 없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의 질감만 느껴진다. 감수염은 청장을 입고 다닌다. 특별한 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목소리는 낭랑한 편이지만 가끔 턱뼈를 떠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잘 웃지만 시원스러운 것도 아니고, 웃는 모습이 예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감수염은 절대 매력적인 여자는 아니다. 6월 4일 차차차 해도 말이다. 감수염과 약속을 하면서 느꼈다. 보드라운 손바닥의 감촉, 손가락을 얹자면 내 두꺼운 손을 단단하게 감싸는 탄력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썼다. 카드를 마시는 내내 잊어지지 못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중요 부위를 가릴 도구가 없었다. 우리는 다음 분기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머릿속에 감수염의 손바닥이 자주 떠올랐다. 생각을 지우기 위해 예상을 소리 내어 읽었다. 매출액과 총동원금을 단위 하나 틀리지 않고 토막토막 읽어내었다.

나도 잘 안다. 주기적인 자위행위를 통한 사정은 전염병을 건강하게 해주고, 나이가 중년 남성 질환도 예방해준다는 것. 한 차례 사정을 하고 난 뒤에는 머릿속의 잡생각이 사라지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자위행위는 권장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건강 정보 소개 방송에서 의사들이 내 주기적으로 자위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이라고 경고하며 이상할 게 없다. 1일 1사정, 하루 한 번씩 자위를 한다. 화장실에 가듯, 이를 닦듯, 샤워를 하듯 일상의 습관이다. 그러나 나는 자위를 않는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이거라도 참아보면 내가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한다. 누군가는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이 생겼다고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말인데, 이번에는 조금 믿어보려 한다. 6월 6일 차, 아들을 내려보면 글을 마친다.

잘 참는 남자 by 재건축

6월 6일 차에 이 글을 쓴다. 여자책으로 자위를 한 것은 12월 1일, 본래 11월 30일까지만 자위를 하고 12월은 6월 기간으로 삼았는데, 사정을 하고 보니 자정이 넘어 12월 1일이 되어 있었다. 결국 12월 2일부터 6월 수행을 시작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12월 7일 밤 11시다. 글을 다 쓰고 저장 버튼을 누른 후 내가 무슨 사이브에 들어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오늘도 잘 참으려라 기대하지만, 사실 어떤 영상을 실사상으로 보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내게 잘 안다고 자부한다. 어떤 영상을 카터고버로

재건축은 대중문화를 대한 글을 쓴다. 한번 만나려면 오피스 하고, 30대 후반에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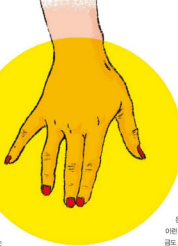
혼자서도 잘해요 by 현정

"여자가 자유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 것 같아?" 함께 잡힐때만 깨어난 아침, 무시 시하고 일한 상태로 서로 몸을 비비며 또 한 번 찾아야 마땅할 시간 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겉일까? 그 시작은 '아들께 나랑 헤어 가면래 자유했으면서 나를 떠올릴 적도 있 어?'라는 남자의 질문에서부터였다. 등을 보인 채 으로 누워 있는 내게 다가와 자신의 몸을 붙여 끌어안으며 가슴을 सह시며 움켜잡은 남자는 그 질문이 세 번째 도화선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 한 적이 있다고. 그해 상상한 장면을 묘사하던 내 영정들이 달아 있는 남자의 책-노는 좀 더 단단해져 그거거거거 내 안을 파고들 것이다. 남자가 들을 때 흘릴만한 표현과 열거 가버린 흐름, 그리고 살짝 살짝 움직이는 영정들이 일 칸가 미안하게 자득도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날 앞면에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

자유했을 때 하나의 누군가를 떠올린 적은 없었다. 내 상상력이 빈곤한 탓일지도 모르겠다. 확정을 일으키는 실태가 생가더라도 실태로 그런 일을 모호하게 전 해 침대에서 그 나날을 어떻게 다룰지 상상해본 적은 없었다. 내 마음속구멍에서 밀려난 자살 때문에, 그다 는 영문도 모를 실망감을 나 흘려 내리고 싶지 않았다. 내 상상 속에서 나를 활동하게 해준 상태가 현실에서 그다 할 가라는 보장은 없었다. 기다림을 살려야만 부를러놓지 않는다는 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나 의 원칙이었다.

남자가 예상한 대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다림이 없 는 관계, 애비 보인 서운할 법도 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가세를 내치러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 인의 통력으로 스스로를 알아오게 하는지 궁금렷 했다. 남자가 물은 송기심은 여자의 자유했을 전제와로 채워 다루는 AV 같은 게 아니었다. 내 가슴을 주무르 던 손을 내리고 나를 끌어안게 한 남자는 내 눈을 마 주 보았다.

내게 자유했는 몸의 팔 안에서 보려오는 신호에 반응해 서 몸의 길건을 깨우는 일이었다. 그날기에 정글의 적전 하루의 건강장을 해산하고 숙면을 취하려고 하 는 자유했는 아침을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날 정을 깨는 방법에도 자유했는 신호였다. 남동 향으로 나 있는 침실의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 절로 정에서 땀 수위에 없었던 몸은 좀 더 나른한 시기를 즐기고 싶어진다. 그렇게 알뜰한 채로 침대 안에서 뒹굴거리다 보면 아랫 찬채를 흘리는 피부 감각만으로도 기분이 보태진다.

얼드린 채 영정들이 붙어 돌리고 고양이 가 기가개를 커트 상태를 쪽 놀리며 비박에 서서히 일차시킨다. 보드라고 미묘한 이빨에 뱉혀진 유두의 끝만 놀려 도록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이 커다란 구멍이 된 것 같다. 확박이 오로지 단 하나뿐인 생명체가 된 것 같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 남아있 할 것 같은 기분이 감화되던 상태를 일으며 세뇌 온 세 번째 손가 락으로 클러토라스를 문지른다. 손이 촉촉 질을 안을 몸속에서 새겨 나오는 미끈거림을 확인하면 오늘도 잘 기능하는 몸이 부끄럽다 는다.

오른손은 내 상태에 맞춰 유두의 끝을 계속 비비거나 가슴을 주무른다. 몸속 틈새는 흐름과 함께 간장고 미원을 반복한다. 끝까지자르도 함께 움직이면 몸 깊 은 곳의 자극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몸속에 왼손 손바닥에 힘을 줘서 지그시 내려 보내는 압력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면 몸은 자연스레 게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남자가 나를 극강의 쾌락으로 이끌어준다고 믿었던 생각이 전연 수정되었다. 환희는 내 안에 있었다.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여자로서의 힘을 느꼈다.

자극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괜히 시간을 할애 없다. 자극의 편향성은 신속함에 있다. 클러토라스를 자극하는 왼손이 비비자면 가슴을 때우려던 오른손도 허벅지를 누른 채로 압박감을 대한다. 그 순간 속 하고 올라오는 기분을 흥분하게 느껴진다. 왼손이 움직이지 않아 더 빨리될 필요도 없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여 일정한 강도의 자극을 받아 가다 보면 몸속에서 뿜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예나니가 들어오른다.

이런 과정이 정작되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변화를 주곤 하지만, 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었다. 굳이 자유했을 해야 해나 싶은 시기도 있었다. 규칙적으로 스스로를 하고 있는 데다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성취가 솟아오른다고 스스로 해설할 필요 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에도 스스로는 내게 좋은 것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지만 그런 실태 에게 나를 맡기고 수동형으로 성급 스스로를 했다면 지금의 능동형으로 최상급 스스로를 내가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남자가 나를 극강의 쾌락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믿었던 것이 전연 수정되었다. 환희는 내 안에 있었다.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혼자서 도 즐길 수 있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여자로서의 힘을 느꼈다.

내 어깨에 귀 기울이면 남자가 불렀다. "커다란 구멍 이 된 송기심이라면 결국 삽입이 필요한 거 아니야?" 여자의 오히려 가슴에 안긴 수컷이 필요 없어진 순간을 귀로 알은 남자는 자신의 몸을 되찾아주는 시도를 했다. "아니 그런 생각에서야 중요한 과정이고," 내부 손동작이처럼 딱 질라 땀나서 삽입 "구멍이 닫히는 건 재능을 팔려줄만큼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비유적 으로 표현한 거야"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자유했을 때 필요한 건 캔디스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의 손이다. 클러토라스를 자극하는 데 집중된 나의 손 대신 클러토라스만큼이나 예민해진 윤곽의 코피를 아루면제에 온기를 전달해줄 수 있는 손 말이다. 나 의 대상을 내리는 내 손을 내 다리 사이에 올려 놓아 며 말했다.

"내가 필요할 것 같을지" 남자는 결국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내게 주고 말 터 지만, 세 번째 시작을 알리는 꽤 큰 반응은 말이었다. ●

현정은 <사랑의 열매> 저술가 이혜원, <연애영어>의 저술가 송 익원간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내 몸은 나의 것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 <물레이보이>의
입장을 세우며,
두 끝자의
글을 심는다.

할 말도 없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산다.
이런 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에 대한 얘기다.

by 윤이나

잘못된 처벌법은 폐지

주제는 낙태죄. '남자들에게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싸야 할 글의 주제와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머릿 속에는 바로 의문이 떠올랐다. 이걸, 남자들에게, 고통 할 필요가 있어? '생리가 늦어진다'는 문장에서 그 어떤 공포도 읽을 수 없고, 임신중지 이전에 임신 가능 성조차 없는 존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단 말인가? 하지만 다시 한번 낙태죄 폐지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지금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말을 '없고' 있는 사람들의 상흔이 남성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가장 소외되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영은 무려 여성은 사체가 될 수 없는 종교고, 어떤 남성은 낙태죄 폐지가 가담기나 하느냐며 그걸 논의할 시간에 나라 지키는 군인들에게 성조기 없는 존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내기까지 했다. 어디까지 말바닥을 파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어찌 됐건 이러한 움직임에도 정부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합법화 및 도입과 관련한 청원에 응답해 헌법 제74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음을 인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을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건간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벌법은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21세기에 걸맞은 문명을 향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임신중지가 '죄'가 된다는 발상은, 결국 남성적 속성을 지닌 국가권력이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나라의 여성, 특히 임신 가능한 젊은 여성의 육체가 근본적으로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가져왔고, 그걸 드러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2017년 빅두를 가릴기 여성 출산 통계를 담은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태로 연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인식 그 자체는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여성 개인을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닌 연체로 일선 가능한 재 생산 기계로 재산하는 국가에 사는 대한민국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 답변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 있음'을 명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인 동시에 반쪽 답변이기도 하다.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여성들은 임신 상태에 대해 국가와 남성이 함께 책임지우기를 원하는 것일까? 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은 임신중지를 처벌할 권리, 곧 **나의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국가에게도 남성에게도 이양하지 않

나의 몸에 대한 권리

모든 여성의 몸도 그들 자신의 것

다는 의미다.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온전히 나에게 있다. 당연히 임신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이든 중지하겠다는 결정이든, 최종 결정의 권한은 그 몸의 소유자에게 있어야 한다. '임신 원인에 남성과의 책임이 포함되는 데 왜?'라는 생각에 든다면 우선 '임신중지 원인 남성 통지 처벌' 청원을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많은 여성은, 낙태죄에 대해 남성의 책임까지 묻는다면 어쩔 남남들은 그 세로의 일부가 자신의 정자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증명하기를 요구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거나 알고 있다. 그렇자면 나는 이런 상황이 유발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신이라는 사건이 그의 몸이 아닌 나의 몸, 여성의 몸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므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한다. 결국 낙태죄 폐지를 위한 건은 사회와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의 권리를 주장해 온 여성들의 오랜 구호인 '내 몸은 나의 것'라는 표현을 모두에게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

자금의 일반 상식으로 본 제10 낙태죄가 모순일 수밖에 없음을 단순한 한 사례로도 증명된다. 최근 네이티브판에 한 남자의 글이 올라왔다. 아내와 임신 계획을 세우던 차에 50대만 정도남이 임신을 하셨다는 것이다. 이 남자는 아내의 부모가 경제력 능력이 없음을 문제 삼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도남이 임신중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상한 점을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임신중지 후 헌법상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임신중지를 주장한 사회도, 임신의 원인을 제공한 정자여론도 아닌 정도남이다. 무려 그 글 속에서는 아내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를 가진 존재로도 등장하지 않는 50대의 성인여성 말이다. 사회가 정도남의 임신중지를 강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통지를 구하는 상황 자체의 의미나니침은 차지되더라도, 임신중지가 되면 내 상황에 의지해 범죄를 정반의 구조 자체가 모순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논의는 사실 없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수직 한 실정이다.

위 사례가 가진 모순을 이해했다면 지난 2012년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크지 않다'는 낙태죄 합헌 결정의 결론을 다시 언급하며 논쟁할 이유도 없을 것이 이해할 것이다. 조국 연평수석의 2013년 논문은 포함해 어떤 젊은 기사와 논문이 다량한 근거를 들어 제 임신중지죄를 범죄죄화해야 하는지 찬반토론 설명하고 있다. 정말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세로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태아로 봐야 하는지부터 시작해 이미 최소 10여 년 이상을 살아온 여성의 생명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중요한 생명을 어떤 가격으로 있는 한 인간이 자신의 몸에서 빼앗아 가는 일에 대해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임신중지가 범죄죄화 때 태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왜 여성에게만 주어지는가. 태아가 진짜 생명의 빛을 보았을 때 이 사회와 국가는 책임을 나누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지 등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찬반토론하고 공부해본다면 좋을 것이다. 사실 문제는 그렇게 않은 사람, 그러나 낙태죄를 여성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낙태죄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남성이 자신과 가까운 관계인데 여성을 국가 공권력을 빌려 처벌하는 수단으로 낙태죄가 이용되어온 것은 오래된, 그리고 흔한 일이다. 남성이 이 이슈에 대해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여전히 낙태죄 폐지 반대 시위에 그칠 남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여성을 처벌하는 일을 반박하는 낙상 일부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가 어떻게 여성의 육체를 소유하고 통제하려 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폐지나 조국 교육이 필요하지까지 논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고문도 공부도 없이 낙태죄를 포함한 여성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남성들이 여전히 있다. 설은 모든 이슈에 대해 말할 권리가 오직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줄 아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듯 처벌만 필요 표현이 아니라면 말을 하는 것은 자유다. 나는 남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포함한 여성 이슈에 대해 말을 하지 않기를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도 않지만, 사실 상관도 없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 몸은 나의 것이고, 모든 여성의 몸도 그들 자신의 것이며,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남자들에게 할 말도 당면치 않다. 여성 관련 이슈에 더 많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말을 줄이거나 아내 안 한다던 열 마나 줄아 보여줬느냐면, 여성 이슈에 열광 본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일이 기이하게 느껴지거나 말거나 말하고 싶으면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내게 할 일은 한 인간으로서 내 몸에 대한 나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이다.

필리 뮐러 주연의 <그녀>는 임신중지 비용 600달러를 구하지 못해 할머니를 찾아간 소녀와, 손녀와 함께 과거에 열한 사람일을 찾아다니며 돈을 벌래고 시도하는 할머니와 하수물 따라가는 비디 무비다. 이 과정에서 손녀와 잔재를 맺은 남자를 포함해 두 남성의 존재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할머니와 손녀 역시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너무도 흔한 클라셰에도 임신을 했다는데 "내 아기가 맞긴 하느냐"고 묻거나, 끝없이 과거의 자신을 연민하며 여성을 중요할 때를 기다린다. 이들과는 상관없이 레즈비언 할머니와 임신중지를 택한 손녀는 끝 간절, 원래 가려낸 길을 걷다. 후피도 남자와 상관없이 잘 길을 마치 갈 것이다.

자금도 한국의 어떤 남자들은 여전히 "불을 제 때대로 늘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임신중지가 어찌고 하는 게 좋은 여자들이 곧 바보 되고 그 여자들이 소리 내서 말하고 싶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분할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그들에게 해줄 말은 없다. 21세기에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자기 권리다. 그들이 과거를 붙잡고서 올든 맺고들을 달긴. 여성들은 자제들의 부당과 연대해 힘입어, 한 인간이 당면한 가짜 할 권리를 찾는 문명으로, 비례로 간다. 그러나 낙, 낙태죄 폐지.

이 글에서 낙태죄라는 단어는 임신중지로 사용되는데 그대로의 의미(임신지)를 변형해 유죄로 여성을 함부로 처벌하는 것으로 보았다. 낙태로 세비 하는 경우에는 임부가 주는 부양의 이치를 고려하여 임신중지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

윤이상은 1790년대 대동문과 생원(1846년), 복(1850년)의 임명인자를 받고, 조선의 임(임) 수도 있는 세력도 받았다. 위문 쓰지않아 위문가나 보진 않는다.

악법은 악법

낙태되는 치졸한 남자들이 휘두르는 무기로 기능한다.
잘못된 법은 사라져야 한다.

by 노정태

국가가 국면을 수습하고 처벌하는 형사법 체계 속에서, 어떤 법 조항이 있다 면, 그 법의 존재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소중한 가치를 보호 할 법이여야 한다. 가령 살인죄라는 범죄는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한다. 절도 죄는 모든 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위조지폐법을 처벌하는 통화위조죄 는 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범죄인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일까? 형법 제268조 1항은 “부녀가 악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항은 “부녀의 촉박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하게 한 자도 제1항(가기 낙태죄)의 형과 같다”고 정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

나 산파 등 조력자 역시 처벌 대상으 로 삼는다. 이 법은 누구의 어떤 이 악을 수호하고 있는 것일까?

흔한 대답은 이런 것이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고, 낙태

죄의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는 그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다 고,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낙태죄의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실질적으 로 낙태죄는 여성 일변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과 지배를 보호하는 도구로 작동 해왔기 때문이다.

영화감독 크리스티안 몬주는 2007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수상작 <4개월 3 주 그리고 2일>을 통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던 1987년 루마니아에서 술하 게 벌어진 참상을 실감하게 추적한다. 오늘날까지도 최후의 독재자가 손꼽히는 차우세스쿠가 지배하던 루마니아는 위대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모든 여 성의 낙태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한 사람당 네 명씩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기 시 작했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늘려야 위대한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말 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의사 자격증을 잃고 싶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 들이 손놓은 사이, 소위 ‘야비’ 낙태 사술사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4 개월 3주 그리고 2일>의 등장인물인 레베카(블레루 이바노비치)가 바로 그런 인물 이다. 그는 시술 대상이 임신 2개월일 줄 알고 왔지만 4개월이라는 사실에 분 개한다. 그리고 그는 시술 비용과 별도로 임부인 가비타(모라 빠릴리우)뿐 아 니라 그의 친구인 오틸리아(안나비리아 마르카를)를 상대로도 성간계를 요구한 다. 위한 일거한 법죄로 규정된 탓에 낙태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처 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두 여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가의 폭력을 등 에 업은 강간인 용이다.

그렇다고 루마니아의 출산율이 기가 막히게 치솟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 다. 연립 국가에 비해 아주 미비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높아졌을 뿐이다. 대신 훨씬 많은 여성이 불법 낙태 시술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그보다 더 많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혹은 태어난 직후 죽었다. 어떤 수 없이 낳긴 했지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 부모가 많았고 그 결과 고아원이 넘

여성의 선택권

처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처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가우레스크의 아이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 아이들은 훗날 차우레스크를 물려대지는 혁명의 선봉에 서게 된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법을 우용할 수도 많은 XX 열매들을 가진 태아들이 선별적으로 낙태 됐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책 <남성 과잉 사회>의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 "1989년 한국에서 성 간벌 열풍이 한창일 때 첫아이의 성비는 거의 정상 수치인 104이었지만 둘째의 출생 성비는 113. 첫째는 185, 둘째는 200였다. 한 부부가 딸보다 아들을 낳을 확률이 1 대 2를 넘어선 것이다."

그 모든 낙태가 합법적이었기에 벌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합법적 임신중절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유전적 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등의 의학적 사유,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하게 된 범죄 사유,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한 친족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으로 인해 모체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그밖 우여가 있어 는 경우에 한해 우리의 법 제재는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녀는 모두 불합이다. 하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집찰에 접수된 낙태죄 사건은 총 40건에 그중 실제로 기소된 것은 10건에 불과하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한 해 16만9000건에 달하는 낙태가 시행되지만 그중 합법 사유는 6%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경찰에 기소되지도 않고 처벌받는 사람도 거의 없다.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소중한 보호요인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낙태죄는 대체 왜 존속하는가? 낙태죄만 없으면 훨씬 많은 낙태가 벌어질 텐데. 그나마 낙태죄 덕분에 수많은 태아들이 목숨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현실은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조금더 예. 어떤 면에서는 열화하다. 앞서 언급한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의 한 장면을 되새겨보자. 불법 낙태 시술사는 자신도 불법을 저지르는 처지면서, 낙태죄를 무기로 여성들을 협박해 강간한다. 한국에서의 낙태죄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남자들이 여자친구 혹은 아기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낙태죄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만 3건, 2016년 상반기에도 3건, 여성친구에게 낙태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하는 여성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임부와 시술자, 그리고 임부의 주변인이 전부다. 그중 직접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임부와 시술자가 스스로를 고발할까 만무하다. 1987년의 무나아치처럼 온 나라의 공

권력이 동원되어 임신중절을 감시하지 않는 한, 결국은 주변인이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알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낙태죄는 여성을 향해 휘두르는 남자의 무기가 되어** 있다. 임신하지 않는 남자의 입장에서 "고작" 40명이 기소되고 10명만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데 그쳐 뭐 대수냐고 볼지각한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역시 실제로 그 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북한의 김정 은씨가 한남 농업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재가 문체라고 말하는 것도 쉽다. 그렇다면 해서 국가보안법이 국민 모두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뀔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고 있던 2012년 1월, 사건이 박정근 씨는 70위에서 서 북한인의 공식 홍보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몇 개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 무죄판결을 받아냈지만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유죄판결에서 자유를 떠날만한 상태로 살았고,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악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심판을 억누른다.

국가보안법이 온 국민을 옥죄고 있었고, 낙태죄는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모든 여성을 옥박치고 있다. 생명 동의에 상관없이 임신하고 싶어도 혹은 원해서 임신을 했더라도, 사정이 생겨 낙태를 할 경우 남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여성을 낙태죄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비밀한 본성을 드러낼 때 속수무력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임신과 낙태라는 힘든 고비를 함께 겪은 두 남녀의 권력 관계가 순식간에 깨진다. 결과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먼저 못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심의 악을 쏘는 악법이 바로 낙태죄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는 방법은 그 아이를 낳고 기를 사람들이 더욱 서로를 굳게 묶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힘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것밖에 없다. 무나아치에서 벌어진 참상이 말해주듯, 그 어떤 독재 정권도 기를 수 없는 아이를 낳도록 강요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 동성혼을 법제화한 시구권에서는, 특히 레즈비언 커플들을 고적으로 한 정당한 사생활 보호를 이루고 있다. 사담으로 통치 가정을 이룬 두 여성이 들뜬 한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나라는 대부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했거나, 의사와 상담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치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을 권리는 동권의 양면과도 같다. 낙태죄의 폐지는, 우리 이기적인 남자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나큰 사랑과 원성이 그 기저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바로 그렇게 태어났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낙태죄는
여성을
향해 휘두르는
남자의 무기**

노태우는 어부에서 법원으로, 대법원에서 법원으로 군무하고 자유기
기자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주로 언론사와 주간지 등에 칼럼과 에세이를
기고하며 <노태우의>, <한반도의>를 펴냈다.

 20q : editor yang byeeon assistant editor kim soo-hee
stylist namgong hair & makeup artist park seung



BONG

핑팡 연 거리를 지나 봉태규의 집을 찾았다. 그는 포근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아내의 카메라 앞에 섰다. 이 집 밖의 누구도 본 적 없는 사사롭고 은밀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연기에 대해, 삶을 바꾼 가족에 대해,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에 대해 쉬지 않고 얘기했다. 마침 커피를 사이로 햇살이 들어치고 있었다.

photography by *hasisi park*

TAEGYU





촬영감독: 박민서, 스타일링: WACKO MARIA, 머리카락: N.HOLLYWOOD 지용

“사실 연예인이란 말 정말 멋진 거잖아요.
하나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가진 단어죠.
저는 여러 의미로 연예인이고 싶어요.”

Q1: 이런 아내의 캐릭터 앞에서는 게 익숙한가요?

Taegy: 예전엔 어색한 적도 있었요. 우린 매일 자 연습하게 보는데, 실용은 될 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편해요. 그리고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분명 어떤걸 포착할 수 있는 게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Q2: 아내가 사귀던 히시리씨는 분태규가 집에 저 무언가엔 집중할 게 가장 썩었다고 했어요. 그 래서 그 순간을 잊기로 한 거예요.

Taegy: 그랬나오(웃음) 저는 악연을 스텝없이 드래글 수 있는 사람이 세사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게 참 난요. 아내의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남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 일상적인 관습에서 썩(사람을 발견)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Q3: 장편서부터한 만민기요?

Taegy: 뭐든 같이 하려고 해요. 실험도 목에도 아내를 제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실 남자들이 실험을 다루면 안 하잖아요. 이유는 뭘에서 썩(사람을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들 아내의 노동의 건는 누가 지출하죠? 결국 아내의 노동을 착취하는 건 남편일 뿐이라고.

Q4: '살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Taegy: 뭘을요? 장편은 왜냐하면 있었어요. '살림'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어떻게든 아내의 노동을 착취해왔고 있어요. 매일 밥해주는 것도 당연히 받았고, 열매가 떨어야 할 때만 보상에 대해 시도 생각하지 못했었나봐요. 이런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늘할 만한 얘기해드릴까요?

Q5: 놀만 안해요?

Taegy: 아예 돈 안벌어들어 모인 몇몇 커피숍에서 저를 무시 싶어한다요. 이유는 살림에 대한 제 얘기가 퍼져서인지 아예 고대할 것 같아서예요. 밖에서 일하고 온 아를 창에서 만히 못 하게 할 말이라는 거죠. 소 징검다리?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냐요.

Q6: 연기 얘기를 하지만, 어느덧 올해 17년 지예요. 분태규는 첫 등장부터 남달랐어요. 길거리에 캐스팅할 도 단번에 주연으로 데뷔하나요.

Taegy: 입양식 클라라와 전-트렌 학교도 같이 있었어요. 오비에르(트루) 구하러 다닌 건 오비에르(트루)요. 온 한자씩 뛰뛰 코트를 입고(웃음) 근데 누가 볼까 영감을 주며 오다신 보로 모래요. 가족들에게 팔렸대 나, 인 믿더라고요. 고대하네. 경형 삼아 갔어요. 그걸 게 앙상수 감독님이 (눈물)도 데뷔할 건지 거예요.

Q7: 데뷔 이후 9년 동안 한탄대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잠시 재능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일하셨어요?

Taegy: 재능이란 영화 할 편이 없었기 때문이고, 허 러 수습을 해서 쉬어야 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한과 다뭇 보태대라고요. '연기 스타일을 배우려면, 너무

코믹한 캐릭터만 해서 그런 거다.' 이런 말 들으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뭐 해졌죠. 그러다 뭘해 연구 (보로 지름)을 해다 재밌은 게 있었어요.

Q8: 어떤 재능이었어요?

Taegy: '물음표'하게 열면되지 않지? 저는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캐릭터의 전사나 실을 해석하고 파악하고 했어요. 제 캐릭터가 올보일 수 있을지 고민한 것도 있고요. 이게 극에서 캐릭터가 섹션하지 못 하도록 가두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걸 모로로.

Q9: 3년 만에 TV 드라마로 돌아왔요. (리턴)의 감각 별, 이 캐릭터에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Taegy: 사귀었던 재능의 아들이고 부시를 게 했 는 친구예요. 처음 사무리움을 받고 고민할 때 아내 에게 보여주며 물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난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것 같 은데. 왜 고민해? 전에는 주인공 했는데, 이런 조연 이런 너무 작게 느껴져?' 정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웃음) 첫 대본 리딩 현장에서 고한정 선생님께서 말을 수 있는 말을 물었어요.

Q10: 어떤 말이었어요?

Taegy: '두려, 진짜 열면되지 않지?' 우와~ 진짜 재가 몇 년간 고민해서 재능은 말이지요. 고한 정 선생님이 대단한 분인 것 알고 있었지만, 더 광택 뽐냈죠. 저 어쨌든 진짜 재능이 있을 것 같았어요. **Q11:** 주연 시선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진 건가요?

Taegy: 당연히. 부정적 사안을 신경 썼다면, (살림하는 남자들) 안 나갔겠조. 근데 이 예는 이후로 나 품의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뭇게스트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얼마 전 예시(가) 재능적 자 아도 된 거고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냉정하게 말하 면 부정적 사안에 대해서도 아득 될 게 있어요.

Q12: 해를돌아갔던 건가요? 본보기가 있었어요?

Taegy: 최근에 가장 큰 자극과 영감을 받은 건 재능들이 아니라 한가득 가족들이요. 몇몇 가주는 노래를 직접 만들고, 유행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선행했 어. 이전 큰 방송국의 회를 버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파주를 받은 유진사까지 나왔조. 저도 주체적인 활동 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좋은 자극을 받았어요.

Q13: 유진사 안송송과 함께하는 뭇게스트(우리는) 뭐나 진지합니까?는 주제적인 활동 중 하나인가요?

Taegy: 네, 뭇게스트는 온전히 제 것이요. 프로듀 서의 태도로 일하고 있어요. 내용은 실험에 대한 계기를 해요. 그러면 아예 수 없이 그 안에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요. 그만큼 남성이 재가 이 예일 아예게 다룰지 는 고민해요. 여성인 야가, 내야가 여성인 사람들이 시회에서 할던 다 나은 대우를 받아 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Q14: '만능소년', 연애인 분태규입니다.' 뭇게스트에서 아예게 소개했어요. 스스로 연애인이라 소개 하는 연애지미라나.

Taegy: 신인 인터뷰를 하면 '저는 연애인'이 아닌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날 연애 이라면 단어가 배우보다 해당되는 것 같다는 직감이 생기자마자요, 사실 연애인이라 할 정도였던 거 같아요. 하나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가진 단어로, 저는 아예 해피로 연애인이라고 삼어요.

Q15: 혹시 돌아보면 솔직한 솔직한 솔직한가요?

Taegy: (눈물)에서 하하하하하, 제 정복 줄거웠 거든요. 같이 출연한 배우들이 진짜 대학교 친구 같 아요. 사람들도 대학 생활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생각 이 돌만큼 즐거웠어요.

Q16: 그 줄거워 순간을 찰하고 나을 만큼 중요한 게 있었나요?

Taegy: 전국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재가 생각하기에 코믹한 이미지제 갈하는 게 싫었고 편지 배우로서 대접을 받 받는 것 같아서 열정을 했어요. 그 미디 엔트를 설계 하는 사람이었고, 재가 잘할 때, '물이 올라가 잘됐다.'는 얘기를 듣고 상자를 받았어요. 유진사에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조. 그때 좀 더 들을 어드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걸 아쉽거든요.

Q17: 코미디 작품 속 분태규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나요?

Taegy: 아직 어디에도 발하지 않은 건데, 곧 폭력 영화를 찍어요. 야적 구경으로 말할 수 없지만, 거기서 아예 초해 보로 두세이름 보치기 일출하게 하 요. 현실과 판타지적인 요소가 섞인 이야기고, 저는 미래제과 교육을 하는 재능 배우를 받았었어요. 천트는 (야적들) 만드 만들 합체한다는 것.

Q18: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Taegy: 황송수 감독님. 진짜 예술가가 아닌가 생각하죠. (웃음) 뭐냐? 뭐냐? 한때와 재가 교차되는 장 면 기억나요? 저는 그날 판타지 같거든요. 보로 내나 우와~! 했어요. 어떤 거였어요 이런 연출을 해줄 감 독이 있을까? 생각이 많았.

Q19: 지금의 분태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세 개만 꼽는다면요?

Taegy: 언제 시작 요즘의 저는 리브레시안 느낌 이예요. 실험과, 영감과, 간접영역. 특히 후배로 느꼈 을 법한 그런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연애인. 저는 연애인 재가예요. 마지막은 재가가 교차되는 장 면 기억나요? 저는 그날 판타지 같거든요. 보로 내나 우와~! 했어요. 어떤 거였어요 이런 연출을 해줄 감 독이 있을까? 생각이 많았.

Q20: 돌아보면 인터뷰 곳곳에 폭력과 권력에 서 항쟁에 가족과 연인들 대립이 있어요. 그만큼 결혼 한 이들과도, 양모로도 그럴 거예요.

후 분태규의 삶은 많이 바뀐 건가요?
Taegy: 재도 아닌 감정은 처음 느껴졌요. 결혼하 고 야적제 게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 요. 가족에게 는 교묘한 건 재가 모로기 때문에 불행 히 잘못하는 것들이요. 연애, 그때도 남편이랑 서, 애매하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Q21:**



2011 NEXUS PRIV SPOONS CLUB,
19421111 COMME DES GARÇONS SHIRT #118











THE VAGABOND KIMOKI

김오기가 책소문을 본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매일 다른 마음으로.

photography
by
kim jiyang

Playboy: 김오기의 '오기'는 오키나와의 중립말이죠?

Kimoki: 맞아요. 처음 오키나와에 놀러 갔다가 클럽에서 제즈 리스 하게 됐어요. 친구들도 좋고, 오키나와도 너무 맘에 들어서 그때부터 이름 앞에 오키나와인 단어를 붙여 썼거든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어떤 형이 제를 오키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쓰게 됐죠. 2011년 정도였다.

Playboy: 올레만 올레만 두 장을 썼어요. 《fuckingmadness》와 《피스투 아우어셀》. 지난 연말의 《JUVOK》까지 소금 포함하면 세 장. 지금까지 중 가장 오키나와 같았다 말해보면 어떨까요? 다소 부드럽고 느긋한.

Kimoki: 어, 저는 정말 오키나와와 많이지는 음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집엔 아예 '오리온스타 하우스'라는 오키나와 곡도 있었고, 오키나와가 절묘로 보면 평화로운 휴양지지만, 사람들을 끌어다보면 슬픔이 많아요.

Playboy: 김오기가 말하는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의 오키나와인 거죠?

Kimoki: 류큐에서 일본이 되는 과정도 있고, 미국에 빼앗겼다가 다시 일본에 빼앗기는 과정도 있고, 지금도 미국부터 때문에 꽤 골치 아파하고 있죠. 일본에서도 약간 소외받는 지역이고,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도, 예전 분들은 아직도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야를 찾으려는, 한국 사람들도 현재 시대 기준으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좀 있었어요? 천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친구들처럼 얘기하면서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돌아왔고, 한국에서 느꼈던 부분을 다뤄 1집을 만들었고, 2집까지도.

Playboy: 1집 《천사의 분노》 타이틀 노트엔 이렇게 쓰여 있죠. "인간으로 태어나 달인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어느 순간부터 재질되어진 사회 이차의 마음의 짐을 표현하였다."

Kimoki: 그해 제계발 문에 관심이 많았어요. 큰 자본이 들어와서 원래

살던 곳을 무너트려버리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오키나와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죠.

Playboy: 막연히 왜 오키나와가 좋냐고 묻는다면요?

Kimoki: 제가 사람이 단순해서 그렇게 물어도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어떤 사람 만나도 알아가기 전부터 좋을 수 있잖아요. 오키나와가 그런 곳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해외여행 간 곳이기도 하고, 혼자였고.

Playboy: 마냥 단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자라섬 제즈 페스티벌 관련 인터뷰에서 "제주를 안 세워놓으면 불안해서 마의 제주를 세워놓는다. 제 후대론 알았어! 백 개다"라 말하기도 했죠.

Kimoki: 제 자체는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많이 편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딱딱한 상상을 못 할까요. 그런 나뭇도 어딘가 가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레 스톱을 미묘하게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사랑과 평화 얘기하잖아요. 평화로워지려면 싸워야 해요. 바나나 평화, 평화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게 아니라.

Playboy: 스스로와 먼저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나 관계에서 평화로워질 수 있는.

Kimoki: 그렇죠. 그래서 항상 권면을 제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Playboy: 어떤 면에서 보수적인가요?

Kimoki: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지금도 매일 생각하러 바꾸려 해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 박정희 세대에 세뇌받은 것들? 그런 고정관념이 여전히도 이미 박혀있던 거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문제도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Playboy: 변화의 계기가 있었나요?

Kimoki: 말도 잘 못하고 친한 친구가 게이였는데, 몰랐고, 몇 년 전 한국에

대불 브레스의 숨겨진 다함이 품은 모두 BOSS 거울



“재밌으면 좋은 거죠, 영화도 타란티노 영화 좋아해요,
제가 원래 진지한 걸 잘 못해요, 그냥 저 같은 음악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서 행사도 크게 열리고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게 싫다고 얘기했어요. 부유자가 한 줄이더라고요. 나중에 자랑 친구랑 들만 남게 됐을 때, 친구가 재가라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미안하고, 편지를 갖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내가 이해하고 뭐라고 그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뭐라고 그럴 팔가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때 진짜 크게 바꿨었어요. 모든 게.

Playboy: 예민, 테일 달라지기도 있다고 쓰니까요?

Kimoki: 달라요. 기본적으로 타인을 인정해야 하는데 뭘 그대지 못하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해요.

Playboy: 예민 때문에 음반도 노래를 정도도 달라요. 의도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인가요?

Kimoki: 그렇죠. 음악도 예전엔 스탠다드 제2판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안디 신은 완전히 무시했고, 그런데 무거워지면 안돼요 아니요? 그 친구들이랑 공연하면서 완전히 제꼴이요, 부끄러웠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제2 하는 앨범보다 더 지식 있고, 음악성도 제2보다 뛰어나네 그런 것 생각 못하고 좋은 태도의 안에서만 머물렀던 거요.

Playboy: 순간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요?

Kimoki: 그래서 음악도 항상 그런 식으로 만드어요. 순간의 감정이니까 기억으로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쓰죠.

Playboy: '프리 제2 뮤지션 김오키'란 말은 어때요?

Kimoki: 참 모호했어요. 일단 너무 제2 음반을 안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카테고리할 필요가 보니 제2가 될 거요. 제다가 프리 제2라하면 더 낫나 '프리'해야 하는데 그렇게도 않은 것 같고.

Playboy: 올해 나온 두 장의 음반은 언뜻 엄청할 줄 몰랐는데 왔어요.

Kimoki: 사실 다섯 번째 음반인 <fuckingmadness>는 예전엔 큰 곡들을 녹음한 거예요. 맞는 멤버들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후반에는 앨범이 보일 무렵까지도 찍으러 갔다가, 마음 세진 연주하는 친구들의 느낌이 좋아서 같이 하게 됐어요. 힙합을 연주해 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제2스럽던데 제가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걸 제2고 싶었달까. 제2 스탠다드라 뭐냐 그런 힙합 같은 비자가 더 편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음악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Playboy: 순간의 계기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려면, 수미노래 해줄 때 드러낸 신 라(Sun Ra) 같은 초자연적 경험을 기대하나요 하냐요? 그는 "1936년 부터 37년 사이, 모성에 텔레포트 당했다"고 주장했어.

Kimoki: 저는 신 라를崇拜하면서 재미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만약 같은 반 친구였으면 천하가 자네면서 놀았을 것 같아요. 똑똑한 오라쿠 친구 있었어요. 신 라도 토성 얘기 하던 친구 못지않고, 너무 종교도 하고, 그래서 제2 요즘 "토성에서 왔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 신 라다"라고 인스타그램에 쓰고 그랬고, 장차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사바니츠키나 도발 같은 걸 진짜하게 믿진 않아요.

Playboy: 김오키는 언제나 어디까지 놀았다고 어디까지 진심인지가 모호한 사람이에요.

Kimoki: 제2였으면 좋은 거요. 영화도 파넬도 영화 좋아해요. 제2 원래 진지한 걸 잘 못해요. 그냥 제2 같은 음악 만들고 싶은 거예요.

Playboy: <fuckingmadness>의 주제는 '천일과 천상'이었죠. 여기도 일종의 유머가 섞여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고민하러 했어요.

Kimoki: 무거운 주제를 무겁게 가려고도 싶지 않아요. 어쨌든 부모님한테 항상 혼났어요. 넌 실감한 문제에도 왜 이러진지하지 못하냐. 그런데 장난 좋아한다고 해서 진지하지 않은 건 아니죠. 저 천당과 일할 싫어요. 배고

고 싶었던 거예요. 제2 말한 '천상'은 뜻을 천에 되신 사제요. 천일파를 부르코 같은 하늘에서 아주 잘 지낸다. 김오키가 진지한 사람이었으면 예전에 프리 제2 하던 선생님들처럼 천당에도 했을고. 저답게 장난스레 제2고 싶었어요.

Playboy: 지난 12월호, 한국 <플레이보이>는 김오키를 'Playboy of the Year' 중 1인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죠. "근면이 음악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뎀버에게도 '천재'나 '잠실'이 아니라 불타는 뮤지션이 작업에 몰두할 때 생기는 믿음이었다."

Kimoki: 작곡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좋아했어요. 뎀버 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하루에도 때때치우고 싶은 생각이 12월 이상 들어요. 목표는 그저 더 많이 걸치고 싶은 마음이었. 어쨌든 뎀버들이 좋은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 같아요. 기뻛죠.

Playboy: 원래는 뎀버 괴짜라고 제2를 깨닫다는 편견이 있었죠.

Kimoki: 그런데 제2 음반을 많이 내는 건가? 싶긴 해요. 제2 할금기 때 연주자들한테 정말 금방금방 만났었잖아요. 제2가 오라클을 깨웠거든요. 저는 하로로 나가기도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라 음악 생각만 해요. 집에 있어서 노래 만들고, 카페에서 노래 만들고, 차에서 노래 만드는 거요.

Playboy: 다른 뮤지션들이 제2보다는 생각도 해봤나요?

Kimoki: 그렇다고보면 목표가 좀 달라요. 저는 음반을 굉장히 완벽하게 내려는 생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요. 그런데 완벽한 한 장의 음반을 발표하고 싶어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오래 걸려요. 저는 뭐든 대중에게 편하게 내는 거요.

Playboy: 대중 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Kimoki: 감사한 일이지(웃음).

Playboy: 어떤 뎀도 과연 현실인가요? 싶어요.

Kimoki: 그렇죠. 대중 해도 대중하는 건 아니니까. 혼자 많은 시간을 갖고 몇 년 생각해놓는 상태에서 실제 대중 내는 거예요.

Playboy: 지금 뎀버 음반의 '달남' 같은 곡 들으면 어때요? 그 곡이야말로 제2의 속성을 모두 담았다고요.

Kimoki: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원래는 발매할 생각도 없던 곡이에요. 기념품 만들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안 나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본도했을 때니까. 개인적으로도, 사회를 향해서도, 요즘은 화를 참 안 하네요.

Playboy: 그래서 더 아쉽나요. 더 좋아나요?

Kimoki: 아쉽진 않아요. 인간이 그런 거요. 우주가 그렇듯 돌러하는 대로, 제2다 어울려서 음악을 내는 거예요. <김>성태 형하고 뽀롱뽀롱을 때, 형이 "연주가 많이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Playboy: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Kimoki: 맞는 말이죠. 지금의 제2는 칼날이 서 있지 않으니깐. 솜이뉘졌고.

Playboy: 곡은 부드러워졌어요. 색소폰을 부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무겁고 무박하죠.

Kimoki: 그런 바뀐 거요. 제2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나나. 색소폰을 예쁘게 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

Playboy: 김오키만 이름이 어떤 브랜드가 되었던 인상이기도 해요. 꼭 제즈가 아니더라도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져요.

Kimoki: 처음부터 제2 그렇게 됐고, 팔로로 뎀버. 편만 같은 이름 안 쓰고, 저 같은 캐피탈이 없기도 하고요.

Playboy: 특별히 제2 신에 속해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코리안이 슈와와 함께 서있는 곳은 모두 EDIVISION,
슈와는 PUMA 거울

Kimoki: 1집 낼 때부터 제즈 클럽에는 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때는 사람들이 연주를 틀으며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EDM이고, 그러다 (김)성혜 형 소개로 살롱 바다에서 처음 연주를 하게 됐는데, 너무 cool하다고요. 다들 집중해서 듣고 피드백이었고, 그때부터 제즈 클럽에서 연락이 되다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액션스케이프 활동 하지만, 이제는 제즈 클럽에선 거의 연락도 안 와요. 제한해도 어둡어요요, 다른 뮤지션들이랑 교류하면서 음악적 폭도 넓어지고.

Kimoki: 밴드 리더로서 대부분의 곡을 작곡하고, 하차한 연주자의 연주가 중심이 되는 악곡이요, 일반적인 밴드나 코드를 쓰는 일과는 꽤 다를 것 같아요. 이따기저 관여하나요?

Kimoki: 악보까지 다 그려요. 그걸 가계까지 설명하는 거죠. 밴드도 악보, 밴드스 라인 악보, 피아노 악보 등등. 갖고 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주문하는 편이에요.

Playboy: 김요기는 어떤 리더십인가요?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독재자인가요?

Kimoki: 얼마 전에 케달은 간데, 멤버들 일당에선 힘든 스타일 것 같아요. 권한 대로 하라고 권하지요. 바살 무대에서 연주할 때 팀에 안 들면 그냥 팀 추거든요.

Playboy: 실제 공연장에서도요?

Kimoki: 네. 다시 하라고, 지금 안 맞으니바.

Playboy: 관여이 있는데도요?

Kimoki: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았고요, 이번 색소폰을 아예 안 붙거냐.

Playboy: 연습에서는 디한가요?

Kimoki: 합주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편스 같은 걸 중요시해요. 내가 생각해보는 길 안에서 그걸 해치라고 통성하게 만들 수 있으면 내내 마음대로 해라. 한 거예요.

Playboy: 기운이든 지는 거든요?

Kimoki: 항상 그렇죠. 제 삶이 그래요. 기운이 있고, 그걸 벗어나면 안 되요. 어떤 부분엔 한계치가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꺾을지만 그걸 넘으면 안 되요.

Playboy: 그 기운이 예전엔 좋았다면 어떤 날이진 전가요?

Kimoki: 옮겨간 걸 수도 있고요.

Playboy: 가장 최근에 세운 기운은 뭔가요? 삶에서는 음악에서만.

Kimoki: 음악에서라면, 요즘 작업하고 있는 음반이 하나 있었요. 편한하게 연주하되 섬세하게 하자는 기준을 세웠어요. 사실 많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음을 본다면 또 음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미세한 소리가지 나타내고 싶어요. 페드가 부엌엔딩다냐 물음 음악적 볼 색소폰들 붙어 스타는 소리가까지 잡지하면서, 밴드 멤버들도 제랑 똑같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Playboy: 김요기의 즉흥 연주는 어디까지 즉흥인가요?

Kimoki: 제가 생각하는 즉흥이 확실히 있었요. 지루하지 않을 것, 뭘도 끝도 없이 한없이 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은 그제 원데 있던 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베인페드니스 멤버로 공연할 때 즉흥을 많이 했대요. 시작과 끝은 항상 작심생가 있어야 했어요. 동시에 꽤 끝난다거나. 다음 곡으로 자연스레 이어간다거나. 무대에서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명하죠. "다음은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몇 번째에 맞춰서 끝내고, 브레이크는 이치고." 그러면 관객들이 끝나고 항상 물어봐요. 아예 진행이 안 되고.

Playboy: 보편적으로 즉흥이란 악보에 없는, 그 순간에만 낼 수 있는 독창적 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요?

Kimoki: 제가 원래의 즉흥 연주로 구성된 음악을 못 들었더라도요.

Playboy: 대가들의 음악이라도요?

Kimoki: 네. 오트 콜롬비아라고. 반면 천나라 파로와 샌더스는 난해한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멜로디 정화하고, 다발 스미일이 더든 거요. 말하는 방법의 차이. 그런데 각국의 프리 음악을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알 수 없어요. 저는 글을 통해서 하죠. 그 안에서 최대한을 발휘하고 싶은 말 이 있죠.

Playboy: 그렇다면 지금 김요기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Kimoki: 정신이요,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단데, 제가 천하는 메시지가 항상 있거든요. 네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 하는.

Playboy: 가사가 없는 연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죠.

Kimoki: 제목이나 제가 음반 내면서 하는 행동, 공연하면서 던지는 메시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후보 글이나 해설서가 될 수도 있고, 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Playboy: 음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생각하나요?

Kimoki: 초현적 힘을 발휘해서 정화한 주파수나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밴드만으로 읽힐어요. 대신 사람, 슬픔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Playboy: 감정은 색소폰이란 악기에 100퍼센트 자유롭게 실을 수 있는 건가요?

Kimoki: 그진 할 수 있어요.

Playboy: 일장수준 이상에 오른 연주자들은 주로 뭘 연습하나요?

Kimoki: 저는 아직 일장 수준 이상까지 못 갔고요, 기본 연습은 매일 하고, 요즘은 본이요, 음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연구해요. 음표 하나를 붙더라도 그럴 어떻게 끊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

Playboy: 지난 여름 〈포라토리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탠리 제즈 앨범과 스키리추얼 프리 제즈 앨범 그리고 베인페드니스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그중 베인페드니스의 두 번째 음반 〈페스투아우어〉이 언제 나왔고요. 다음은 뭔가요?

Kimoki: 새로운 밴드와 나머지 두 개를 같이 합주하고 있어요.

Playboy: 베인페드니스는 해체인가요?

Kimoki: 네. 음반 내고 다음 날 끝났어요. 새 밴드랑 1월 20일에 녹음을 들어요. 스탠디드 음반이랑 스키리추얼 프리 제즈 음반을 섞은 앨범도 낼 수 있고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3인조예요. 너무 인원이 많으면 돈이 안 벌려요(웃음).

Playboy: 굳이 제즈 프리라고는 말은 쓰지 않겠어요?

Kimoki: 굳이 할려면 색소폰 프리라고요. 팀명이 있어야요. 김요기 새틴 발라드, 스탠디드 발라드 곡들을 많이 연주할 거라서.

Playboy: 그렇기라니 '전라' 제사를 실현할 음반인가요?

Kimoki: 제즈랑, 아. 다른 것도 이미 하나 녹음했었어요. 그걸 박식 줄이어요. 전체적으로 파로와 캔디스 곡 'Harvest Time'이 떠오르는 음반이요, 편한한데 아방가르드 감기도, 아프리칸 감기도 하고.

Playboy: 내년엔 대체 음반 몇 장 나오나요?

Kimoki: 3장 정도? 제하이라비도 나오게 하죠. 그다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Playboy: 2017년이 좀 부트러워 감겼어디냐. 2018년의 김요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Kimoki: 거기까지 연주하고 싶어요. 그렇지하면 뮌헨에는 아슬아슬. 설혹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이것은 또한 느낌으로 표현했으면 해요. 예쁜 멜로디라고 무조건 예뻐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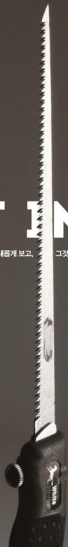
JUST IMSUMI

아티스트 임수미는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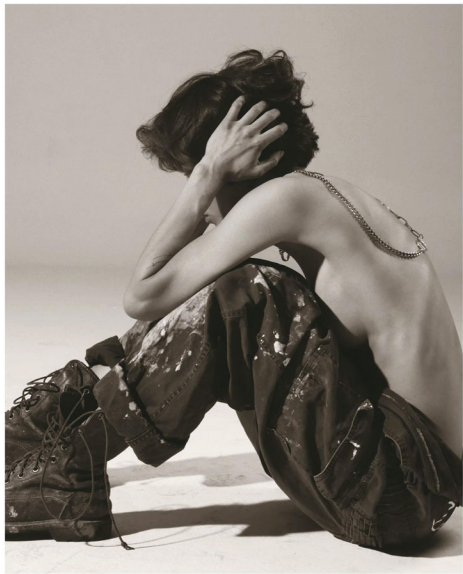
그것을 특별하게 만든다. 누구와도 달지 않은 방식으로.

photography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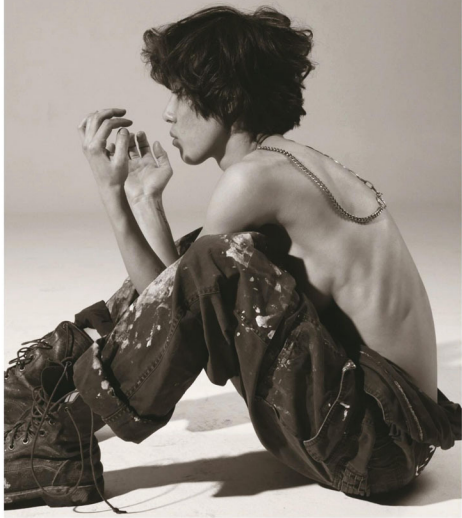
jdz chung







모건이라는 CLEVER MOVE 가래
팬츠의 숨겨진 보물 창고





어떻게든 보이시란 외모가 싫은 적도 있었어요. 학삼 시절부터 조리를 했는데, 여자라서 힘든 적도 있었어요. 조각 재료나 공구는 대체로 무거워서 몇몇 선생님은 남학생을 더 찾는다고나, 현장 실습 같은 기회를 여학생인 제게 잘 안 주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면 천 손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일 할래요. 힘도 괜찮고요, 게다가 성세하기까지 해요." 전 결국 사람반은 제자가 됐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여자라서 늘 행복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이 좋고요. 나다운 게 뭔지 이제 알거든요.

'아트테라'라고 불러요. 제가 하는 인터리어 디자인은 도면이 없거든요. 의뢰를 받으면, 먼저 그 사람을 풀어서봐요. 집에서 오래 지켜보고 관찰해요. 그러고 의뢰받은 공간 곳곳에 그 특징을 표현해요. 예를 들어 포도 스튜디오라면 카메라와 포로그래퍼가 특별해 보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의뢰한 사람과의 절대적레이션이라 생각해요. 도면 100장을 그려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성격, 취향, 생활 등

을 표현하는 작업이니까요. 요즘 (국)술진 언니의 공간을 작업 중인데, 아직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공요전스러운' 공간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조각가예요. 그런 만큼 전문 분야가 아닌 인터리어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 든 생각이 '나답게 하지는 거였어요. 저는 전문적인 인터리어 디자이너(전문)은 못해요. 하지만 제 아트테라이를 보면, 임수미만 할 수 있는 저 혼자 보일 거예요.' '의자가 꼭 바닥에 있어야 해? 천장에 붙여보자. 무서워 보이니까요? 그게 포인트!' 제가 작업할 때 좀 유별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저는 예술가의 역할에 이런 게 포함된다고 봐요.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일상적인 무언가에 집중하고 그걸 세로로 만들어 유니크하게 하는 것. '아티스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떤 게 소스가 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임수미하세요, 아티스트 임수미입니다." 예술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면 뜻이 맞지 않게 될 거예요. 

데님 베스트는 CANE BROS 제품.
거끼리는 스타일리스트 소정음.
연이웨어는 모모 소정음



재킷은 스타일비스트의 스칼라,
언더웨어는 로렌 쇼넬





夢幻

: 夢魘

포토그래머 이재길의 꿈속에서 본 여자.

photography
by
lee jaegil



몽환, 1993

그대에게 권하노니 한잔 술을 다시 마시요, 문을 나서 서쪽으로 가면 옥 같은 사람 없으니, 나는 위해 자려 하니 그대는
그만 거시고 내일 아침 뜻이 있거든 가문고 안고 오세요.

조선의 희곡 <복상> 중, 왕유의 시 '위성곡과 이해의 시' 신중에서 술에 사는 사람과 술잔을 나누다에서 인용

이재길의 <몽환>은 1993년에 나온 한국 최초의 '꿈'의 사진집이다. 1998년 그의 사진을 높이 평가한 앙리에서 같은 제목으로 번역 발간했다. 1995년 첫 누드 사진전 <내게와인>을 시작으로 국내와에서 30회 이상 개인전을 개최했다. 지난 2월까지 계명대학교 사진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editor yoo jeong

SPECIAL

한복은 얼마나 에로틱한가. 또한 춘화는
포르노인가 예술인가 역사인가.

ISSUE

한국 문학과 호스티스 영화의 에로틱하지만 에로틱하지 않던 순간을 되새기는 동시에, 당대를 들쭉신
로타의 그라비아 사진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KOREAN

오직 한국에만 있는 '에로' 영화를 만들고 출연하는 사람들.
목소리부터 노랫말까지 뒷골이 당기도록 색시한 노래들.
맵고 짭 것 이상으로 화끈한 음식의 세계.
그리고 2018년의 문을 화첩 떠듯 활짝 여는 <플레이보이>식 풍속도.

EROTICISM

春 畫 다시 보기

왜 사람들은 아직도

춘화를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걸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그림, 19세기 말경, 100cm x 50cm, 수묵화, 19세기 말경, 100cm x 50cm, 수묵화

by
김옥인

나는 예도 시대 시각예술을 전공한 30대 후반의 여자 학예사다. 2010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춘화 특별전을 기획했고, 2017년 11월에는 화정박물관에 춘화 상설 전시실을 만들었다. 학장 시골부터 타지역 거의 20년 가까이 춘화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실제로 근무하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통해 전시 기획 및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별한 것 없는 자기소개로 이 글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녀 세뱃돈을 물어거뿔 때 내가 춘화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 중이라고 하면 돌아오는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었다. “질문은 하세요?” “어떻게 여자가...?” “춘화요? 그게 학문인가요?” “넌도감지 않아요?” 중 하나다. 2010년 첫 춘화 전시장을 준비하던 당시 이런 질문에 대해 “저는 미혼의 30대 여자 학예사로 춘화를 태워야 전사를 준비해야 연구하고 있습니다. 꾸민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신기해하면서도 격렬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어이한 할 말도 배려는 볼줄도 없었다. “아아구, 질문도 안 했는데... 관촬했어요?” 당연히 부끄럼이 많은 일민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과 발언을 할 때면 나를 음란한 사람으로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조금은 위축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꽤 긴 시간 연구를 거듭하며 내만의 편견을 버리고 작품들을 접하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놀라운 다가오와 시각적 이미지라는 그날 평소 책이나 트라퍼를 통해 접하는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많았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러워 친밀한 관계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많았다. 그리고 그 당시 성 풍속이 반영된 때대로 인식하고 나니 너무나 인간적이고 솔직한 장르로 다가왔다.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 비슷한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저 여자 학예사였습니다. 춘화는 시각예술사에서 중요한 장르 아니냐 관련 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반응은? 수긍한다는 태도다. 그리고 30대 후반의 “가공” 연구자로서인지, 아니면 10년여 가까이 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춘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춘화를 연구하는 여자 학예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는 별개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미술사에서 미더어난 장르로 취급받던 춘화의 입지 변화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춘화는 2010년대 출판물도 물론 관련 전시회와 세미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런 활발한 활동이 춘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단순히 ‘춘화(春畵)를 불러먹으키는 호쾌한 물건’에서 ‘알고 보니 너무 매력적’인 담겨 있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춘화는 당시 어떠한 배경에서 제작되고 향유되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춘화가 언제 유행하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일본처럼 다다마타의 공부를 통해 들어왔거나, 왕실을 중심으로 유행하다 왕실에서 만아 들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도입 시점에 대한 문제는 차지하고, 춘화가 점차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다. 18세기 후반 이후 서민의 경제·문화 발전, 호족 문화의 파급과 더불어 술과 기녀의 예술과 성을 판매하는 기방(妓坊)과 색주자 같은 소위와 유흥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양의 유흥·쾌락 풍조가 춘화를 유행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곳의 주위 소싸움은 역관과 가솔직, 시녀들과 같은 종신종과 상인이었는데, 이들은 부와 자식을 정비하여 시대부와 같은 시간적 여유를 누리면서 문화를 향유했다고 한다. 문화적 감각이 높은 이들이 향유하며 발전시킨 춘화는 보고 즐기는 감상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

춘화를 단순히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아니라 당대의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록 또는 하나의 역사로 인식하게 될 거다.

적인 인물 묘사와 심미적 풍류, 해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 후기의 춘화는 신윤복과 김홍도 같은 풍속화에 능한 화가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 소머가 술병과 잔 두 개를 들고 말살이는 듯 뭉뚱한 자세로 서 있다. 들어가도 되는지도 아닌 것이 자명하다. 그녀의 왼쪽에는 달인 병풍이 보이고, 아무래도 산발 두 컬러가 나뉘려 놓여 있다.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푸른 선반은 금박화 벗어놓은 듯 흐트러져 있다. 아마도 달인 병풍 너머에는 춘제가 깊은 남자가 함께 있을 것이 틀림없다. 지금 설명한 그림의 제목은 ‘사자장군(師子長君)으로 춘정을 암시하는 소재를 많이 다룬 풍속화의 대가 신윤복의 작품이다. 그는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대신, 여자의 율무를 암시하는 듯한 계곡이나 흐르러진 신발과 같은 주변면의 사물을 이용한 은유적 표현법인 ‘은근치 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즐겼다.

이처럼 은유적 소재를 통해 춘정을 그려낸 그림이 있는가 하면, 달인 김홍도가 그렸다고 알려진 ‘운수절(運水節)’과 같이 다양한 관례의 남녀가 여가를 나누는 모습을 사실화하면서 대략적으로 그 대략도 있다. 실내에서 약간은 지루한 표정으로 누워 있는 여자와 자화 할 일 바쁜 남자가 춘정을 나누고 있다. 더불어 안에는 서화와 문류가 놓인 탁상이다. 바깥에는 분화가 배치되어 있다. 김홍도가 그려본 조선 후기의 춘화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이이 세이이 나올 만큼 대략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또한 도식화해 전형적으로 그려 중국 춘화 속 등장인물이나 지나치게 사실적인 특징 신체 부위의 묘사가 두드러지는 일민적 춘화에 비해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신체와 볼품없는 보시는 사람이 더욱 실감 나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준다.

전통 사회에서 ‘성’에 대한 공포와나 공개적 유흥은 일반적 환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것이 인간 본능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당대의 풍류나 미의식을 반영하여 은밀한 소전, 회화, 공예품 등 다양한 작품을 생산하고 향유했다. 그중에서도 춘화와 풍류는 회화 작품은 유독 성에 대해 현실적 이야기를 담았다. 아마 그 점이 춘화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매력인 동시에 지탄받아도 되었겠다. 신윤복과 김홍도도 대변되는 조선 후기의 춘화 역시 음란한 그림이라고 부다는 당시의 풍류나 미의식을 반영한 성 풍속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춘화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거스러니가 되어 너무 먼 대상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어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나 볼 바에 보이고, 드러내고 내 취향이라 말하기엔 남의 사안이 어쩔지 신경 쓰일 것이다. 그러나 춘화를 단순히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아니라 당대의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록 또는 하나의 역사로 인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부끄러움’인양한 그림이 아니라 성행위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춘화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

김은은은 2019년 YH인사 전문 기자. 중국, 일본, 미국의 춘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화정박물관 춘화 상설 전시실 기획하는 학예사다. 그녀는 누구나 당당히 춘화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문화를 꿈꾸고 있다.

욕망의 불꽃

단연단연 한국 문학은 예로부터하지 않다.
보여지는 여자와
한국 남자란 있을 뿐.

by
이혁진

매일 전 고 박완서 작가의 <나목>을 읽다가 박완서 작가의 소설 <은교>가 떠올랐다. 연상치고는 뜬금없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는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남자를 사랑하는, 나이 어린 여자가 등장하는 것뿐이지라. 하지만 그게 궁금했다. 생면 다른 두 작가가 비슷한 차이를 있는 여성을 어떻게 그렸을지.

<나목>의 여성은 전쟁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화가 욕희도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태수에게도 끌리고, 남편 사이는 육체관계뿐 나뉘진 다 장식이라는 녹색 비의 남편 병사에게도 동물적 욕망을 느낀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그 혼란이 병발할 때마다 태수의 병동 자취방에, 미군 병사가 애용한 일종의 호텔 방에 늙는다. 욕희도의 병에서 결정적 전환을 맞는다. 자신과 욕희도뿐 아니라 그 아이와 새 아이까지 백작 볼을 붙이고 가는 연방의 뒷차에서, 이것은 귀를 기울인다. 자신에게 자결 나쁘고와 안고 있을 욕희도와 아내에게서 낱 소리를 혐오하면서도 기다린다. 잠든 이것은 꿈속에서 벌거벗는다. 화살의 의사에 있어 상상한 스무 살 여자의 몸을 욕희도에게 보여준다. 한껏 유혹해보지만 욕희도의 눈은 묵이 긴 백자에, 도밀라아니의 초상화 속 여인처럼 묵이 어머니의 은은에만 가 있다. 욕희도가 백자를 듣는다. 그 때그려서 표면에 입을 맞추고 애무한다. 질투와 자괴심에 이르는 소리 지른다. 하지만 욕희도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이 긴 백자만 만지작댄다.

한편 이혁진의 저력에서 철소임을 도와주며 된 한 여성은 '어디 한 군데 보자할 없이, 동굴과 동굴만 영토처럼 차지하고 거실 바깥마디를 다닌다. 그 바깥에 깊은 우물이 파이도록 숨을 마셔 짙은 풍선처럼 뽕그렇게 부풀어 오른' 얼굴로 호호 불어가며 청문을 달는다. 목재 계단을 오르내리며 발목을 디쳐서는 이혁진과 마주 앉은 식탁 위에 양말을 벗은, 희고 '갈퀴한' 발을 내놓는다. 거의 모든 장면에서 한은교는 아무 거품없고, 당당해도 없이 나타나며 보여진다. 그래서 이혁진의 문학상에서 지우가 책 안에서 한은교의 젖가슴을 찍는 모습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일 수는 있어도 감동적이지는 않다. 밑거름은 스무 살 여자를 얹어 두르고 백자의 긴 목을 찢는 화가의 모습처럼 읽는 사람의 사야를 지배해버리는 못한다.

두 작품을 나란히 놓는 것은 분명 허술한 대조다. 앞서 말했듯 두 작품은 주제, 사슬 방식, 전환의 분위기 모두 판이하다. 여자와 한은교도 들어다보면 여성은 말해줄 주인공, 한은교는 조연에 가까운 주인공이다. 한은교는 여경보다 작가가 딸긴 맥락을 충실할 수밖에 없다. 보여주느 은교, 보여지는 은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때 더욱 신명나는 것이 있다.

한은교가 보여주는 은교, 보여지는 은교이기 때문에 이혁진은 망상과 공상을 해매며 파국으로 치달아간다. 그 여정은 일진 수렁과 동방이 가지만 그 수렁과 동방이란 늪들과 늪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남성에 대한 것일뿐 이치요한 인물, 남자에 대한 것은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두려워하고 망상여자는 순이 없기 때문이다. 이치요한 수없이 번뇌하다 결국 은교에 대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욕망도 태초에서 시작된 예로쓰라고 확인한다. 하지만 모두 알기 속에서는, 사랑은 결국 허사말이며 여로라는 자취행위를 꾸리는 욕망에 그친다. 그것들을 현실 차장하는 시와 비문도 칸 위에 출루라진 잠든 뱀, 조화법에 되지 못한다. 그 결과 <나목>의 여경에서 피격하고 치졸하게 하지만 수렁과 동방이 가는 방식으로도 망상하는 욕희도와 달리 이혁진은 도망치지 않고 맞선다. 스스로 파멸한다. 비격하고 치졸하게.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늪을 아닐까? 더군다나 <나목>의 욕희도는 아직 꽤 많은 중간이로 이치요한 고등학생 한은교와 환갑 차이 아닌가. 그 나머지 가파르다 느끼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랑과 갈망의 정국이 <은교> 아닌가. 하지만 같은 작품을 공유하는 G. G. 마르케스의 <네 살을 창녀의 추억>을 읽으면 답은 명명하다. 이 소설의 여는 살도 노인도 자고 있는 소녀 열여섯 해 사랑과 욕망을 느낀다. 찬살과 화상에 또 빠진다. 그리고 그 것을 통해 저급한 자신이 사랑에도 도망치았음을.

그렇게 사랑한 여성들을 자신 안에서 모두 슬픈 창녀로 만들고 말았음을 깨닫는다. 노인은 소녀를 때운다. 열여 살이 많은 시간 동안 이는 도망치지 않기로, 소녀와 함께 사랑과 욕망을 누리기로 하는 것이다. 아직 제 기분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온전한 그것과 함께.

<은교>가 여경의 보여주는 것은 이치요한 한국 남자의 남성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정작 여자도, 사랑도, 자신의 욕망도 모른다. 나이나 체면 같은 사회적 자의식에 변변히 간질 하나나라스로 도망치기까지 하다. 그러는 채 권력에 산뜻하게 가는 커널 퍼질한 고백조차 한때 못한다. 그 나이를 먹고도, 더군다나 일어난다는 사안이 아니라, 게다가 마자마자는 자결을 택한 망상 속 언덕을 끝내 자신이 죽었고도 정신 승리까지 한다. 부정적 의미로 장군이 되라 할 말이 없게 사귀어지는를 붙인다. 이토록 알뜰한, 아니 일확천금 못해 바스라지는 낙엽 같은 남성이라니. 또 그런 남자가 시연으로서 성공했다는 소설 속 한국 사회의 남성이라니. 그것과 짝을 이루는 한은교라는 한국 여자의 여정은 더 사귀어진다. 환갑 차이가 나는 노인의 눈에도 보여져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여성, 살아올 자이는 인물이 아니라 사진 속 모델에 돼 남자의 욕망을 떨치기 위해 여성이다. 더욱 사귀는 것은 열일미를 처제되어 걸레질하고 채굴이 되어도 꼭 장문에 입결을 넣고 희고 갈퀴한 백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이 모든 수고를 치르고도 결코 애도하지 않는 여는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갈망하는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여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남자가 살았을 때만 본 공화하고 비틀린 존재 내부로 침투해오길 못하는. 이 남자가 제 남자가기 때문에. 한은교는 이경처럼 묵이 긴 백자를 질투하며 힘껏 소리 지르지 못한다.

극한을 하는 <무진기행>조차 들여다보면 아내 덕분은 출세한 남자가 고향집에 내려와 사회적·정서적으로 자신은 여는 여성상과 하등한 자고 다시 사귀고, 자신을 출세하게 해준 아내의 집으로 침투하려는 이야기다. 자신의 죄과를 청정하 무죄의 맛으로 돌리는 연상기재이므로 끊임없이 사랑의 문은 열어두었다 남기면, 요컨대 이런 식이다. 남자는 처다보고 뜯어본다. 여자는 보여지고 또 여경다. 남자는 여경을 끌어당기거나 밀치고 여자

“나는 욕실에 들어 불을 켜다. 눈이 부시게 환하다.

간음한 여자를
똑똑히 보고 싶다.
가을 앞에 선다.
가을 속에
내가 있다. 선택 아무하고도
애기해본 적도,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는 것같이
절망적인 무구를
풍기는 여자가
거기 있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해맑고
절망적인 기분으로
나를 처녀처럼
느니다. 10년
가까운 남의 아내
노릇에 두 아이까지
있고 방금 간음까지
저지른 주제에
나는 나를 처녀처럼 느니다.
그런 처녀는
끔찍하지만 그렇게
느니다.”

여자의 욕망은 물론 비열한 욕망이다. 하지만 버
를리지 않은 욕망. 허기나 수면욕 같은 것이 무슨
해마에나 어느 세상에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고,
읽을 때마다 여자의 모습을 비추려고 했다. 비유
될 수 있다. 무려 1974년 작이다. ㉠

는 끌려가거나 밀려나간다. 작품을 통해 그런 남
자, 그런 여자가 낯설, 여성이 된다. 부르기나 안아
줄 줄 모르는, 고작 끌어당기거나 열차나 하는
것이 사랑과 욕망이 된다. 아무런 작가의 〈선박〉
은 그 정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은교〉에서 현실에
없는 여성, 남성의 사색에만 존재하는 여성이 은
교로, 미학의 대상이 되듯 〈선박〉에서는 가부장적
남자와 사회가 선택한 양자택일이 선택이 된다.

단지 개별 작품의 흠이어나고 말할 수 있다. 개별
작품의 흠이라면 나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한다. 작가 스스로 남성이 그로써 가버린 것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남자와 그런 사회를 굳이
그런 식으로 쓰고 싶다면 그런 수 밖에 없다. 어
찌도 깊은 인물을 그리려면 그 뼈대 깊은 남성만
큼 해설과 정신 슬러도 크고 융합할 수밖에 없고,
결점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남배 할 것 없이 그리
기 마련이니까, 그나마 크고 융합한 해설이 보는
재미라고 있고 좀 더 인성을 태울 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어쩌든 여자로 있다. 어쩌거나
책 한 권이란 독자가 덮으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아랫은 경합이다. 해설과 정신 슬러하는 것을 모
르고 그 무식과 무지로 다른 무식자를 무시하거
나 왜곡하는, 열매한 행태고 미열이자 저열인 경
향. 단적인 예로 한국 사회가 박완서 작가를 겨우
30~30년 만에 마스한 이야기, 오성재 사선, 데고
없고 울음과 있는 문제 따위를 언급하고 소비하
는 것이다. 박완서 작가의 한국문학작가상 수상
작 〈그 가을의 사울 불탄〉은 전쟁 중 강간당한 여
자가 사울 번두에서 낙태 사울 전후 산부인과를
열고 달는 이야기다. 현대문학상 수상작 〈꿈꾸는
연못바다〉는 남부대를 갔었다는 여자가 사이아니
와 시누이 손에 끌려가 뱃속에 있는 딸을 중절시키
는 이야기다. 문학상 수상작이 아닌 작품들은 더
하다. 여자들은 그 시대의 학벌과 결혼으로 진동
하고 남자들은 그 시대의 해설과 불만으로 뻗었다.
그 남배들이 사는, 프르드립부터 연한보일림
까지 다 있는 그대의 한국, 사울은 너무 생생해 몇
가지 장작을 더하거나 빼면 그대로 지금이 될 것
같다. 박완서 작가는 알약한 공상이 아니라 제철
한 현실을 작품 속에 갈아 넣는 작가의 작가이고,
그 작가는 동시대를 살피며 남배 작가들이 공생에
보일 만큼 거침없고 끈질겼다. 하지만 작가 정신,
작가 근성의 표본으로 호명되는 작가들의 목록에

박완서 작가는 없다. 그 근처에도 못 갈 남배 작가
들은 수도꼭지다. 얼마 전 한 선택에게 이 이야기
를 하자 선택은 한마디로 정황했다. 김해자 씨가
배우 김해자가 아니라 국민 여배우 김해자로 소문
날 때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한국 문학이 전혀 예외적이지 않다는 단언은,
그러므로 전혀 어떨지 않다. 그런 역사이자 현상이
고 열마이자 사실이다. 흔히 예외로 분류하는 장
정일 작가나 실상대 작가, 그 마왕수 작가의 작품
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현대 여성을
그린다는 요즘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그 안의 여
자들은 단지 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뻔대로
단지 발하기만 한다고 오해받고 있는 것은 아닐
까? 존건은 아니다. 여자들이 자신의 욕망과 속을
스래움으로 살아 움직이는가? 예외적, 생애의 갑
각이란 결국 욕망과 욕망이 열렬히 부딪칠 때 리
진다. 욕망이 크고 강렬할수록, 심해지고 두텁할
수록 꽃망울처럼, 꽃망울처럼 피를 쏜 그 안에 있는
여자의 것가속이나 열렬이, 남자의 성기가 얼마나
크고 밀렁거리는지와는 무관하다. 그런 쪽은 좋게
어느 여배우가 따로 있다. 코코노, 여자를 두터운
예로, 하지만 한국의 그 '예로' 열화야말로 얼마나
'예로'하지 않은가. 이렇게 명각화한다.

지금까지 내가 읽은 한국 문학작품에서 가장 예
외적인 장면은 민방화계도 또 박완서 작가 작품
이지만, 어쩔 수 없다. 〈달은 방울〉의 여자와 남편
은 오랜 처가살이에서 벗어나 아파트살이를 시작
한다. 설레고 아슬아슬 차 나만의 방을 꾸미며 사회
만 결국 제복처럼, 그 아파트의 수많은 방과 달은
방, 그중에서도 앞집 철이 열마의 방과 똑 달은 방
이 되고 만다. 그런 방에서 차를 차가자 희희낙
거를 느끼면서 여자는 자신이 노이로제, 신경쇠약
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는 정신장
원으로 가는 대신 달집 안방으로 들어간다. 철이
얼마가 시골 친정에 다녀오는 날, 모두 잠든 시간
에,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달은 방에서 자고
있지만 자기 남편과는 다른, 아내에게 '잠을 같은
새끼'라고 불리는 철이 아씨의 침대로 숨어들어
잠을 끈 채, 철이 열마 행세를 하며 갑갑한
간음을 지낸다. 결과는 살상수립다. '잠을 같은
새끼'조차 너무 자기 남편과 아내 깨닫는 것만 같
음한다는 느즈르조차 듣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자기
침으로 돌아온 여자는 이렇게 독백한다.

이력적인 정현호씨 (9호)는 2006년 제19회 현대문학대상
수상작이며 출간했다. 출간당시 소설가, 자전 〈달은방울〉 10월
호에 실린 단편 〈문학작가들의 삶과 죽음〉을 보기도 했다.

film : editor you jiang
artwork pyo kiki



여자들이 살던 거리

사공에서 첫 올라온 여자는 부장급 직모살이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주인공 사공들의 직원인 창수라는 남자가 추파를 던지는데 그게 실지 않다. 그 때까지 사공집에 돈도 보내고 이제 술 사들일 거 같아 생일이 즐거워하는 걸나. 여자에게 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주인공의 딸이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할 것이다. '사공들에게 집적거리던 아들이 창파하기만 한 사모는 여자를 내뱉어버리고, 잘 못 있는 여자는 공방으로, 버스 차장으로 전전한다' 끝나는 집창촌의 착무로 전락하고 만다.

출거러만 보면 전부하기 그지없는 영화지만 이 작품은 1975년 개봉 당시 단일 극장에서만 36만 명 이상을 동원하고 잡지, 텔레비전 등에서 '영사 신드롬'을 일으킨 김호진 감독의 '여자의 창생시대'다. '여자의 창생시대'는 전년도에 개봉해 기록적인 흥행을 이루었던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과 함께 '호스티스 장르' 영화의 효시로 꼽힌다.

앞서 언급한 영화의 이야기, 혹은 사공 처녀의 도시 수난기는 두 작품의 전례 없는 흥행몰이를 시작으로 김호진 감독의 1976년 작 <여자들이 사는 거리>와 1977년 작 <겨울여자>의 연이은 흥행을 거치면서 1980년대 수많은 영화에 반복 적용되리라 이른바 호스티스 장르라는 명칭까지 생겼다.

1970년대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박정희의 유신 정권 아래 영화 검열이 대폭 강화되면서 극장가가 일한단 볼거리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티스 영화가 10여 년 동안이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동시대 구상인들이 공유하던 사회학적,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편견을 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급격히 추진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 처녀, 청년들이 도시의 인파로 동원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여성이 노동 현장에서 성폭력과 각종 자기 멸시의 희생재로 추락하게 된다.

호스티스 영화는 이러한 면에서 양가적이다. 그들의 호스티스 영화에서 차세대 젊은이들처럼 등장, 김호진, 하길홍(속 별들의 고향) 등은 노동계급 여성이 산업화 시대에 감내해야 한 성·노동 착취를 그려냈다. 그리고 이들의 영화는 문명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 사랑을 받았다. 당시 영화 검열이 하층·노동 계급의 영화 재현을 집중적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호스티스 영화 같은 '성인물'의 외형이 없었다면 아마도 잡편의 칸을 차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호스티스 영화의 여주인공이 모두 현실적이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일련의 영화가 없었다면 황송민 중세에도 가장 아래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출신의 '따라한' 성 노동자들이 영화 속 주인공으로, 혹은 동시대 아들을 재현하는 하나의 에이전트로 사람들의 사선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호스티스 영화를 놓은 인구의 도시 유밀, 산업화의 병폐, 노동 현장의 인권 문제 당시 한국 사회를 관통한 이슈를 어느 정도 부영한 문화적 지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사여 이 영화들은 강간이나 성 노동이라는 문제적 접근을 통해 여성의 색수

일리미를 조망하고 상업화한다. 다시 말해, 남성을 강간의 가해자 혹은 소비 주체로 설정하면서 남성의 성적 욕망이 능동적으로 극대화해 표현될 수 있는 문법을 갖는 반면 여성의 욕망과 내면은 생략하거나 배극한다. 그런 면에서 호스티스 영화 속 여성은 남성의 욕망이 발원 혹은 실현되는 육체로만 기능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호스티스 영화의 색스 신은 아불잡지 않다. 많은 독자가 기억하고 있을 <나연 하르 워크>나 <연인> 등 주류 상업 영화에서의 모범적이고 사정적인 색스가 호스티스 영화에는 없다. 호스티스 영화의 색스 신은 대부분 여주인공이 강간을 당하거나, 혹은 색스를 목격하는 것으로 제한하므로 가학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나는 77년 여자>의 여주인공, 고나(최유미 분)가 전남편(김희라 분)과 야욕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역지) 하는 정사 신은 처연하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하다. 여성 캐리커의 비통 없는 사선은 사공열관 오프스크린(화면 밖)을 응시하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로결한다.

<겨울여자>의 이화(장미혜)는 자신을 약사한다 과결검이 자살한 청년에 대한 죄책감을 씻기 위해 밀하는 누구에게마도 몸을 하라하며 살기로 한다. 그녀에게 색스는 순교에 가까운 의식인 것이다. 영화에 몇 차례 등장하는 색스 신에서 이화는 단 한 번도 본인의 강간을 표현하거나 오프가슴을 노출하지 않는다. 고나와 하원까지도 원장에 고생하고 있는 그녀의 사선은 '의리'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순이 다한 고기처럼 사선이 밀착하며 여성 캐리커와 그 위에서 감각적으로 호흡하는 남성 캐리커의 네로로필라악한(시체애호증) 색스 신은 호스티스 영화의 장르적 관습 중 하나다.

물론 당시 군사정권하의 영화 검열과 문화적 정서란 것이 '잡기는 여성의 모습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영화들과 함께 박스오피스를 강타한 <연의 야마노나> (꽃을피는 야마노나) 등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의 색스 신이라는 것이 공통 혹은 체념과 함으로 비무인 연대의 과정으로 재현된 것은 사실이다 아닌 수.

한편, 젊은 여성의 '대사각'을 다룬 영화들이 붐을 타지듯 제작되고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까지도 스크린을 누비며 승승장구한 것이 부럽다는 생각이 교차하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1970년대의 호스티스 영화들을 다시 재매는 것은 작품의 눈으로도 꽤 즐거운 일이다. 책이도 자취한 번의 번으로 도시로 이주해 수많은 노동 시간을 견디며 생활하고 사치한 현실의 사공 처녀들이 이름을 가진 캐리커로 영화 속에 등장해 본인들 이름과 양상을 전하지 않았는가, 순천무구한 처녀들이 난생처음 도시로 나와 종로나 명동에서 옷을 구경하고 극장을 거웃기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웃음이 나온다. 마치 벨미엔아면의 <에이제도 프로캅트>에서 파리를 거닐던 '플라르시Flanour', 도시 방랑자의 사공 처녀 비연과도 비슷하게도 한다. 정말 말하지가 않는 색스 신이 칸을 치지만, 그마저도 자꾸 보고 싶은 이유다. ❶

김효정은 일노의 대위에서 영화사, 이론, 문화, 특히 사회적 정권과 영화 검열과 호스티스 영화에 대해 쓴 글(문헌, 취미) 수천편이 넘는 정성(정신)과 연구(수사)를 저술하고 있다. 본지 발행에 관한 내용은 김효정이다.



구글 아티스트 캠페인 세계60개의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이영희의 한복 드레스, Photographer 김종민(P008)



photography
by
rotta

A GIRL FROM CARTOON

사진가 로타는 "한국에서 여자를 가장 예쁘게 찍는 그라비아 리카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 있다. 그게 잘못된가?

Playboy: 요즘 한국보다 일본에서 자주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의 공개된 작업일이 없는데, 어떤 사건을 하고 왔어?

Rotta: 브로드, 뮌헨, 그라비아 아이돌 등 다양한 상업 사진을 찍고 있다. 아직 준비 중이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무라카미 다카시의 회화 카이카이 카키와 일본 대형 시트 그림에서 전시 회화가 와서 조를 주고고, 1월에는 사진전을 발매할 예정이다.

Playboy: 일본 그라비아와 일본 로타의 사진이 원자에서도 인형받은 건가?

Rotta: 우선 일본에서는 내 사진 스티일을 원하며 그라비아용으로 보지 않는다. 내 사진 기법이나 스타일은 일본 소년 만화나 여성잡지 영향을 받은 건데, 막상 일본에서 가면 필리파가 찍어서 보일 줄 알았다. 근데 슈메이사나 무라카미 다카시의 회화처럼 대단한 곳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는 나도 놀랐다. 그리고 나는 사진을 공부할 때 일본 소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고 싶었던 게 크다. 특이한 건, 일 때려먹어 만난 사람들 중 내가 여성인을 알았다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Playboy: 국내 몇몇 커뮤니티에서 "로타의 사진은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대상화한다"는 말이 화제가 된 적 있는데, 그런 반대의 경우다. 이유가 뭘까?

Rotta: 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 사진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다. 일본에선 내 사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 사진이 남성의 시각에서 찍는 사진이라 보는 걸 수도 있다. 내 사진은 소르투를 원아다. 찍는 나도 섹션 구분 없이 좋아할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찍었다.

Playboy: 로타는 어떤 사진을 보고 예뻐한다고 느꼈어?

Rotta: 특정 사진을 꼽을 순 없다. 사실 내 사진은 항상 시선에 본 연화해의 영향이 크다. 아다치 비츠루의 만화를 좋아했고, 만화책으로 *02D*, *미유카*, *0려려* 등을 좋아했다. 카츠라 카사키즈 작가의 *아이즈*를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만화를 보며, 아가 아라한 느낌이라 느끼거나, '말이 심비들' 하는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고 이 부분을 내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비주얼로 풀어낸다라고 보면 된다.

Playboy: 로타(Rotta)는 폴리리카와 오퍼구의 합성어라는 말이 있다. 이름처럼 폴리리카이라는 말은 어떻게?

Rotta: 먼저 내 이름 뜻은 로타로 오퍼구의 합성어임을 밝힌다. 개인 방송에서 장난 치기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화되었다. 내 사진은 소년 성애라는 분명 다르다. 그리고 사진 들이다 보면 '폴리리카'라는 개념은 문화 곳곳에 스며있다. 소년 만화를 보면 로타 같은 여자가 계속알려져 표현되기도 하고, 아이돌 그룹도 소녀스틸이라 이름 붙여 보이는 콘텐츠로 로타 비슷할 것 같고 책 사할 줄을 숭배도 한다. 우연 이며 폴리리카적인 요소가 있는 콘텐츠를 숭배하고 있고, 한국 사회는 폴리리카적인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를 곳곳에 있다. 그런 데 내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개적인 태도로, 제니비스를 내세워 "로타의 사진은 소년성애를 조장한다"고 일갈한다면, 글썽.

Playboy: 로타와 로타의 사진이 왜곡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건가?

Rotta: 오해받은 것 중 어떤 사건을 어떤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크다. 사실 성이 상충되는 것 자체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내 작업이 불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돌 걸 그룹을 비롯해 이미 그런 콘텐츠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성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 이중성을 가지고 공개적인 것 달갑지 않은 않다. 계속열한 요소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소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냐.

Playboy: 음악은 가사도, 영화는 긴 러닝타임을 통해 설명하지만, 사진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면 포착된 순간만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나.

Rotta: 내 사진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오는 말은 이렇다. "수동적인 여자, 몸을 드러내고 성적인 자세를 취한 여성,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의 여성" 등등. 말했듯 나는 일본 유혹 소녀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 거기서 계속열한 여성이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사진같이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 상황, 나는 작업할 때 이런 '경계'를 달고자 노력한다. 다가가라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극적 만화적인 모습, 반대로 "수동적이면 어때?"라는 말도 하고 싶다. 어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귀여운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내 사진 속 포즈를 취하여 애매로 부릴 수도 있는 거다. 각자 취향과 방식이 다를 뿐이다.

Playboy: 그와 별개로 로타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면 연락하는 여성들도 많다고 들었다. 주유 어떤 이유인가?

Rotta: 연락 온 모두에게 답장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크게 보면 본인의 가장 예쁜 순간을 남기시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많다. 단언할 수 있는 건 나와 작업할 모델은 모두 중학생이었다. 그중 내가 억지로 찍은 사람은 없다. 먼저 연락이 왔거나, 시간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 상응 풍자가 오고도 긍정적인 태도로 진행했다.

Playboy: 로타가 선호하는 모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Rotta: 작 같아 말하면, '태양', 그리고 내 *02D*에 올라온 네 작업물과 이질 같아 일 때 셀링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지점이 내 사진이 소년성애에 이라는 말과 다른 것인 것 같다. 아틀리엔 '소아'는 말 그대로 아이인데, 나는 그런 모델과 사진 찍고 싶지 않다. 내 사진은 보면 알겠지만 모델의 이미지가 소년 만화의 주인공처럼 고정화하고 대학생 사이의 모습으로, 아이가 아니다.

Playboy: 로타의 사진에서 빠져선 안 될 세 가지는 무엇인가?

Rotta: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소녀 포즈, 이 피사체를 비추는 채광, 그리고 장소, 이 세 가지는 뭐나 가지 각진 요소인 것 같아. 내 사진과 영화를 찍을 요한 곳이다. 얼마 전에 찍은 일본 요코하의 온천이라 비 내리는 장마 때 같은 풍자 풍다한 곳이었어? 편안하면서도 긴장감 있는 장소를 좋아한다.

Playboy: 로타의 사진이 그라비아 사진 같다는 말은 어떻게?

Rotta: 문제다. 사실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저런게 우스갯소리로 "우리 나라에서 여자를 가장 예쁘게 찍는 그라비아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라비아 사진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었는데(웃음) 돌아보면 어차 모였과 노출이 있는 사진을 우리 나라에 가장 잘 찍고 있다는 의미였다.

Playboy: 로타의 사진에서 애드미시즘은 무엇인가?

Rotta: 내 작업 취향은 만화에서 파나온 소녀들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런 취향을 즐기고 좋아할 뿐이지, 강요로 현실을 옮길 일은 없다. 블롭 드 레아나 영화를 본다고 실제로 그림 재치된 것 같았어. 영화 *0버넥스*를 봤다고 도사를 부수고 다니냐. 전쟁 영화를 좋아한다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사진을 찍을 때 준수하는 기준이 있다. 0버넥스 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찍는다. 즉 한 번도 '02D 콘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Playboy: 애드미시즘을 사진에 담는 작가로서, 한국의 성 문화는 어떤가?

Rotta: 록 잡지 말할 순 없지만, 지금 한국은 성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있어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그 성을 보면 콘텐츠나 방식이 더 열린 태도로 바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애도된 게, 어떤 게 다 나쁜 건 아니냐, 진정한 방식으로 담담하게 음란할 수도 있는 거다. 성에 비해 글씨가 너무 작고나, '소아' 같은 것은 웃고 싶고, 개지 나쁜 환경적인 성인을 올릴지도 모르겠다. 그 문화를 비롯한 중개적인 자리에서도 계속열하고 멋진 걸이나 책을 꺼낼 줄 알아서 되었다고 본다. 사람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②



FILMS FOR EROS

한국에는 '에로 영화'라는
독특한 장르가 있다.
그 영화 신의 주역들을 만났다.



"에로 영화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건 기분이죠. 그리고 영화니까, 민중세가 중요해요. '영혼'이 있어야죠. 다른 에로 영화와 제 에로 영화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자관은 김옥이로 에로 영화를 만든다. 2013년 연 부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에로 영화 중 최초로 〈젊은 양파〉와 〈허물〉이 초청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에로 영화는 다 허접하고 싸구려에 조악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잘 만들어서 놀랐을 거예요." 그의 자신감엔 근거가 있다. 저타공인 현재 에로 영화제는 공자관 전과 후로 나뉜다. 그의 '업' 시리즈 이후 수많은 아류 작이 나온 거 중가다. "〈젊은 양파〉에 어떤 테이존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따기는 박장의 끝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내서 흥분스럽다'고(웃음) 이게 제가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공자관의 영화에선 암모가 달고 이혼한 시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한다. 말 그대로 막장. "해로 막에 나온 만한 이야기죠. 그런 '막'의 이야기"를 열렬히 이야기하며 평론하게 연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쓸데없이 우아하고 교양한 게 싫거든요." 공자관식 에로 영화의 핵심은 이거다. "누구나 참다 우매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읊려하면 그게 나쁜 건가요?" 공자관은 지금 20억을 미친 상업 영화를 제안받아 내년 크리스마스엔 목표로 4~5억을 쓰고 있다. 장르는 뭐로든, 그만의 스타일은 그대로 이어간다. "절절한 열로예요. 그리고 저는 열로가 결국 폭소 영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면 감정도 비주요도 쏠 영화가 될 거예요. 그 영화가 공개되면 함께 흥파가 일지 않을까요. 그가 에로 영화 감독이 된 이유는 뭐냐? "저는 기억이 없는데, 연극영화과 재학 시절에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한국 에로 영화 1인자가 될 거라고, 희을 그들 가라고, 특이한 놀이있죠." 소년의 호기는 한숨이 됐다. 그럼 행련이 된 공자관의 목표는 뭐냐? "가르쳐 줄 거" "현재를 즐기"가 제 신조예요. 지금은 예로가 돌아서 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걸 발견하면 그럴 하겠죠. 한 실이라도 찔을 때, 누리마조." 공자관은 모야돈 적금을 해서 곧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전날실" 여행을 떠난다. 기차는 놀이머이라 잃는 웃도 작다. 게다가 새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의 다음 영화는 좀 더 뜨거운 여를 필지 않을까?

공자관

공자관의 에로 영화는
늘 막장이지만,
그렇게 자연스럽다.



공자관의 에로 영화
모노그래피

- 1 〈젊은 양파〉, 2013
- 2 〈허물〉, 2013
- 3 〈부〉, 2014
- 4 〈친구와 여자〉, 2015
- 5 〈해리 데이〉, 2016



이은미

"이은미는 대한민국의
소년을 청년으로 성장시켰다."
농담이 아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나온 예로 영화 안 본 청년은 일을 거라고, 지금 30대 이상 남자를 거역다 제가 청년으로 만들어준 거라고.(웃음)" 이은미는 영화배우이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20편이 넘는 예로 영화에 출연했다. 2000년대 이후 예로 영화를 논할 때 이은미를 빼면 큰 줄기를 잃는 셈이다. 그가 오랫동안 예로 영화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 "색스레잡았어요.(웃음)" 그리고 예로도 인기를 끌어야 하죠, 베드신을 찍는 데 어설프면 뭘 그대로 팔초 신감만 건드리는 AV랑 다를 게 없죠, 자연스러워야죠. 영화라면 마음에 와닿아야 해요." 예로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노출 외에도 자살과 드라마에서 보여줄 수 없는 과감하고 코믹한 소재를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이은미는 업계에서 인기파로 통한다. "대사가 없거나 감정을 잘 살리는 배우가 필요하면 저를 찾아요, 그리고 베드신은 물론 캐릭터의 전사까지 이해하는 배우는 이 바닥 예드물다는 걸 아는 거죠." 거의 모든 예로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여자 배우가 중심이고 누군가는 육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솔직히 남자들이 멋진 척 모습을 보면서 욕구를 해소하는 상상을 하던 다윈과 합합하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그들의 성적우상인 거잖아요. 재밌죠. 뭐." 이런 이은미에게 노출 신을 찍는 청학은 이렇다. "이왕 노출 신 찍은 거, 참마라고 싶지 않아요, 예로 영화 속 제 베드신을 보고 기분이 좋다는 말 듣는나, 진짜로 하는 거야. 뭐? 라고 오해 받는 게 나아요." 배려량 이은미는 고질적인 문란 여자 배우를 얹힌 잘못된 대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자 배우가 한 번 노출 있는 영화를 찍으면, 캐피탈 앞에서 멋진 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노출 신을 써야만 오나, 또 멋진 건 뽀얏아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배우예요, 이야기를 보고, 이해하고, 작품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야 노출 신을 찍는 거고요, 멋진 거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은미는 어디까지나 스스로를 영화배우라고 소개한다. 그 호칭 앞에 부끄럼지않게 늘, 최선을 다한다.



이은미의 예로 영화 필모그래피

- 1 (조지몽), 2015
- 2 (조지), 2015
- 3 (조지), 2016
- 4 (사춘기)와 등가, 2017





이태달

이태달은 뜨겁다.

뜨거운 배우다. 3년 동안 무려 38편의 예로 영화에 출연하며 업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노름이 중요해요. 몇몇 여자 배우 중 백드린을 느낌 없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오래 못 가요. 자극적인 요소를 자른 스텝이 흥아날 줄 알아야죠.” 이태달이 다작을 할 수 있는 건 온전히 노력과 실력 덕이다. “전에 일본 AV 배우들과 함께 예로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커비 색스인 걸 알면서 보는데도, ‘공사’를 한 걸 아는데도 진짜 느끼는 것처럼 연기하니까.” 예로 영화는 AV와 다르다. 첫째는 실제 정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영화라는 장이다. 즉 색스를 하지 않으면서 색스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예로 연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는 옷이나 벗으면서 쉽게 존 본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입고 왔던 배우들 중 못하겠다고 도망간 경우가 많아요.” 예로 영화의 배우가 된다는 것, 그 작품의 중심인 여자의 얼굴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지 아니냐. 그만큼 고충도 따른다. “여자로 서취감을 느낀 적도 있고, ‘내가 왜 남자들의 성적 놀임감이 되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 남성들이 제 연기를 보고 반응할 걸 생각하면 재밌기도 해요.”

그는 예로 영화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고 한다. “차별점이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도, 예로 영화를 대하는 태도도 물론이거니와 그런 배우, 영화에서 색스에 필드 따라올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다양한 작품을 하고 싶어요. 예로도 침묵가 없거나 다양하면서도, 지금은 거의 열로밖에 없지 않, 취여배이 될 수도 있고, 액션이 두드러질 수도 있어요. 그게 좋 아원죠.” 이태달은 작품을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다른 목표를 이야기했다. “예로 배우 중 연기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진한 열로를 찍고 싶어요. 속이 깊은 이야기를 정극으로. 물론 이태달이 하는데 빠진한 요소는 있어야겠죠? 정극 심의를 고려해서 많이 벗지 않을 텐데, 문제없어요. 노출의 정도도 별개로 노출도 많은 백드린을 찍을 수 있던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태달의 열정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영대 데비키스에 걸친 전제자야 한다는 모두 ETAM 지문

이태달의 예로 영화 필모그라피

- 1 (내키레의 25.0, 2016)
- 2 (물류의 후배, 2016)
- 3 (연의 107년 전후, 2017)
- 4 (착한 원수, 2017)



홍보왕

홍보왕은 예로 영화를 찾고, 보고, 쓴다. 그런 그에게 팬들은 '예로 영화 평론가'란 호칭을 붙였다.

홍보왕은 내이버 블로그 '홍보왕의 픽방잇간'의 운영자이며 국내 유일무이 예로 영화 평론가로 불린다. "직접 예로 영화 평론가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마케팅 관련 일을 하려 기사를 종종 써야 했는데, 때면 같은 소재만 쓸 순 없어요, 새로운 소재를 찾아 예로 영화에 대해 쓰게 됐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2015년에 개설한 그의 블로그는 누적 방문자 수 1500만 방문 넘겼고, 지금도 매일 5000명 이상이 그의 블로그를 찾는다. "예로 영화에 대한 수요는 없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길러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화를 보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만만 기준이 될 리무가 없던 거죠." 그걸 예로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 "놀라운 얘기 하나 할까요? 예로 영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모기업에서 통계를 넣는데, 지역은 강남, 시간은 12시부터 2시 사이, 30~40대 주부가 제일 많았대요, 그걸 고려한 몇몇 예로 영화는 남자 배우도 중요하게 다루고요." 예로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영화에서 주목하는 점은 뭘까? 색스 콘텐츠 소비하는 거라면, 굳이 예로 영화를 볼 필요가 있을까? "포노노가 자기 위해서 예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기막 색스인 걸 보면서 보는 거죠, 다 벗고 보는 색스 영상을 보는 것보다 더 아한 느낌을 주는 영화적 연출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나은 채로 노출이 있으면 팬들은 더 싫어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홍보왕은 예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색스유리타를 달아내는 연출이라고 했다. "공지민 감독의 <젊은 업아>는 아들이 새엄마와 색스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누구나 떠올릴 순 있지만 끝내 어둠속에서 지워야 하는 금기적인 상상아잖아요,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영화를, 높은 노출 순위와 함께 표현한다고 봐요, 이런 연출이 포노노와 예로 영화의 결정적 차이점이지요." 공지민 감독의 말처럼 '언더그라운드'인 예로 영화 산업의 현재는 어떤지 궁금했다. "말썽기라고 봐요, 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문인아 육척인 '업자'들이 넘쳐거든요, 헌선 하루 뒤러서 대충 찍고 그걸 영화라면서 내요, 어지개 벗고 나오면 다 예로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차라리 예로 영화 산업이 제대로 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왕은 예로 영화계의 암담한 현재를 얘기하면서도 희망을 보이고 했다. 예로를 비롯한 성인 콘텐츠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홍보왕이 추천하는 예로 영화

- 1 <친구 사랑>, 2015
- 2 <인간 영화>, 2016
- 3 <불안 영화> : 디 오세라토, 2016
- 4 <비밀선>, 2017





0.150, 0.175, 0.200, 0.225, 0.250, 0.275, 0.300, 0.325, 0.350, 0.375, 0.400, 0.425, 0.450, 0.475, 0.500, 0.525, 0.550, 0.575, 0.600, 0.625, 0.650, 0.675, 0.700, 0.725, 0.750, 0.775, 0.800, 0.825, 0.850, 0.875, 0.900, 0.925, 0.950, 0.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1.325, 1.350, 1.375, 1.400, 1.425, 1.450, 1.475, 1.500, 1.525, 1.550, 1.575, 1.600, 1.625, 1.650, 1.675, 1.700, 1.725, 1.750, 1.775, 1.800, 1.825, 1.850, 1.875, 1.900, 1.925, 1.950, 1.975, 2.000, 2.025, 2.050, 2.075, 2.100, 2.125, 2.150, 2.175, 2.200, 2.225, 2.250, 2.275, 2.300, 2.325, 2.350, 2.375, 2.400, 2.425, 2.450, 2.475, 2.500, 2.525, 2.550, 2.575, 2.600, 2.625, 2.650, 2.675, 2.700, 2.725, 2.750, 2.775, 2.800, 2.825, 2.850, 2.875, 2.900, 2.925, 2.950, 2.975, 3.000, 3.025, 3.050, 3.075, 3.100, 3.125, 3.150, 3.175, 3.200, 3.225, 3.250, 3.275, 3.300, 3.325, 3.350, 3.375, 3.400, 3.425, 3.450, 3.475, 3.500, 3.525, 3.550, 3.575, 3.600, 3.625, 3.650, 3.675, 3.700, 3.725, 3.750, 3.775, 3.800, 3.825, 3.850, 3.875, 3.900, 3.925, 3.950, 3.975, 4.000, 4.025, 4.050, 4.075, 4.100, 4.125, 4.150, 4.175, 4.200, 4.225, 4.250, 4.275, 4.300, 4.325, 4.350, 4.375, 4.400, 4.425, 4.450, 4.475, 4.500, 4.525, 4.550, 4.575, 4.600, 4.625, 4.650, 4.675, 4.700, 4.725, 4.750, 4.775, 4.800, 4.825, 4.850, 4.875, 4.900, 4.925, 4.950, 4.975, 5.000, 5.025, 5.050, 5.075, 5.100, 5.125, 5.150, 5.175, 5.200, 5.225, 5.250, 5.275, 5.300, 5.325, 5.350, 5.375, 5.400, 5.425, 5.450, 5.475, 5.500, 5.525, 5.550, 5.575, 5.600, 5.625, 5.650, 5.675, 5.700, 5.725, 5.750, 5.775, 5.800, 5.825, 5.850, 5.875, 5.900, 5.925, 5.950, 5.975, 6.000, 6.025, 6.050, 6.075, 6.100, 6.125, 6.150, 6.175, 6.200, 6.225, 6.250, 6.275, 6.300, 6.325, 6.350, 6.375, 6.400, 6.425, 6.450, 6.475, 6.500, 6.525, 6.550, 6.575, 6.600, 6.625, 6.650, 6.675, 6.700, 6.725, 6.750, 6.775, 6.800, 6.825, 6.850, 6.875, 6.900, 6.925, 6.950, 6.975, 7.000, 7.025, 7.050, 7.075, 7.100, 7.125, 7.150, 7.175, 7.200, 7.225, 7.250, 7.275, 7.300, 7.325, 7.350, 7.375, 7.400, 7.425, 7.450, 7.475, 7.500, 7.525, 7.550, 7.575, 7.600, 7.625, 7.650, 7.675, 7.700, 7.725, 7.750, 7.775, 7.800, 7.825, 7.850, 7.875, 7.900, 7.925, 7.950, 7.975, 8.000, 8.025, 8.050, 8.075, 8.100, 8.125, 8.150, 8.175, 8.200, 8.225, 8.250, 8.275, 8.300, 8.325, 8.350, 8.375, 8.400, 8.425, 8.450, 8.475, 8.500, 8.525, 8.550, 8.575, 8.600, 8.625, 8.650, 8.675, 8.700, 8.725, 8.750, 8.775, 8.800, 8.825, 8.850, 8.875, 8.900, 8.925, 8.950, 8.975, 9.000, 9.025, 9.050, 9.075, 9.100, 9.125, 9.150, 9.175, 9.200, 9.225, 9.250, 9.275, 9.300, 9.325, 9.350, 9.375, 9.400, 9.425, 9.450, 9.475, 9.500, 9.525, 9.550, 9.575, 9.600, 9.625, 9.650, 9.675, 9.700, 9.725, 9.750, 9.775, 9.800, 9.825, 9.850, 9.875, 9.900, 9.925, 9.950, 9.975, 10.000, 10.025, 10.050, 10.075, 10.100, 10.125, 10.150, 10.175, 10.200, 10.225, 10.250, 10.275, 10.300, 10.325, 10.350, 10.375, 10.400, 10.425, 10.450, 10.475, 10.500, 10.525, 10.550, 10.575, 10.600, 10.625, 10.650, 10.675, 10.700, 10.725, 10.750, 10.775, 10.800, 10.825, 10.850, 10.875, 10.900, 10.925, 10.950, 10.975, 11.000, 11.025, 11.050, 11.075, 11.100, 11.125, 11.150, 11.175, 11.200, 11.225, 11.250, 11.275, 11.300, 11.325, 11.350, 11.375, 11.400, 11.425, 11.450, 11.475, 11.500, 11.525, 11.550, 11.575, 11.600, 11.625, 11.650, 11.675, 11.700, 11.725, 11.750, 11.775, 11.800, 11.825, 11.850, 11.875, 11.900, 11.925, 11.950, 11.975, 12.000, 12.025, 12.050, 12.075, 12.100, 12.125, 12.150, 12.175, 12.200, 12.225, 12.250, 12.275, 12.300, 12.325, 12.350, 12.375, 12.400, 12.425, 12.450, 12.475, 12.500, 12.525, 12.550, 12.575, 12.600, 12.625, 12.650, 12.675, 12.700, 12.725, 12.750, 12.775, 12.800, 12.825, 12.850, 12.875, 12.900, 12.925, 12.950, 12.975, 13.000, 13.025, 13.050, 13.075, 13.100, 13.125, 13.150, 13.175, 13.200, 13.225, 13.250, 13.275, 13.300, 13.325, 13.350, 13.375, 13.400, 13.425, 13.450, 13.475, 13.500, 13.525, 13.550, 13.575, 13.600, 13.625, 13.650, 13.675, 13.700, 13.725, 13.750, 13.775, 13.800, 13.825, 13.850, 13.875, 13.900, 13.925, 13.950, 13.975, 14.000, 14.025, 14.050, 14.075, 14.100, 14.125, 14.150,

음사내 '공연히'

[illegible]

biv

디제이 소울스케이프

열애

억압의 시대에도 뜨거운 노래들이 있었다.
온근하거나 파격적이거나, 지금도 막을 수 없는
여덟 곡의 하국 가요.

신정호 인형

[illegible]

조물주는 Dyssu 또는 뽀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의 구토와 눈물, 광위, 나비스 셋, 천정, Dyssu 등에서 남모르게끔 익을 하여 자른 애초가로서 보인 편을 본다.

154

王與章

김성애 '하루도 하루'

이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와 사상이란 것은 상상상의 특권만 보
아는 정치 비판의 전통, 제법과 CCM 복서처럼 그 공적
수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직업만, 연봉만 높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사람만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졌다는 것이다. 관공적인 사상이 문화와
크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관공적인 사상이 '문화'로 표현되는 수목에서
그 것이 보여지는 다양한 표현과 양상을 초월하는
사회의 문화적 양상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관공적인 사상은 다양한 문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
어 그 어느 한 문화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화
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상업적 문화와 신성한 문화
와 전통 문화, 가짜의 문화와 진짜의 문화, 한민족
인 백의민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완성하는 것은 한국
화가 중심인 문화와 세계의 문화의 조화라고 생각
한다. 문화는 문화, 문화는 문화, 문화는 문화, 이
한 문화의 양상과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양상이

디제이 소울스케이프는 〈80g Beat〉, 〈Lovers〉 등을 발표했으며, 〈Sound of Seo〉 시리즈로 한국의 록, 힙합 등을 알린 걸 소개했다. 현재 360 사운드 브루와 레코드를 m360을 이끌고 있다.



2150-2154

다음은 '불학당금', '승학당금', '교양학당금'



圖 1-2-1 鋼筋的種類

원동숙 '말을 하지 말아라'

여성의 목소리는 이성미로부터 나온다고 했다가 원동숙의 '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도 기 전까지 말을 하지 말라고'라고 하스키한 목소리로 대담하게 뚫고 나갔었다. 구구치 않은 듯한 허시할 속에 애상미를 드러낸 원동숙만의 특유한 장점은 남자의 마음을 흔들고 작사/가에 흥분했다. 게다가 실정을 뽐내 드는 대담한 기타 레인과 간주 부왕의 요절한 블루루트 소리는 최하림의 극치를 이룬다. 최하림이 곡은 원래부터 색시다가 지브리 흐르는 원동숙이 곡이 아니었다. 1979년 대도계고등학교 때 발매한 원동숙의 첫 데뷔 앨범인 〈친구들이야〉에 수록된 이 곡의 원곡 주인은 레베카(Rebecca)에서 활동했던 서울시스타의 카라진(Kara Kim)인 곡이다. 1977년 서라면서 발매한 곡의 2집 타이틀이었던 이 곡은 나훈이를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한 '첫집의 곡' 작곡가 박정현의 작품이다. 어둡으로 훗날 김수자가 부른 '첫집의 곡'은 〈가정집이비단〉의 순정고정판(재곡) 앨범에 실리기도 했다. 표현력이 다재로 박정현의 안과 곡 중 어엿한 향기를 품은 곡을 롱어머니는 말할 필요 없이 원동숙의 '말을 하지 말아라'를 꼽는다.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지 마라'다. 1980년대-1980년대 음악을 돌아보고 지니고 돌아왔다. 원동숙의 원동숙이 아니었다. 서브컬처 페디에 온 한 영이다.

타나 황 '그대여 돌아와요'

1970년대 후반은 양정현의 디스코처럼 '미친 듯이 춤추고 내 멋대로 Do The Disco'였던 시대였다. 춤추고 땀 흘리며 디스코를 즐기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양정현에 신 (모요일 밤의 열기와 포스터가 한 공간 같이 있었고, 춤 추는다는 형사들은 고고당의 디스코 음악에 맞춰 나 열거자에 하늘을 열었다는 춤을 한으로 TV 음악 쇼 프로그램 (보보보)에선 디스코 기호가 붐을 타듯 쏟아져 나왔다. 그때였다. 1979년 뉴욕에서 온 타나 황이 디스코의 열풍을 보여준다는 한국에 실려온 것이었다. 당시 이온 한 속자, 정자 등 내세워 디스코의 골치잡이와 불린 노반기회를 따라잡고자 오아시스는 타나 황이라는 황금 열거자를 내놓았다. 타나 황은 뉴욕의 VIP 클럽에서 일 3천 달러의 출연료를 받는 톱 스타였다. 그런 타나 황이 이심지게 한국에서 낸 첫 번째 앨범인 (Tina Hwang From New York)의 압권 중 신음과 나고 창이 골짜기 넘어갈 정도로, 오글쎄 치러게 하는 곡이었다. 바로 '그대여 돌아와요'다. 신음-는 리듬 위에 마치 강속함으로 내려앉아 있는 것 같은 이음들이란 목소리로 '그대여 돌아와요'나를 사탕만이란 사람으로'라 속삭인다. 편제의 특을 한 해질은 스모크 마이그레이션 교묘 화장을 한 타나 황의 열 반 제1회 원동숙의 전수를 보여준다.

by
미미

타나 황 '그대여 돌아와요'



원동숙 '말을 하지 말아라'



강남의 '오 그들'



김완선 '별빛을 좀 더듬게 해줘요'



강남의 '오 그들'

가사에 노정복을 썼다. '오 그들' 그게 카바에 그대로 쓰여 있다. '말과 인생을 노래하는 여호의 디스코 스타. 김완선의 '오 그들' 강남의 목소리는 노정복의 연인이 다. 후렴구의 '가슴이 타오르, 가뭇이 들어요'를 부른 재가 강선인데, 노정복을 쓰기로 불려와 들어갔고 단숨에 날 제자지 지는 노정복과 함께보았어 어떻게 꼭 사귀어서 끝까지 할이 가져가는 법이 없다. 사랑이란 동경 그릴 게 온 힘을 다해 지는 맛까지 맛보고 난 뒤야, 제대로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음반 전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곡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동시대적 디스코 음반들과 달리 '흥'이 넘치는 곡들을 뒤로 한채로 A.S.A.D. 반에 단숨에 들어오는 본격 흥의 '오 그들'을 배치한 제1회 프로그래밍.

by
유지성

김완선 '별빛을 좀 더듬게 해줘요'

민재경은 세로였다. 이진희는 노래를 잘하고, 김완선은 목소리를 세로였다. 그런 세로가 한 해의 노래도 보기는 기운이었다. (모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에서 (가모요일)에서, 제1회부터 다른 가수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 기운은 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완선의 목소리는 온전히 그대의 것이었다. 누가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서 울었다는. 그런 목소리나 눈빛 같은 것으로 꼭 할이 에려온 문에 변 하도였다. 물론 이 곡, '별빛을 좀 더듬게 해줘요'의 무대를 TV에서 본 적이 없다. 나중에 발견했고, 김완선의 노래 중 가장 좋아한다. '별을 깨달아'가 아니라 '별빛을 좀 더듬게 해줘요'는 말이지요. 김완선의 연애 이야기 하나? 나는 다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더욱 상상하게 된다. 1집과 2집이 신음일 김완선, 3집이 이진희라는 대가들의 작품이려면 이 4집에서는 신음으로 두서 한층과 호흡을 맞췄다. 이렇게 말해지는 한층의 첫 특집 음반 이름은 (Aude City), 역대로 도회적 사운드와 함께 김완선의 목소리는 더욱 밝은 반에 가까워진다. 이후로 김완선은 4집 백백드 신음으로 말해지는 연을 맺은 순후로 1집/2집에 5집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다. 시대의 전성기 판권을 받들게 하는 김완선의 첫 1회 곡 '나만의 것' 이전 '별빛을 좀 더듬게 해줘요'가 있었다. ②



EROTIC

석류, 낚지, 굴,
토마토.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 네 가지 먹거리의
공통분모는 바로
스테이크나,
이에 어췌한
레시피를 더했다.

석류 초콜릿

1인분 2인분
100g 소금 140g

Recipe

1. 100g의 소금 140g을
다져 중탕으로 완전히 녹여
준다.
2. 작은 냄비에 유산지를
넣고 조물질을 볶은 후
석류 알을 넣고 잘 섞어
준다.
3. 100g의 유산지를
넣고 조물질을 완전히 볶아
준다.

EATING

POMEGRANATE

참기름이 가득한다면 귀찮더라도 석류를 먹어야 한다. 석류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참기름을 호전시키기 때문이다. 장시간 세스에 노출되기 전 가장 유용한 과일

낙지 버터구이

낙지 1마리, 버터 100g,
올리브유 100g,
페퍼마린 가루 약간,
후춧가루 약간,
파슬리 1개, 약간.

Recipe

1. 후춧가루 약간, 올리브유 100g을 무리없이 낙지에 넣어 10분간 삶아 익힌다.
2. 낙지에 후춧가루를 뿌린 후 녹여 놓은 버터를 약간 200g이 한천이 익힌다.
3. 낙지가 다 익으면 불을 끄고 페퍼마린 가루와 파슬리를 가루로 갈아서 낙지를 약간 후라이드한다.

POCOPUS

*낙지에 들어 있는 타우린 성분은 남성의 스테로이드를 증가시키고, 원기를 회복하곤 데 효능이 있다. 그 정도는? 인삼 한 근과 버건된다.

OYSTER

굴에 들어 있는 아연 성분은 남성들의 정자 활성도 및 성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남성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체력을 길러주는 대도 한몫한다.
키사노버는 불명 이 사실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을 듯.

생굴 & 레드 소스

생굴 20개, 레몬 1개,
석유 1개, 후춧가루 약간

Recipe

- 1 깨끗이 손질한 생굴은
껍질 한쪽을 떼내어
준비한다.
- 2 레몬과 석유는 즙을
내어 다 리필로 섞은 후
후춧가루를 약간 뿌려
소스를 완성한다.
- 3 생굴에 석유 레몬 소스를
간하여 먹는다.
특별 들레드 굴의 풍미를
배지 않는다.



TOMATO

매끈하고 새빨간 토마토는 의외로 정력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라이코펜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이 항산화 효과는 물론 남성 건강상에도 놀랄 만한 효능이 있다고. 농도 짙은 방울 농내고 싶다면, 새빨간 토마토를 먼저 배에 잘

토마토 구이 & 소시지 브란치

도마주르고계장만 토마토로
●재료: 7월의 소시지 1개,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올리브유 2큰술, 타임 잎.

Recipe

- 1 토마토는 깨끗이 씻고 소시지를 세선으로 잘친을 네 줄에한다.
- 2 팬에올린구연산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소시지를 구워준다.
- 3 소시지가 익을직전까지 구워지면 재빨리 그 팬에 토마토를 넣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한 후 노릇하게 구워준다.
- 4 기호에 따라 타임 잎으로 향을 더한다.

TOMATO

매끈하고 새빨간 토마토는 의외로 정력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라이코펜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이 항산화 효과는 물론 남성 건강상에도 놀랄 만한 효능이 있다고. 농도 짙은 방울 농내고 싶다면, 새빨간 토마토를 먼저 베어 잘 것.

토마토 구이 & 소시지 브란치

도미주브크레장안 토마토로
● 토마토 7알, 소시지 1개,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올리브유 2큰술, 타임 잎.

Recipe

- 1 토마토는 깨끗이 씻고 소시지를 세선으로 잘라 1cm 두께로 잘라준다.
- 2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토마토를 구워준다.
- 3 소시지를 1cm 두께로 잘라 구워준다. 구워지면 재빨리 그 팬에 토마토를 넣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한 후 노릇하게 구워준다.
- 4 기호에 따라 타임 잎으로 맛을 낸다.

-



homage :

editor lee kyungho assistant editor kim peonyou
model shin jiyong j. sunghyun hair & makeup artist ah nason



풍 속 도

風俗圖

해한 신윤복과 단원 김홍도,
그리고 장재 최우석의 그림 속 사람들이
21세기로 걸어 들어왔다.
매종 드 아영희의 환복을 곁에 얹은
아들이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며 그려낸
사랑의 풍경.

photography
by
lee junghoon



해한 신윤복 - 「기타령」, 《풍속회화》

신윤복의 「기타령」은, 「단원도」와 같은 저명한
한 19세기 명화이며, 남아지붕은 이를 재구성했다.



여자가 입은 브레지탈의 하얀도령주 재킷과 치마와 신발, 남자가 입은 보시 도모와 세츠미, 보시 재킷과 하바지, 갓과 샌들. 신발은 모두 **MAISON DE LEE YOUNG HEE** 제품

해원 신윤복 - "별마침탄", 《동국사림》

신윤복의 풍속화는 일찍이이나 후대의 여도에
가려온 풍류와 남녀 간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 이 그림 역시 젊은 남녀의
영화를 세련있게 묘사하고 있다.





남자가 있는 종횡무, 보시 제과리와 비지, 여자가 있는 고향 시즈루 제과리와 황제 지만, 국 가락지는 모두 **MAISON DE LEE YOUNG HEE** 제품

배경 인물록 - 미상, 《종속리향》

산문체의 종횡무는 단숨에 삼 천년 상연로
그리기였다. 사립을 소제로 한
이웃가를 담았다. 이런 점에서 종국이나
일본 문화와 무성의 구별된다.





王蒙《荷风图》局部

王蒙《荷风图》局部，图中人物为画家王蒙自题。图中人物为画家王蒙自题。图中人物为画家王蒙自题。





매월 신상곡 - 마상, 《간담(甘淡)》

매월 속 백상과 매월로 모아 노는 한식과
매월을 가리한 신상과, 젊은 여성과 관계를
맺은 매월을 수 있는 속상과 관련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남자가 입은 군복에 이어 유재석의 군복이 등장한다. 유재석의 군복이 등장하는 장면은 지그재그로 실패를 맞기 때문. 거장인 배우 MAISON DE LEE YOUNG HEE
가장 인기 있는 배우인 김민준이 '영웅' 시리즈로 KWANG JUVO 지를





황태 최우석 - 여왕, 《후회》

중국 춘하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조선 말기의 작품이다. 중국 춘하의
한국화되어 영 고부서 정격을 강하게
표는 것이 특징이다.





영주홍차 — 꽃을 피우는 여인

2009 속의 여인과 여성성(女性性)을 목표로
 디자인한 영주홍차를 손질하는 무명도는
 프랑스의 꽃집 디자이너 출신이자
 영국의 초콜릿을 디자인하는 올림피
 표지 그라운드 사용했다.



야한 상상

먹을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야한 생각만 했다.
그게 나쁜가?



"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콜라토레스 같네." "소시지는 너무 직관적인가?" "또머트는 식감이 어때?" 1월호 스페셜 이슈의 푸드 회보를 만
들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온갖 야한 시선과 상상을 주고 받았다. 자신의 생각을 "그거 있잖아, 그거" 같은 말로 예뻐하지 않았다. 우리라
도 그제야 할 것 같았다. 일종의 (물론이겠지만)식시명감일지도 모르겠다. 착어도 에로타시즘과 엑스에 관해서 말할 때, 내 마음을 알아달
려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 한국 정서를 이해하되, 그 뒤에 숨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에로타시즘을 파헤쳐보고 싶었다.
이건 무코리온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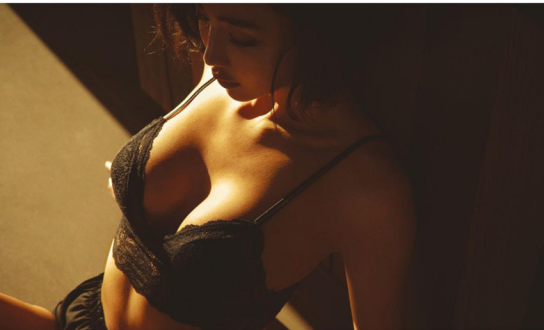
PLAYBOY

LOVES:

당신의 상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만큼 뜨거운,
1월의 <플레이보이>가
사랑하는 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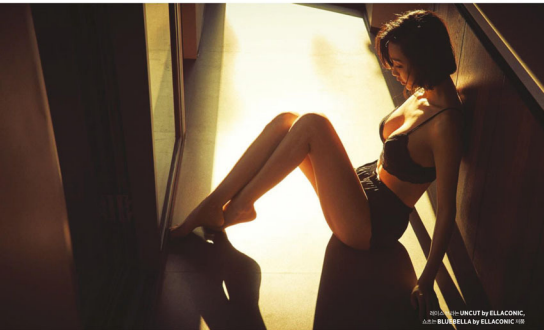
브래지어와 팬티는 모두 UNCUT by ELLACOMIC, 속옷은 BLUEBELLA by ELLACOMIC 제품





Prima

"자신 처음 디제잉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DJ가 될 줄 몰랐어요. 취미로 시작한 건데, 어느새 그 앞에 희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수 활동을 접고 DJ가 됐어요." 아이돌 그룹 나인뮤지스의 명성을 위로하고 처음으로 올라가 DJ로 데뷔를 한 라나에게서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하기보다 언제나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과 건강한 몸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여성 말이에요."



레이아웃: 레이는 UNCUT by ELLACONIC,
스타일은 BLUEBELLA by ELLACONIC ©JRM

2018년을 여는 첫 번째 플레이메이트
DJ 라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좇는 방법에 대해 들었다.

photography
by
ahn jooyoung



서 스킨에기타(탈복)가 연출된 코리얼 드레스는
MURMUR by ELLA CONIC 제품







스타일 잡서적 **FREE PEOPLE** by ELLA CONIC 지음
가운은 에디니 스타일







세라믹 타일® ELSE by ELLACONIC®
세라믹 타일은 모두에게다 소중한



생일 8월 4일
별자리 사자자리
혈액형 A형



DJ RANA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것 모험에서 가수, 그리고 지금은 DJ로 또 다른 시작을 했어요. 다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했을 때 후회가 제일 적어요.

나만의 무대 제가 모험과 가수 활동을 해서 그런지 DJ 부스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DJ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일을 하지만 제게는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간 무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파티나 공연의 내용과 장소에 맞춰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무대 스타일이나 조명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음악 외에 다른 것으로 돋보이려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하루의 무대를 그럴 게 준비하는 게 제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바꾸고 싶지 않아요.

다 같이 박수 DJ세임을 할 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동향을 주시하는 편이에요. 그 날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 보면서 음악을 틀거든요. 일부러 준비하는 제스처는 없는데 박수를 자주 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보컬이 나오는 부분에서 다 같이 박수 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함께 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사소한 행복 특별히 대단한 걸 바라지는 않아요. 언제나 주위의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차를 타고 지나다 볼 석양이 아름다울 때, 낱파가 따뜻할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사람과 있을 때 등,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 첫 음베어리스트 신뜻하게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면 Juncoco, Advanced의 'Atmosphere (feat. 에일리)'를 추천할게요. EDM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듣는 순간 금세 기분이 들뜨는 곡이에요. 에일리의 사익 보컬도 매력적이고요. 반대로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Kuntac의 'Heart of Glass'가 좋겠어요. 해운이를 볼 때 배경음악 삼기 좋을 거예요. 🍷



@dj.rana.official



HAPPY NEW





YEAR!

미국 플레이메이트
브리짓 멀린과
함께하는 새해는
기분 좋은 웃음으로
가득하다.

photography by
jason lee parry











미국 블레이어리프트 브라릿 말컬은 자이클롭스키, 슈트라우스, 말리를 좋아하는는 오보에 연주자다. 호주에서 태어나 뉴욕과 LA에서 활동 중인 브라릿은 클래식 음악가들 뿐 아니라 화물 대부문의 시간을 연주에 할애하자면, 자체에는 집에서 채식주의자인 자신을 위한 요리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말컬의 웹사이트 BridgetMalcolm.com.au는 건강한 몸과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늘 최상의 상태를 추구하는 그녀는 화보 작업에 대해 "일본 아메리칸 음악가는 숙제"라고 표현했다. "저는 사람들이에게 전제를 삼아가지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느 날 되 돌아보면 꽤, 단 한순간이라도 진실으로 삼지 않은 것을 후회하진 않지 않다면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

영양을 해하는 건 어렵지요? 만약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아하는 일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 이유를 수백만 가지 대고 해요. 그러나 니카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항상 행복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인드 컨트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언제 건강에 더 집중해야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10분만 투자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메뉴

호주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저러옴로 코일라' 초콜릿 바가 그러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해서 음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 채식 타이 커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게 최고일 거예요.

블레이어리프트

올리우드 맥을 즐겨 먹어요. 투고립자만 레드 핫 칠리 페퍼스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곡은 키크스의 'This Time Tomorrow'예요. 이 곡은 제 세계관을 바꾸어줬거든요. 노래 속 주인공이 비행기 안에서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어디로 갈지 하고 있을지 생각하는 이 순간엔, 그 나이가 하지 제게 전제를 삼아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물하게 하루를 보낸 걸 돌아보면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BRIDGET

MALCOLM

*Bridget
Malcolm*



잡히는 것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건 한때를 얻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그간 연주를 하는 동안 모든 관객에게 나를 조금씩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내 능력에 그걸 뒷받침해줘야 해요. 너무 겁나는 일이에요. 그걸 완벽히 해낸 순간의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즐거 보는 TV 프로그램

지금까지 살면서 라임라이트 프로그램을 본 시간은 채 10 분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티나 파이(Tina Fey)는 정말로, 연예인 중에 가장 재미있어요. 그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특히 그녀가 연대해 인문학자들에게 다른 여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껴요. 당고 때로 흥미로워요.

다이아몬드 링

골스는 무조건 좋아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항"이란 손톱이 기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저 자금을 즐기며 사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와 함께
매일날 꽃 호주 사무소 브리릿
사는 것 부록



@bridgetmalcolm

@bridgetmalcolm







THE ESCAPE ARTIST

사진가 몰리 스톡은 풍경 속에 자신을 던진다.

photography by nate walton

몰리 스톡(Molly Stock)은 이제 사진가가 되려 한 적이 없다. 겨나 전, 그녀는 대학교에서 식물학을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는 학생이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원래 사려던 차는 커녕 사진을 찍어볼까 하고 모야놀은 뜯어치 다 싸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죠." 그녀가 말했다. 지금 그녀는 27세의 사진가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촬영을 위한 자금을 만들고 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엔 '주로 밖에서 고독을 즐기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다. 6만 명이 넘는

그녀의 팔로워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담〉을 연상케 하는 그녀의 삶을 사랑한다. 몰리는 카메라를 들고 인간성, 휴머니티에 대해 탐구한다. "만약 내가 베트남 전쟁을 겪은 세대로면, 난 전쟁 사진가가 됐을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에 끌려요." 몰리가 말했다. 그녀는 최근까지 오두막에서 60대 히피들과 함께 생활했다. 직년엔 화물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가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말법하지 않은 라이프스타일에 흥미를 느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저 역시 위험해지더라고요. 겪는 일의 반도 부모님께

말할 수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야 슬쩍 얘기하는 정도죠. 그래서인지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지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지. 어쨌든요, 저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성적으로." 몰리에게 〈월담〉에 자신을 노출하는 건 앞으로 이런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 자신을 이런 위험에 노출하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요. 내가 하는 일의 진실함을 믿어줬으면 하고요. 전 자유로워지고 싶거든요." ●















DOGGY STYLE

무술년이 밝았다.
독특하고 솔직한 개의 해를
기념하는 아이템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을 것.



"Dogs never bite me. Just hum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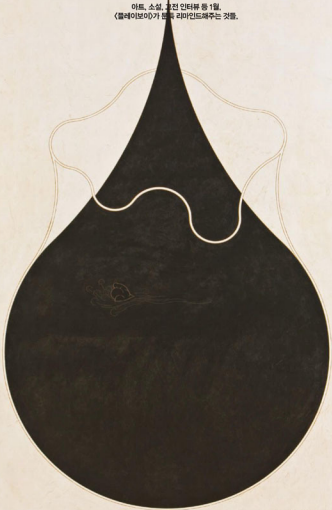
개들은 날 물지 않아요, 사람들이나 그러지.

—
헤밍웨이 연로

PLAYBOY

REMINDS:

아트, 소설, 고전 인터뷰 등 1월,
〈플레이보이〉가 행복 리마인드해주는 것들.



이름-눈물(A Fish Bow-Tears), 148 x 95cm, 2011

ARTIST IN RESIDENCE • CARTOON • FICTION • CLASSIC • INTERVIEW CLASSIC • CARTOON CLASSIC • PLAY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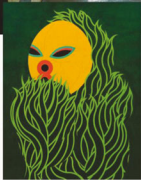
ONE IN A HUNDRED

YANG DAEWON

불편한 진실을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 양대원의 세계는 누구와도 닮아 있지 않다. by 반이정



창대원 작업실은 남양주 덕소의 초창한 미술관에 작업실을 만들어 자신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의성-숲'(Voice-Forest), Min A Nam, 2009

창대원은 웹 아티스트가 아닐래도 자신을 대표하는 '돌굴인'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미술 작가다. 5년 전, 그는 평론할 일이 생겨 그가 살던 남양주 덕소의 작업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 수도권과 동떨어진 자리에 머무는 미술가의 삶은 어떤 것인지 물었는데, 그는 "남양주 덕소는 수도권이요! 예요.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서울과 가깝다고 할래요"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삶과 파격과는 다른 삶을 지향함을 부인하진 않았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부연했다. "저도

꼭같이 매일 작업실로 출근합니다. 그렇지만 제 삶의 지향점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작업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작업의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되어 세상 속으로 넓게 또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는 수년 전에 창대원의 작업실에 관해 논평하면서 그의 작업이 '눈노, 위장, 자기 완결성'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봤다. 특히 그림 속에 자객처럼 등장하는 '돌굴인'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세상이 불편한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자신에게 창작 행위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대적 감정을 인간성으로, 문자로, 무의미로 풀어내면서 그것에서 만들어낸 내만의 독자적인 미감을 나 자신과 누군가에게 전해보고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특히 창작 행위를 통해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게 됩니다. 창작을 통해 죽음을 연구합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미술 창작 행위를 책을 읽지 않고도 무언가를 아는 경험을 준다"는 고백도 덧붙였다. 창대원은 모두가 자신의 작업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소수만 좋아한다면 그게 통쾌이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통쾌하는 주장이었다. 동시에 미술이 취향이 다른 불특정 다수를 만족시켜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서

울과 동떨어진 곳에서 미술 창작에만 몰두하여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며 자납까? 이에 대해 그는 무덤덤하게 답을 이어갔다. "아는 날 교류의 의미가 깨달음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허망했습니다. 예술가의 교류? 무엇을 위해?" 그의 그림에는 '눈물'이라는 도식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는 "눈물의 의미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편한 마음'입니다"라며 언젠가 누군가와 작품에 관해 나누는 대화를 들려줬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 "당신은 너무 편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창대원은 이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다. "왜?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강한 자기 고집은 그의 작업 연대기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세상의 무수한 부조리에 대한 창대원의 '눈노'는 '위장' 뒤에 숨겨져 나타나며 언제나 조항적으로 자기 완결성을 띤 작품으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미학 속은 가치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편향적인 세계관이 합해서 결과적으로 온전한 세계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가족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요. 결국, 인간은 온전하지 않으니깐요."

창대원은 연가희, 이시자, 이시진 등 다작한 예술에 있어 비평을 면치한 미술 평론가고, 그는 아티스트의 삶, 창작의 관점에서 당시, 후천 위원을 지녔다.

《泪》(Tears), 148x105cm, 2015



《拥抱》(Embrace), 131x101cm, 2014



《安静》(Quiet), 111x102cm, 2011



William S. Burroughs, "The Stranger", 1980, 146 x 104 cm, 2010

Modern Romance

남들 눈엔 내 삶이 완벽해 보일지 모르나,
 좋은 직장에 높은 직위까지 가진 남자니,
 게다가 내 사무실은 그 유명한 엔지니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다. 그중에서도 전광
 줄은 참가 자리를 쓴다. 게다가 지금 내
 몸 안에는 이토록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필요한 건 모두 가진 삶이랄까. 그러던
 1957년 미시간 날,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대답은 당연히 'Yes',
 그런데 그 후로 내 결정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뉴스테드라는
 여자가 과연 내 운명의 여자일까?"
 머릿속이 빙빙 도는 기분.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을 단단히 교체하게 된 시간이
 밝혀졌다. 돌이켜보면, 비싼 수업을
 지불한 셈이다. 그 사건은 바로...



하지만 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야 했고,
 결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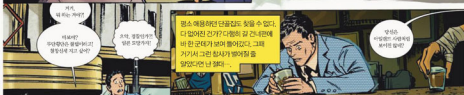


나는 뭐든 쉽게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하지만 결혼만큼은...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없는 기분이다.



마침내 묻어 열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에디슨. 소울가터로 특수서비스 일을 하는 여자였다. 뭔가 있긴 있었어. 참신 차를 세도 없어 그녀는 나를 데리고 이 낯선 서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언뜻 여기가 미래라면, 내가 여기 왔다고 혼란을 질까? 내가 살던 세상과는 일말도 나뉘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녀는 기가 센 여자였다.



저와 CO들이 몰리?
저 장난으로 놀아서는 안되는 시키는
사 그래야하니까

이, 그래. 정말입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미래엔 테이백을 이런 식으로 하려 하지? 술 물릴 틈도 없는데 말이다. 내가 할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않는 다음 일을 하고 있어. 참신함이 계속 흘러가까만 하잖아... 심지어 여간 내가 좋아하던 스타들도 다 죽었다고 했다. 양을 면티가 죽었다니. 믿을 수 없다. 할가? 루시도, 알록 상사도. 심지어 글러스퍼저

에디슨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어디서든 자기 집 안밖 같다. 친도를 쉽게 깨는 것도 좋아함. 그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아직 이 세상은 적응도 안 됐는데, 낯설 연한엔 나를 데 데려와 보려는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그녀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제, 아무 데나
잡아들어가

다들 움직이는 이런
곳이 내 자리야. 손을
넣을 일이지!



내 침울함이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저지르고 땀
그 양으로 눈물 흘리는 거야.
그놈 저놈들
잡아들어가 땀이든

원할까? 로딩이
왜 그래?



공부 나한테
대기만 하라?

음, 나 과장할 줄
다녀하네.

원한 선택했지.

지금 이 모든 일이 끝나려면, 분명 역풍이여, 나는
이 자막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걸까?



자막 본사까지
남아있고파함.



어떻게 저런
심정을 찾아야 할까?

눈치팔지?
난 아주 나쁜 남자야.
최악의 악당 같은 존재야.
더욱, 이봐!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백이슨—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당분간 알지도 못할 거야. 난 이 세상과 안 맞아.
물어볼 게 많아. 히어! 히어! 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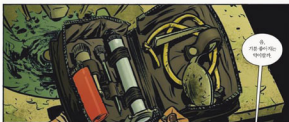
다른 날
모라를 수 있다면
좋아해



그대, 막 가지마.
내가 금방
해줄게.

참?

그게 뭐야?



음,
기름 줄이기는
아쉬워.





여기부터 뭐지? 몸에서
엔진이 빠져 나가는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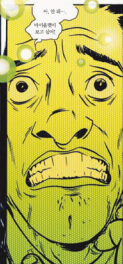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날 내려다보고 있다.
유령이라도 된 걸까. 이런 건 쇼라쇼에서나
본 거라고!

저, 잠깐—

저, 잠깐—

죽는다는 게
아닌 건가?



저, 잠깐—

여기들한테
포도 살이



실고 싶었다. 그래서 죽기
실기로 도망쳤다. 어릴적은
거기서 벗어나야 했으니만큼

스만!

당장
끌어오라
못해?

죽을때까지
공 제야?



밖으로 나갈지언, 달려친 건
없다. 여전히 나는 이 미친
세상에 있다.

뭐?

세면?

아니

이 조실해야 할 거
아니



현황— 여기서 가볼 곳이라고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으로
뒤돌아갔다.



내 모든 것을 잊어간 그곳 말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스승처럼
당신 말이요?



슬픈
이야기를?

여기서 뭐 하는
가세요?

내가 당신을
찾아나 왔습니다
말이요?

그녀를 다시 품에 안으니 집에
돌아온 듯 따뜻했다.

놓쳐주려고
당신 품에 아무것도
흔들지 않는데,
생각없이 다가...

나도 당신에
여기 있는게
좋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감없이,
이제 내 품에서
비난하지 말아요!

여기 당신과
함께 일어난
사건 날 놓치지
말아요!

놓치지 않음에
만족해!

이제껏 완벽한
여자를 두고 조금
결하지 난 무슨
생각을 한 걸까.



그녀가 날 찾아내다니,
기뻐서 눈물이 날
지않았다. 조금 전까지
경험한 끔찍한
세상을 떠올리면...
우리가 만난 건
나쁜건 아무것도
그에게게도 다행한
일이다.



그런 세상을 비웃듯처럼
작한 여자가 혼자 해태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gini

유리의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갇혀 있을 뿐,
나는 유리의 감옥에서 내 몸을 풀어먹으며 우주가 되었다. by 강정

감옥



그저 나무 탁자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었다. 그런데, 커다란 밑게 길은 게 나를 가뒀버렸다. 나는 순식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래도 이곳은 대체로 부엌이다. 간혀 있지만, 빛이 없는 건 아니다. 외려 너무 부엌에서 간혀 있지 않을 정도다. 바깥이 더 신명나게 보일 정도다. 그게 더 나를 달갑히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미끄러운 유리 속이지만 딸들의 근근한 등기 때문에 움직이지 힘들지는 않다. 몇 차례 어둠때론 집과, 등글고 검죽한 이 세계 공간의 넓이와 크기는 금세 같이 잡혔다. 커다란 돌출의 유리 자갈이 놓이 리 있고 바닥은 평평한 나무 재질이다. 저 인간은 소위 유리컵이란 걸 거꾸로 얹어 나를 가뒀버린 것이다. 그 저 빠른 성찰이 나를 더 절망으로 이끌었다. 내 근력으로 도저히 컵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다. 흔히 바깥이 보이는 데 멋이날 수 없는 갑옷이란 게 존재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 아닌가? 그러나 낙담하기엔 아직 이리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저 인간도 단지 재미 삼아 나를 가뒀을 것에 불과할 것이고, 이 안에 갇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하면서 한동안 구경만 하다가 나를 놓아줄 거라고 여겨본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언제나 현재에 집중하는 게 나의 본성 아니인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건 스스로를 갇아매는 것이나 다름없다. 창문간에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여 위해 행동반경을 제한당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내겐 어떤 장소든 나의 영역으로 만들 줄 아는 자궁 최고의 공간 설비 능력에 있지 않은가. 그것은 나의 궁극적인 본능이자 자살의 어떤 생명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 주신 아름다운 재능이라 자부할 수 있다. 어쩌면 그 능력이었을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일지도 모른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저 어느 날 나와 유사한 형태와 성질을 가진 누군가의 몸에서 빠져나와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본능과 재능으로 한 사를 살다 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선 어떤 불만도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보다 크고 내가 무리 해볼 커져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의해 순식간에 구속살이를 하게 된 일은 매우 부당하다.

내가 이 집에서 한 일이라곤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희진 곳에 줄을 치서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는 것밖에 없다. 인간을 귀찮게 하는 해충을 잡아먹는 것. 그런 외려 인간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는가. 하지만 인간에게선 자원이 재고라는 모든 편의를 자신의 노력과 공력에 의한 것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있다. 그들은 심지어 그러한 자원을 파괴하며 이득을 취하는 게 자신들의 권리의자 본분인 줄 착각한다. 바퀴벌레나 모기 따위를 보고 질책하는 인간들을 향해 그들에 비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용하고 참군한 생물인지 굳이 설명하고 싶진 않다. 인간에 따라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내가 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취향이나 호오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있다. 저 인간은 왜 나를 킁속이 가 뒀이었을까? 내 생각이나 행동이 흥미로워서? 오랫동안 나를 가둔 채 감상하려고? 아니면 맛있게 사소한 악취가 났을때 나를 곤재에 빠트리려고? 그렇게 죽여가는 나를 무슨 신의 사안인 양 묵도하여 혼자 킁킬거려려고?

많은 가정이 가능하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저 인간은 나만 존재를 그저 자기 일의대로 속박하고 괴롭힐 수 있는 한낱 바퀴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게 확실하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선행을 베풀거나 악행을 범하는 건, 그리하여 허영과 쾌감을 충족시키는 건 인간만의 유구한 독선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이 따져보진 않았다. 당장 내가 몸두 해야 할 일은 갑자기 들어온 행동반경 안에서 어떻게 유선하느냐 하는 것뿐. 예기치 않은 한재에 부닥렸을 때 자살이 아닌 모든 의심과 재능이 최고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바깥은 여전히 신명하고, 그만큼 겁안락은 더 답답하고 포뮬하다. 호흡의 간격이 일순간 출출해진다. 우선, 전후좌우로 줄을 뻗어 가장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애쓴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이 안에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유리막 너머 작은 파리 유충 따위가 사이에 어는 거리지만 아무리 줄을 뻗어도 키에 닿을 수가 없다. 똥지나 자신이 나의 노력 안에 갇혀버린 것만 같은 기분. 문득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채 오래되었다.



사위엔 내가 좋아하는 줄들이 잔주위로 뒤얹혀 복 잡한 비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로가 복잡해질 수록 편지 나를 가둔 저 인간이 아니라 나 자신이 라는 생각마저 든다. 한정된 자리, 한정된 형태 안 에서라도 내가 집을 짓는 방식엔 일정한 패턴이 있 다. 대체로 방사형에서 시작해 커다란 원형을 형 성하게 되는데, 줄을 계속 댈다 보면 공간의 유형 에 따라 갖가지 형태로 굴절되거나 왜곡되어 전혀 예상치 못한 구조물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 려면 전혀 다른 방향과 커리커리 뻗어나가야 하 지만, 이 안에선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 아무 리 줄을 댈리 보려고 기리가 한창되어 있는 탓에 결국 최초의 그물 안에 미숙한 형태라도 다른 그 물들이 뿔뿔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내가 기점으로 삼은 그물의 장력이 희 물어져 안정감이 사라지게 된다. 불안이란 외부에 의해 조성되기도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저 외부 자극에 의해 내 본능의 구심이 흐트러져버린다는 데 있다. 마치 산이 주신 나의 재능과 본능이 제압 이 되어 나를 나락에 빠뜨릴 것만 같아 초조해진 다. 허기 또한 더욱 극렬해진다.

나를 가둔 인간은 가끔씩 협 속을 의심히 살펴보 는데 그때마다 나는 마치 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다. 인간의 눈길은 매우 흉악하다는 태세

도 없는 동물삼아서 일 지경이다. 차아가 있다면, 나는 간에 있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지만 저 인 간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누 가 더 불행한 것일까. 하지만 허기가 심해 더 이상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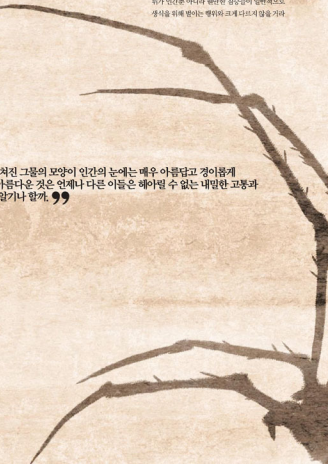
인간의 눈이 멀어지간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사 위가 아지러워진다. 꿈에서 막 깨어났거나 잠만 깨었다가 다시 나락 같은 꿈속으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이 통상에 진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결과, 답 을 낼 순 없지만, 내가 나의 외부에 의해 거꾸로 나

자상에 갇혀버린 것이라는 사실만큼 확실해 보 인다.

두 인간이 별지냈든 채 줄을 겹쳐 올을 쓰고 있다.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가운 그 위에 얹었던 자세로 각자의 머리가 시도의 아랫도리를 향해 있다. 시 도 결코 밝고 맑은 황궁인데, 어스란 산을 소리가 들려오기 하지만 그제 그 동을 의미하는 지 재락을 의미하는 지 분간하지 힘들다. 수컷 인간의 아랫 도리엔 커다란 근육들이라 매달려 있고 알갱이 씹음은 깊은 수풀이 가득한 켜. 자세한 모양을 살 피기 힘들다. 다만 그 형태와 쓰임새 수컷과는 다 른 가라는 추측은 가능하고 저들이 하고 있는 행 위가 인간뿐 아니라 관련된 짐승들이 일반적으로 생식을 위해 보이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기라

66 하긴, 투명한 유리 안에 난반사로 펼쳐진 그물의 모양이 인간의 눈에는 매우 아름답고 경이롭게 보이기도 하겠지. 그러나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다른 이들은 헤아릴 수 없는 내밀한 고통과 갈등의 소산이라는 것을 저 인간이 알기나 할까. 99

다. 하긴, 투명한 유리 안에 난반사로 펼쳐진 그물 의 모양이 인간의 눈에는 매우 아름답고 경이롭게 보이기도 하겠지. 그러나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 은 언제나 다른 이들은 헤아릴 수 없는 내밀한 고통과 갈등의 소산이라는 것을 저 인간이 알기나 할까. 이 아름다운 속으로 들어와 같이 어울려 굴 아육기관을 기다리자고 한다면 과연 어떤 존재가 이 험악한 노역에 동참하려 들 것인가. 갑자기 육 자기가 치밀어 오른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나를 이곳에 가두고는 놓아주지 않는 것일까. 투명하 던 파란은 줄이 뿔아간데 따라 조금씩 굴뚝이 생긴 상태다. 나를 들여다보는 인간의 눈 역시 본래는 어떤 사생들이 뿔뿔히 끊어 간 유리공처럼 보인 다. 흉사 제진 각자의 단호정 속에도 나로, 인간도 같 해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역울한 심 정이 조금은 가라앉는다. 저 인간 역시 나처럼 어 단가에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자 락



는 확신은 있다. 그럼에도 약간 이상한 점은 있다. 왜 저들은 서로의 '그곳'을 업으로 품고 있는 것일까? 인간은 알아 생각인 것일까? 여정은 조금 지로운 발전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상대의 신체 부위를 개념스럽게 흡입하고 있다. 살기 위해 빨아들이는 것 같기도, 지극 당당 시간의 흐름을 청지시킨 채 같이 죽어가고 용을 쓰는 것 같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필사적인 통시에 허당해 보인다는 결에선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우리 종족도 꼬리 후에 알갱이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서로를 업으로 품고 빨진 않는다. 나 역시 알갱이지만, 수컷들은 그저 특정 주기에 맞춰 내게 접근해오시는 자산에게 주어진 자연의 책무에 헌신할 뿐, 잡아먹힐 그 자체에 대한 공포나 불안은 느끼는 걸 좋은 적은 없다. 나는 수컷들에게 어떤 책대강이나 분노도 느낀 적이 없다. 책대강이라니, 자연이 정해놓은 생식의 법칙에 얽수 간 책대강이 살경되어 있을 것이므로 상상이 되지 않는다. 진밀강 또한 마찬가지. 나는 나로 교미했던 수컷들의 성질과 성질에 대해 고민하거나 다짐은 적이 없다. 그것은 그저 세 줄을 뽑아 짚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나의 기본 생물에 불과할 뿐, 수컷들에게 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럼에도 제 인간들의 행태엔 우려에게선 드립 수 있는 여러 미묘한 감정적 극점이 존재하는 듯 보인다. 순조롭다. 눈짓 하나에도 단 순한 열광을 베풀어낸 책상이 활짝되어 있는 것 같다. 알갱이의 요구와 수컷의 요구가 이렇지 않으나 실제 행태 이상의 기묘한 긴장감이 조성된다. 가만히 있고 싶었다. 흥미롭기 짝이 없다. 저들은 유라나 안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 입안에 저미 있는 구경지리가 생긴 셈이다. 허기가 있을 거라 믿는 느낌이다. 무엇인가에 빠져 있으면 몸의 실제 무게감이나 긴장이 느껴지는 것도 나는 자연의 일면적 질서와 여기는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좋게 있다. 그리고 지금 서로의 몸을 물로 뽑는 제 인간들도 포획되어 있는 자연의 질서란 지극하게 명징하고 또렷하다. 먹고 버리고 죽고 죽이는 것. 그렇게 끊임없이 윤회되어 거들거름 유사한 종족을 번식시키며 스스로 자족하는 것. 거기에 바하인 감각이 갈수록 있다는 절망감 따위 하잘것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동안의 요동 끝에 인간들의 몸이 떨어졌다. 그들이 떨어지는 순간 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 조그만 유리의
궁륭 아래서 영원히
빛어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하지만 절망은 계속
유에되어야 한다.
조만간 저 인간은
유리컵을 뒤집어 나를
놓아줄 것이다.”

처음에 인간의 생기가 일민을 알았던 건 착각이었다. 한참 비슷한 동작을 지속하던 인간들은 어느 순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형태로 몸을 바꾸더니 수컷이 알갱이의 수를 속대기 기다린 근육들이 러를 주서 넣고 일정한 박자에 맞춰 알갱이를 흔들었다. 알갱이는 알다리로 수컷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비슷한 동작을 꽤 오래 지속했다. 움직임을 갑자기 저해한다 싶은 순간 수컷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들쭉 근육 덩어리를 떼더니 알갱이의 배 위에 휘둥둥 액체를 벌컥벌컥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일순, 사위가 격박했다. 나는 이런 걸 절로 몸으로 체감한다. 맥이가 졸에 걸렸을 때 온몸으로 전해지는 팽팽하고 날뛰는 진동. 판단과 흥이 이완에 붙어 멈추 반쯤이 시간이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선행과 집중의 파동. 대개 허기는 그렇게 해결된다. 하지만 지금은 유라나 안에 갇힌 제 인간들의 이상한 동태를 감상하느라 잊고 있던 허기가 풀어진 실마리처럼 뱃속이 끓어온다. 행위를 끝낸 인간들도 온 몸을 나누어 각자의 몸속에 품어둔 시간을 다시 조이고 있는 것 같다. 유라나 속 굴들의 장력이 순식간에 밀도를 상실한 느낌. 다시 사위가 어지럽다. 유라나 한창 위에 걸친 일면 줄들이 힘없이 흐트러져 내 몸을 밀쳐를 것만 같다. 나는 나의 본비를 속여 감히 제 자신의 맥이가 되어가고 있다.

인간들이 나를 들이든다. 아까는 내가 그들을 구경했더니, 이제 그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다. 인

간 수컷이 알갱이에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다. 알갱이의 눈빛은 절정에서 떨어지던 혼란의 피로와 무언가 비어있던 것을 채웠다. 총명한 열기가 존재해 있다. 그 눈빛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의 초점에서 맛당따르며 켜진 곡률과 인간의 기운을 풍사해 제갈하는 기분이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유리의 궁륭 아래서 영원히 빛어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하지만 절망은 계속 유에되어야 한다. 조만간 저 인간은 유리컵을 뒤집어 나를 놓아줄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희망의 당위와 절망의 숙안이 교차하는 한순간, 온몸이 울스르르다. 어떤 경우는 확실하지 않다는 게 지극당당 내가 겪고 있는 불안의 핵심이다. 희망을 놓아버리는 것과 절망 속에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



라는 건 어떻게 다른가. 반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기어이 죽고야 마는 것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인간들이 내게서 시선을 뗀다. 그러고는 이내 웃을 주삼주삼 깨집고는 바깥으로 나간다. 그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단막 같은 게 육종하게 내리 닫히는 기분이다. 나는 다시 구경지적조차 못 되는 바탕에 불과해진다. 인간들이 나를 바라 보거나 내가 인간들의 행위를 관찰할 때면 잠시 잊고 있던 허기가 다시 불려온다. 온몸의 감각이 한

층에 밀려진 듯도, 한층 둔감해진 듯도 하다. 더 이상 줄을 뽑아낼 기운조차 없다. 살아보고자 무언 하도 가실한 나의 줄들이 나를 옥죄는 폐가가 되어버렸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흡사 내가 내 몸 바깥으로 빠져나와 매달려 죽어가는 나를 관찰하는 기분도 든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좁은 유리관옥 안에 살아 있는 육체는 오직 나 자신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 내 몸을 먹는 것이다. 어차피 이래도 말라 죽을 것이라면, 나의 죽음을 오로지 내 몸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고동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닐 것이다. 나 스스로 내 몸을 삼아먹음으로써 완벽한 무(無)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미도 일견도 아닌 그지 몇 분 공허 그대로 자살에 남아 있는 것.

돈 먼저 앞다리를 틀어놓기 시작했다. 아랫으나, 꼬리 중에 수컷을 잡아먹을 때와 비슷한 충실한 같은 게 느껴졌다. 일탈결에 감옥에 갇히면 살이 후련한 사고나 불행이 아닌, 나만이 수컷할 수 있는 유일한 천벌처럼 여겨지면서 몸속에서 맺힌 물결이 올라왔다. 구역과 탈각이 번번히 복귀한 충동들이 그렇게 지속됐다. 다리를 하나하나 틀어먹고 나자 몸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온몸이 입이 되어 나는 나를 삼키고 있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토르프자루 뿌리져서 되삼켜지고 있었다. 외부로 뿜어 있던 물이 내부로 다시 수렴되는 복귀한 여진과 변태(變態), 그렇게 서서히 물리력을 상실하며 사자레가는 것. 문득 아까 인간들이 서로의 몸을 거꾸로 삼고 빨던 그 행위가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을 비로한 쾌감, 그제 생식 행위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온갖 감정의 제

개 따위가 이해되는 듯싶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일 때면 몰랐던 또 다른 어떤 개체와의 접촉이자 그 갈등의 육체적 실현이었다. 나는 나 자신과 교미하는 중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하나 버린 내면 우주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내면에 갇힌 우주를, 나 자신을 삼림으로써 재워내고 있었다...

몸을 다 삼키고 나니 내가 뽑아낸 줄들이 유리컵 안에 엉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사라졌지만, 아니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삼았던 흔적들이 더욱 명백하게 내게 아직 실존함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내 몸을 삼키고 나니 그 어떤 지구 속 공간보다 더 큰 공간 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몸을 걸러내 더 큰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 같기도 했다. 문득 우주와 공회전하는 소리가 들었다. 침묵이 가려졌으나 침묵 또한 소리가 존재하는 하나의 양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사라진 다음에 더 크게 들리는 침묵, 유리컵 속의 줄들이 정장 뭉고 있는 듯했다. 나는 기어이 소리의 몸이 되어버린 것일까.

유리컵은 여전히 탁자 위에 거꾸로 놓여져 있다. 그 안에 나는 없는 채로 존재하게 되었다. 나는 온몸으로, 그 어떤 인간과 쥐에도 들리지 않으면서 천 우주로 확장하는 궁극의 음악이 되어 있었다... ①

KIM BYOUNG DUK

<EXPERIMENT NO. 2>

김병덕의
실험은 인간
김병덕을
만나는 일이다.

김병덕은 친했다. 'Three Percussion & Double Bass', 'Dance & Drums', 'Piano Solo'라는 곡 제목을 보면, 어떤 악기를 썼는지 곧바로 알 수 있다. 음반 속지엔 곡마다 설명을 써왔다. 이를테면 "스네어 드럼에 브러시를 사용한 연속적인 비트 위에 2개의 할아리를 사용한 반복적인 리듬을 구사하였다." 같은. 종종 실험은, 정악 그 실험을 행한 사람에게는 실험이 아닐 수 있다. 실험이란 곧 익숙지 않은 것을 해내는 일이지, 그 실험을 벌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미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물론 음악가 스스로 걱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게 좋지 만 내가 너무 멀리 왔다. 작명부터 당장 실험을 해야 한다고 작정하는 쪽이려니와 할 수 없는 기호나 숫자 같은 것을 넣는다고하니 그 자위를 의심하겠지만, 김병덕은 진득 만족했다? 보다 흥미로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알고 같은 곳에 와 있는 것 같다. 'The DeepSynthesizer Solo'이라는 마지막 곡이자 음반의 종착역이 아닐로 그 증거일 터. 그는 이 곡에 대해 이렇게 썼다. "우주에 대한 신비와 감외심 등이 바탕이 되어 죽음으로 단 한 번에 녹음되었다. 오노로 녹음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녹음하지 않았다는 말, 즉, 그는 "여기는 실험실입니다"라는, <Experiment

No. 2라는 단순한 음반 제목을 내걸고 그곳이 높이 타인 양 여러 악기를 펼쳐놓고 장을 찍어 맛을 보듯 여러 장르를 탐험했다. 트라이드믹인, 참아리로 4분의 4박자의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피아노 투정을 열고 불협화음이 울보이는 세 곡을 연달아 쳤다가, 신문지와 산뿔기와 장고로 소음을 만들어내더니, 최후에 신사사이저로 우주에까지 닿는 식이다. 곡 사이 고민하는 사람은 내버려둔 것처럼, 중간중간 불규칙적인 실험이 있다. LP의 한 면이 끝났나 싶다가도 새로운 소리가 북쪽 등장한다. 불우함은 곧 시간을 잊는 일일 테니 그 또한 납득이 간다. "음악은 인간 그 자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음악이 우리의 삶과 인식에서 비롯될 때 그 음악은 참소리를 따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감동과 설득력을 지닌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대할 때 가슴으로 대하지 못하고 머리로 접근한다. 자신의 삶 대신 음악적 지식으로 음악을 대한다." 어린 실험을 꾸며볼까, 가 아닌 김병덕의 삶 그 자체. 음악평론가 김진욱이 속저에 써 동행한 라이너 노트야말로 명쾌하다. ●

서울의 신형 독립 레이블, 대한장래학교(나스)에서 음해 3, 4편의 의 (Experiment No. 2), (Pit Concert), (New T-mop)에서 알릴한 작품을 위한 음반 (Experiment No. 30)을 발행한다.

KIM, BYOUNG DUK



1970년대 코메디 방송 작가이자 흥미진진한 스파이 이야기를 담은 소설 《이스라엘 본드》 시리즈로 《블레이보이》 독자들을 세 번이나 흥분시킨 술 워런스타인 전직 신문기자로 활약하기에 급박한 마감 스케줄에도 익숙한 그는 우디 앨런을 향한 우리의 파란 체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글메이커(아주 레전더움(Legendary))에 위치한 우리 집 다락방. 내가 소스를 영화로 각색한 《오만 이야기》

오는 《블레이보이》 편집장, 후 테너의 목소리, "우디 앨런을 인터뷰하세요, 완전 천재야!" 그의 명연과 영망진창인 촬영장 중 어떤 게 더 골치 아픈지 판단하는 건 정말 어려울 일이었다.

"전장" 《블레이보이》가 발간 일주 때문에 아이제 영화계로 진출하려는 이상한 계획을 조금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테너에게 분명히 강아야 할 것이 있었다. 내 소설 《이스라엘 본드》를 만재하

다, 3. 할라렘 버클라익시 남송 앨범 제작 기획, 4. A 제단 행사 사화다가 무엇의 역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폭로 기사 '성악학자 미스타와 존슨의 인간 생활' 실험 중 그들이 직접 촬영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우디 앨런의 카리어를 줄기 위해 연변의 준비를 갖는다. 브런치코를 짜내고, 오자를 쓰고, 지프 라이더에 불을 붙여 인물을 살짝 태운다. 앨런의 테니저

90대의 괴짜 감독은 아직도 매년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영화를 극장에 올린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기술자 둘러가봤다. 우스꽝스러운 상황과 소란스럽게 벌어지는 대사. 1967년 《블레이보이》와의 만남에서도 그는 한결같았다. 가장 우디 앨런다운, 33세의 우디 앨런을 만났다.

SCREENWRITER
SCREWBALL

WOODY ALLEN

by
sol weinstein

photography
by
marvin koner



의 촬영이 한정되었다. 일종의 어린이 참조물에 갇혀 채찍질 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합성당은 '누가 O 양의 실정을 몰랐나, 미칠미칠한 날', '재복',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세요' 등의 노래를 연신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인은 전복 별첨한 척하며 "선생님, 이게 아픈가요?"라고 묻고, 나는 "당연히 아프지, 영창아, 계약서에 서명할 때 칠 잊으려고, 자, 어서 해봐, '날 채찍으로 때려줬던 다 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참이었다. 전화가 나에게로 들려

줄 덕분에 '완전 무명작가'에서 '조금은 알려진' 무명작가로 올라갈 수 있었으니 나는 책상 위를 박 치운 뒤 개가 발 악기 직전의 포즈를 취했다. 지금까지 먼저 채찍해야 할 일종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했다. "《스름이 된 캄비와와 필요있》 프로그램의 공동 집필자 찾기. 해리 케셀먼에게 제의 2. 배워 상담의 어떤 피아버커를 나의 캄비로 모시기로 한 계획 철회. 그는 분명 성스럽고 유식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유대교 회당 앞인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

에게 두 시간 안에 트럭 한 대가 1만번의 특수거리를 내놓으려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 "되는 대로 예기거리를 모으고, 그걸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고, 내 이름을 담아 《블레이보이》로 보내고, 원고로는 우리 집으로 부쳐지고 해줘요, 빠른 등기로." 그러자 그 자식은 전화를 끊었다. 아디를 가나 그런 자를 천재지, 《타이틀은 일본 스파이 영화로 멋대로 편집하고 다듬 해 만든 《타이거 울레(What's Up, Tiger Lily?)》(1966)

러방에서 우디 앨런을 '브루클린의 프그라든 소크레스' 대신 '질못 인쇄된 벙치 무늬같이 생긴 악몽의 작은 웃음꾼'이라 묘사했다. 미간 우디를 실체로 가자이에서 관찰해보지 않은 사람의 맹목한 날조다. "노 제임스먼과 헛바람의 율배미 사이에서 벗어난 미친 하룻밤의 신발"이라고 하는 편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어쨌든, 직접 그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첫 연극 《그 불을 미치지 마요》(Don't Drink

만? TV 토크쇼에도 출연하고, 영화 사·극에도 쓰고, 007 카자는 료(료)에도 출연했지. 지금은 연극을 하고 있단가?" 나는 대답했다. "기사님도 참, 이자간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려주시는군요. 그 대가로 요금을 전부 다 내겐소." 극장의 세 번째 줄에 자리 잡고 번죽이는 눈으로 무대 위에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오는 루 치코네. 케 이 매드퍼드, 그리고 연서나 로버츠의 모습을 관찰했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침묵이 1분쯤 흐른 뒤 '질못 인쇄된 벙치 무늬의 한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임》 정기 구독 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고, 녹음기 스위치를 커며 앨런에게 대들었다. 제발 아무 말이나 해달라고. "비틀." 그는 이 한 마디를 내뱉더니 다시 벙치 무늬 사이로 가며 들어갔다. "우디, 난 당신 편이에요. 진짜요, 당신의 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 흑어



The Walker의 리듬감이 벌어지고 있는 뉴욕의 모로스코 극장에서 그의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해니쉬의 비협조적 태도를 위로하고, 극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앨런의 성공 스토리를 짜깁수기 위한 공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중언거리는 소리를 들은 택시기사는 "아, 우디 앨런 얘가유? 10대 때 기획사를 찾아가 2만5000개의 조크를 팔아먹고, TV 시트를 킁본들 쓰고, 미국유머협회에서 개그작가상을 받고, 그러니차일리티 개그 클럽의 스트가 된 그 양

대본집이 너무 두꺼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그들이 들은 농담을 밑도 끝도 없이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사사」 우디의 본질실로 가며 생각했다. 「코르넬 헤르가 (영생에 한 번) Onco in a Lifetime」을 발표한 지 30년이 지난데, 아직도 브로드웨이는 나아진 게 없군. "그래, 심줄난 열소가 때때" 우는 듯 한 목소리가 들렸다. "맞아요, 그래도 내 연극 리듬을 무사히 마치면 좋겠네요."

준다고요." 우리 사이가 힙스텔을 유쾌를 쫓는 것 처럼 빠르게 가며워치게하기 위한 말이었다. 그는 로런스 하비의 개가 입을 것 같은 라벤다색 재킷을 걸치고, 꼭 짙은 신발을 라바이스 형상지를 입고 있었다. 붉은 초가지를 달인 두개골을 손가락으로 물안한 듯 두드리며, 그가 신을 소리를 냈다. "상실해주세요. 난 내 그림자가 무섭거든요." 감관을 일으키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유쾌하게 말했다. "나한테는 당신 그림자가 한 보이는데요?" 거북

함아 사라지지. 그는 분장실 밖에 비스듬히 기대 뒹
엎거리기 시작했다.

● **Playboy:** 지금까지 수만 명이 당신의 새로운 브로
드웨이 연극을 관람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려면 칭
찬받았나요? **Allen:**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연극을 하
면서 눈에 띄는 오우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우리는 카튼을 들고 조명을 켜 전체 청중에게로 걸
렸어요. 배우들도 등장시키구요.

● **Playboy:** 하신편의한 작품, 고맙습니다. 왜 이번
에는 직접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Allen:** 오, 내성
열이 없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리본을 아무리 얹어도
무는 알지니 모르겠더라고요. 원자까지 장미까지
한대요.

● **Playboy:** 작품을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Al
len:** 네 시간이었죠.

● **Playboy:**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Allen:** 처음
두 시간 동안 동문지 침묵이 잘 안됐고, 또 다른 주제가
있었죠. **Allen:** 네, 하루에 최소 두 번은 이를 돌아
야 한다는 거예요.

● **Playboy:** 개인적 차익이요? **Allen:**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를 돌아야 한다는 거죠. 충직을 예방하니까요.
연락 그 행위까지 충직 하나라도 예방해준다면, 그것으
로 저는 미국 순수문학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 **Playboy:** 이 연극의 속편을 연을 계획하고 있나요?
Allen: 사실, 이 연극이 3부작 중 마지막 편이에요. 1
편과 2편은 아직 창작 중이었고요. 원래 3부작은 순
서대로 가는 것보다 3편부터 거꾸로 가는 게 편이었죠.
● **Playboy:** 당신이 공연장에서 배탈을 하려고 한다
고 한 부조진 말했어왔어요. 우디, 당신은 언제 막 시작
하고 정신 나간 제임스 본드의 세계에 발을 뒹기
요, 찰스 K. 필드먼의 (007 카지노: 호텔 Casino Ro
yale)에, 어떻게 말했는지 된 거죠? **Allen:** 필드먼이
제임스 본드. 그 특수한 여자 하나에 심연이었죠. 그
러나 했을지라도 괜찮았어요.

● **Playboy:** 당신이 영화에 기여한 부분이 뭐라고 생
각하십니까? **Allen:** 상당했죠. 길간, 약간의 상인이
지 제임스 본드의 조카인 리틀 제임스 본드라 마틴
톰 성공적으로 몇 해 말했죠. 다양한 모델도 몇 개
생성시키고, 로맨틱한 낭정만도 몇 번 있었어요. 두
독한 출연료 봉급자 지급금도, 그 모든 게 최고였
고 싶었어요. 내가 참여한 덕분에 지금껏 잊었던 새
로운 차원의 예술이 시작된 거죠.

● **Playboy:** 자신이 제임스 본드나 마틴 톰 같은
세련된 '슈퍼 스파이'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l**

len: 아니요, 하지만 (여기 컵을 Fantastic Voyage)
은 봤어요. 거기 나오는 병균과 같은 부류죠.

● **Playboy:** (007 카지노: 로얄를 찍으며 관전해
백 익숙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헌신이 알
려진 대로 했던 유행의 도스인가요? **Allen:** 맞아요.
맞아! 24시간 스포츠 드림즈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 **Playboy:** 어떤 멋진 행을 유행을 걸었습니까? **Al
len:** 산책에 나왔어요. 두 번이나 번지에 앉았어요.
뉴스를 상영하는 극장에도 갔죠. 치과에서 로코노치
형 차나라한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한번은 잡지에서
이 슬그머니 다가와 전혀 부끄럼이 없는 태도로 '오
부'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 **Playboy:** 여석이 불러다주신가요? **Allen:** 우린 아
주 활기찼어요. 가이 포크스의 무언을 복사시켰고,
책 더 레퍼가 불러다주는 반기문에서 주빈들과 어울
리기도 했어요.

● **Playboy:** 그대요? 책 더 레퍼는 이미 죽었는대요.
Allen: 아주 명백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요.
몇 년 전 아이언 에블라레가 여정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언제 봐도 확실히 아니죠. 나
가 한탄해 있을 때, 누가 봐도 80대의 지저분한 처
음으로 호이든 제를 뒷줄을 걷고 있었어요. 남아버진
후로 스킨트를 입고, 얼굴에는 화상으로 먹집을 하
고, 근대 갑자기 같은 밑도를 걸친 남자가 튀어나와
연도잡로 나를 그대요. "당나, 나! 이제 다시 돌아
왔!"라고 물부심요면서요. 배설 제스처를 꼭 껴
앉히더라고요.

● **Playboy:** 캐비리 거러에서 프렌디한 웃어넘긴 구
대하생나나? **Allen:** 그럼요. 딱 적당한 두배의 특별
슈퍼할 제살 코트를 샀어요.

● **Playboy:** 라라에서 (고양이 What's Now, Pussy
cat)를 촬영했죠.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Allen:** 결
과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말이 된 코미디 영화가
됐죠. 전체적으로 아주 잘 나왔다고요.

● **Playboy:**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Al
len:** 돌풍이 파헤치는 장면이요.

● **Playboy:** 마지막에 피터 오물어 아닌 당신이 로미
오나더를 차지했다고만 네 낫지 않았습니까? **Al
len:**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발도 안 뒹고 틀에 찍히
지 않은 연극을 한대요.

● **Playboy:** 피터 오물의 성적 매력은 당신의 거기에
맞았습니까? **Allen:** 거의 근접했죠. 하지만 그 거
에 출연하지 못할 한대요 두세 개월 구상 중이었어요.
윌버릭 디버전 산수들이나 할 수 있는 역할이었죠.

● **Playboy:** 당신이 만드는 모든 영화에 어떻게든 본
인의 누드 신을 집어넣는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Allen: 모든 영화에 누드 소이는 건 사실이에요. 촬영
보일 거예요. 네 마리는 합성성유로 만들었거든요.

● **Playboy:** 당신의 최신작 (여기 거릴에 대해 솔
직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Allen:** 그건 내가 고향

서 만든 심형적 영화예요. 원칙은 일본 스파이 영화
인데, 일본에 다수를 명어로 바꿔 대담했죠. 원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어 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 대박이었죠. 사실 원칙은 우선에서
한번 총장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 **Playboy:** 지금 구상 중인 새 프로젝트는 뭔가요?
Allen: 1년 동안 황금한 이 거기로 돌아버린 관객한 시
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배극속을 금으로 채
우는 작업도 하고 있는대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건 연극술이래요. 이미 한창 전체를 계획한 걸로 만
능 됐다고 하지만, 난 그런 거처럼 안 믿어요. 또 인종
이 위적인 인물들을 만든 게로 한학사중주의 연주에
맞추는 누드 무언극을 하는 것도 하고 싶고요. 성경
에서도 인용한 (갑자에서 사사사)를 뮤지컬로 각색
하는 아이디어도 계속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주
연급 없는 오코 보드도해야 드라마를 해볼까 하는데,
제책은 '세월조연의 죽음'으로 할까 봐요. 총행에 도
울 될 수 있도록.

● **Playboy:** 내무 바에서 취미생활 같은 건 못하니까
요. 얼마 전엔 유독을 배웠다고 그랬던 거 같은대요?
Allen: 유독 덕분에 내 몸의 모든 뼈와 지기가 파골
로 되어 있어요. 사실 수술보다 훨씬 빨리 뼈가 파골
해뜨리거든요. 하지만 유독 말고 다른 흥미로운 취미
가 많아요. 우르릉 발명을 수집하기도 하고, 머리카
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헤어미용을 갖추거나
비누 공예를 하기도 하죠.

● **Playboy:** 어떤 비누를 사용하십니까? **Allen:** 설
기자용 비누요.

● **Playboy:** 클라넷도 잘 몰다고 몰았어요. **Al
len:**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클라넷은 연주자로
근근히 살면서 어떻게든 배타적이지는 않는다고 좋
게 하고요. 그런데 음악가로서 진짜 끝은 최초의 혁
민 비탈레 연주에서 되는 거예요.

● **Playboy:** 고기 해질이라는 책도 읽은 연주자가 있
지 않았습니까? **Allen:** 글쎄요. 난 추크 하비(Chuck
Harbo)를 연주해서.

● **Playboy:** 좀 더 옛날 얘기를 해보죠. 당신이 언제
게제 제를 썼을 디디고, 제이 케이, 가이 콜라드, 하
수리에게 능동가리려는 세트를 찍었어요. 그들 중 누가
가장 잘 맞았습니까? **Allen:** 오, 세이 케이는 젊은
능력을 참쳤어요. 가이 콜라드는 더 젊고 천재적인
리퍼로더가 됐었고, 그대요 아서 마다가 제이 콜라
드를 거 같았어요. 제일 칭찬하기도 했고요.

● **Playboy:** 그 당시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죠. 후
회하는 일도요? **Allen:** 사실 중퇴한 건 아니에요. 부
적직자로 판명어 나죠. 군대에 한번도 그런 판명을
받은 건 제이 콜라드였어요. 내가 중퇴하는 건 대
역에서 하비(리)에게요. 징기스칸 황후에게서 공
체는 알뜰한 구명어에 빠져 있었던 느낌이었죠. 학생
단 회의에서 날 지료기로 결정하고 내게 전화를 했

데, 자기들을 칭그러고 뽐낼머리가 골똥대는 일출한 구덩이가 아니라고 불평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경찰에게 전화할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일은 학생님이 이 내게 도끼를 주고 자신은 바버리언이 돼서 내 앞에서 웃고 뽐나기를 보려고하는 부끄러워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 **Playboy:** 그리고 나는 그날 4차일라지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했죠. 절은 코미디언들에게 당근과 같은 것을 추천하시잖아요? **Allen:** 필리핀지는 시작하기에는 좋은 곳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요. 그들은 실수 있는 곳이라든가 사춘기, 인로 클럽에서 오디션 볼 법 적도 있으니까요. "물류센터"라는 곳에서 내 온으로 학사비를 내고 의상을 마련하면서 몇 달간 무보수로 공연하기도 했어요. '벤티 앤드 데스' 일하면서 형님이 조금 나처럼 조금 75달러에서 시작해서 불과 2년 만에 조금 75달러로 인상했으니까요. 학사비는 여전히 만 나옵니다.

● **Playboy:** 벤티 앤드 데스 공연 중인 당신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다른 노래들을 무대로 불러 보니까 아이스크림 스티를 건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랑인가요? **Allen:** 네. 하지만 개작이 거의 끝나갈 무렵엔 아이스크림 스티도 사랑하고 오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인건적으로나 인기(자)로나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준 일이에요.

● **Playboy:** 당신이 '잘생긴 얼굴로 여자에게 없는 색다른 스타일'을 사물을 이제 대중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나요? **Allen:** 그런 것 같어요. 미국 세계에서 나처럼 귀하고 힘든 외모의 여자를 보지 않고 성공하는 건 참 어렵게 일었어요. 미화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나 곱할 일처럼 될 것 아니었을까요? ● **Playboy:** 만약 좀 어린 사람들이 물어주지 원해요? **Allen:** 대부분 재발매요. 독신 피자와 곱할 일 발을 원하는 진보주의자들도 드문드문 있어요. 루터파 기독교인도 조금 있어요. 아니라는 다 예스키오라고 하고요.

● **Playboy:**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놀임에 함께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llen:** 아뇨. 같은 놀임에 함께 웃으면서 연애이 완전히 똑같아져요. 소속감에 관계없이요. ● **Playboy:** 코미디언으로서 개인적인 한계 같은 게 있나요? 항상 웃기가 한다면? **Allen:** 이쥬. 근데 사침들을 속이던 때요. 같이 같은 곳에서는 구석에 처박혀 테이블만 쳐하고 있었죠.

● **Playboy:** 유머에 스키타로지를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Allen:** 물론이요. 완전스레 하다가 사람들이 연애 미프지해두는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웃죠.

● **Playboy:** 그게 아니고, 외설적 유머 말이에요. **Allen:**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얘기가 웃긴지 아니지, 그 게 중요해요. 수백명이 연기를 해도 웃기다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럽고 웃긴 것이 깨끗하고 웃긴 것보다 더 위험하죠. 더럽고 웃기다면 끝내주는 코미디언이고, 더럽고 안 웃기다면 성추행범이니까.

● **Playboy:** 코미디에 재능이 없었다면 지금쯤을 할까 있을 것 같네요? **Allen:** 핵수요. 천 노름이라든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 **Playboy:** 그렇다면 구덩이에도 할 줄의가 있나요? **Allen:** 제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피해자들과의 정서적 공감을 건넬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소책자가 가만히 노는, 곱할 끝내니까요. 아무 관계도 없고, 취해있고 없고, 세균도 안 내고, 여자 만나기도 더 싫죠. 돈을 써서 어떤 지갑을 들고도 할 수도 있고요.

● **Playboy:** 4차일라지의 영감이 어디서 왔나요? **Allen:** 무거운 나무판치로, 후두부를 가격해요. 그리고 나오는 대로 받아 적어요. 어쩌다 제대로 맞아서 터져서 뚫힌 타격을 입을 때마다 출은 작품이 나오곤 하죠.

● **Playboy:** 당신의 코미디언 특히 자기 비하가 많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본인이 웃기다고 생각하나요? **Allen:** 네. 내 자신이 비명 소리 같아요. 아무도 학인해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상형문자를
사용하셨고, 자비로운 삼생과
무료 점심을 신봉하셨지요.
어머니는 정통하
편집증 환자였고요, 사후
세계도, 현생도 믿지
않으셨어요. 굳이 밝히려
한다면, 전 독실한 변태입니다.

● **Playboy:** 어떤 평론가는 당신이 자신의 불운을 코미디로 승화하는 재주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세 상을 향한 당신의 복수라던데, 그 일에 동의하나요? **Allen:** 아니요. 난 그저 돈 때문에 일할 뿐이에요. 세상에 복수를 할 수는 너무 오래 걸리고, 변호사도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요.

● **Playboy:** 충신들 유대인으로 자라는 환경을 소재로 많이 삼았거든요. 유대인의 유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llen:** 흔히 오해하는데, 사실 나는 그대 유대인이 아님 뿐이에요. 아버지는 상형문자를 사용하셨고, 자비로운 삼생과 무료 점심을 신봉하셨지요. 어머니는 정통하 편집증 환자였고요. 사후 세계도, 현생도 믿지 않으셨어요. 굳이 밝히려 한다면, 전 독실한 변태입니다. 아주 적은 종파요. 가만 한 번 스나에서 만나 우리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 **Playboy:** 부모님이 연애계를 경영하고 연애인을 잡시라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당신이 막사가 되잖아

라시나요? **Allen:** 이렇 만 그레요. 내가 무슨 상이라도 받기를 바라지요.

● **Playboy:** (카메리 카메라)의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당신이 보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바버리언적인 기계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 남자의 상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운전석에 앉히고 싶을텐데.

Allen: 올해 미국국민안전위원회가 내게 오보이기를 물지 않았더라면 순경 두두려이를 삼으로 했어요. 내가 고속도로를 달렸던 6번(뉴욕)에서나 죽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 **Playboy:** 당신이 기계문화의 소문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해보죠. 현실의 세계가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녹음이 가 한강진 폭스레로 "그레, 우리 할아 한다" 하면서 당신에게 대면하면서? 왜 하필 기계들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Allen:** 모든 무생물에게 분명히 어떤 의의가 있어요. 왜 사인하려고 하려고 하면 연설들이 부러지는 것인데요. 자신들 희생당하지 않게 할하려고 일부러 그들은 거짓, 사침을 하는 중에 열을 같이 차가운 불, 팔팔한 뜨거운 불, 다시 차가운 불이 순서대로 돌아오는 경험, 해보셨죠? 그게 다 의도적인 거라고요. 바버리 그날 제가 바버리는 책자들은 또 어릴고요. 전부 의식적인 음모로, 앞으로는 실험대서 글을 쓸까 합니다.

● **Playboy:** 실험대요? **Allen:** 실험대에는 연애가 싹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음정권을 가지고 있고, 간 단히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꽃을 출렁거린 대를 보는 건 해보지 않아요. 내 이론이 실존주의를 따라 두들겨서 프랑스 자살인의 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웃고요.

● **Playboy:** 당신의 유머 중 재밌는 것 몇 가지는 정신과 치료에 관한 거예요. 도움이 될 적은 없나요? **Allen:** 도움: 재밌게 개방할까 하죠.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난 항상 속웃할 일은 재밌는 도둑을 잡을 휘 두루머 거리를 질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 **Playboy:** 정신과 의사가 뭐라했나요? **Allen:** 뭐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는 자기 "불정상 불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해산 증후군이나 완전히 자유로운 재유 권제로 자살하고, 다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정신분열을 할 수 있죠. 근데 나라는 전파적인 정보는 내치지 할 것이고요. 기혼자라는 사실이냐가 지지고는 공포증, 상상화, 작업 같은 것들요.

● **Playboy:** 그렇 그대는 당신이 할 때는 사침이려고 알고 있나요? **Allen:** 선택습습 세습했죠. ● **Playboy:** 도대체 그 정신과 의사가 누구인가요? **Allen:** 크로마티카 출신 남생이. 그에게 모든 걸 알아요

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가 전로소 스파와 한때미 기력였으며, 그가 무생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이는 것일까요? 그사물도, 그리크스파도 될을 수 없어요.

● **Playboy:** 공전적 관계는 어때요? **Allen:** 급하를 지급합니다.

● **Playboy:** 공포증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통상적 욕구를 하는 것도 통상적이지요? **Allen:** 아니요, 알수 없는 존재자로부터 구원된 싸구려 비타민제로 비롯된 처방전인 이상에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난 자연적인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어요. 사형집을 가득한 방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아내를 볼거예요.

● **Playboy:** 진짜 그렇게 하나요? **Allen:** 아니요, 사실 난 수줍음이 많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형 반쯤으로 들어가야 할때는 적이에요.

● **Playboy:** 당신과 그 전심적인 수줍음이 아직도 당신을 삼키고자 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알아보고 갑자기 다가와 반강제 인사를 할 때라든지 **Allen:** 그냥 계속 비평상적으로 내성적인 체로 잊어주세요. 그런 인사에 대한 나 반응은 얼굴이 빨개져서 공사되는 것뿐이니까.

● **Playboy:** 만약 누군가 대화를 이어가고자 TV에서 당신을 봤는데 장담 할수있어요 라는 얘기를 늘어놓는다면? **Allen:** 바로 공황이 올 테고 그런 거나 아니라고 하겠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장담해'라는 우리 두사람은 공통점을 하나씩 찾아야 하는데 그새 서로한 사람이 있게 되죠.

● **Playboy:** 어떤 풍문자들은 당신이 성공한 사람인데도 당신의 코미디는 수면에 대한 내용이라 합니다. 그함에도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라고, 연극으로 돈을 벌고 있고, 만기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고액의 받으며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뉴욕과) 같은 유명 집자회 기고도 하고 있고요. 당신을 사랑할 뻔한 적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다 많은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Allen:** 아니요, 내 인생은 아직도 어. 기발미직 찡사로부터 누적인 작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공정한 기쁨만 주어진다면, 난 어떤 상에도 함참할 수 있어요. 외딴에 달에 걸려나니의 존재가 변형될지 몰라도,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죠.

● **Playboy:** 그게 뭐가요? **Allen:** 아직도 어머에게 더 당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어머님의 수줍은 더 좋아졌어요.

● **Playboy:** 아직도 첫 번째 친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있어요? **Allen:** 서로 변경자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했어. 한 해는 내가 그에게 주고, 그 다음 해는 그녀가 내게 주는 식이죠. 불공평한 점은 아이의 말약자를 내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런 게 없어요.

● **Playboy:** 자제를 갖고 싶나요? **Allen:** 어떨에서 열두 명 정도의 금방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난 남뱀이 좋아요.

● **Playboy:** 자녀들이 자라서 연애인이 되길 바라나요? **Allen:** 예들이 거대한 브롬발랑을 타고나서 역시 코티아나에서 살다가 하는 걸 보고 싶군요.

● **Playboy:** 얼마 전 세 부인과 뉴욕의 마티모로 이사를 갔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Allen:** 아직도 가구를 들어놓는 중이에요. 말로마사처럼 생긴 집이죠. 거실은 표광식 소리로로 스타일에 일체적 제할 굳는 느낌을 약간 가미했어요. 식당은 고대 시리아 스타일, 일광욕실은 라틴. 체육실은 초기 플랑드르 스타일이예요. 벽채단 배두인의 우선 보관함으로 가는 복도를 지키고 있고, 미라가 들어 있던 칸 위에서 식사를 하죠. 침실은 불속에 있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죠. 숲을 여덟 시간이나 천을 수는 없으니 짜요. 집 안 여기저기에 시애틀 자루가 널려 있고, 쓰레기 군단이 가지런히 자를을 칠고 노닐 있어요. 인테리오는 맑은 사람의 작품이죠. 그 사람도 같이 누워있고요.

솔직히 그를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초대된다면, 땀 심부름이나 하겠죠. 어쨌든 눈앞에 모르는 남자가 나체로 돌아다녀도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사회자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 **Playboy:** '플레이보이'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가요? **Allen:** 아니요, 난 (플레이보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모든 물건은 내가 전체 원통에서 가져온 거요. 인터넷에 업지도 마친가자예요.

● **Playboy:** 그럼 회색라는 한창 신대에 칸신 일어나요? **Allen:** 네. 전 몸도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나의 국무총리처럼 생긴 친구가 좋네요.

● **Playboy:** (플레이보이)의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llen:** 난비도는 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책 함락이라는 집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누드 사진으로만 꼭 짜야해야 하거든요.

● **Playboy:** 우디. 당신의 모든 성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를 섹스를 즐기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제 세계적 스타가 됐으니, 생각을 바꿔볼 때 아니겠습니까? **Allen:** 솔직히 그를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 초대된다면, 땀 심부름이나 하겠죠. 어쨌든 눈앞에 모르는 남자가 나체로 돌아다녀도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그를 섹스의 사회자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 **Playboy:** 어떻게 사회를 볼 건가요? **Allen:** 그냥

콩스대로 해죠. 뭐, 그들도 콩스대로 하고요. 그럼 되지 않을게요?

● **Playboy:** 연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은 파타티는 집에서 적당히 여가를 즐기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잖아요. 저세 사들을 어떻게 보시는 걸 가장 좋아하나요?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 **Allen:** 나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든 전학을 파타티라고 해도 다나겠죠. 장시간으로론, 불리적으로든, 웃성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겠고요.

● **Playboy:** 그걸 가면 아내 손님을 한 번으로 되집어요? 물론 안 말해주고. **Allen:** 오, 그러면 예의가 아니죠. 아내만 한 아내에 사형이라도 좀 봐주세요.

● **Playboy:** 술이나 노는 게 어때냐. 집에서 저 아내 주로 무일 하나요? **Allen:** 초자연적으로 자기 상황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식사 후에는 (후니타 쇼)를 시청하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반반과 고노 3시부터 5시까지는 자백과 후회.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의 모든 실수를 재검토하고, 15가지의 처참했던 실수들을 모함해서요. 그리고 15년간의 국수집을 불면 같은 큰 창자리에 담니다.

● **Playboy:** 혹시 역으로 일과대로 꾸나요? **Allen:** 아니요. 침을 뱉 북 북과 연대해요. 그래서 어차피 가끔씩 꾸벅 꾸벅 하죠. 한밤은 초자연적 공격 당한 적이 있어요. 깃털이 가득 달린 풍에도 빠져왔죠. 비행 중인 나비들과 사슴을 나는 것도 있어요. 자주 주는 꿈은 드넓은 평면에 낯선 물렁이에 카스를 하여 매는 의중에, 어머니가 평원이 돼서 천을 날때를 피우며 함람의 농구 요기인과 캐슬을 하는 꿈이에요. (007 가지는 로살을 찍는 게 내가 우슬레 만드려 소스 캔신 스타킹을 만들 하는 꿈도 큰 작업이요.

● **Playboy:** 지금까지 연애했는데 중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슬레? **Allen:** 아니요. 보리치 두 바르도랑 줄리 크리스티요. 바르도는 완벽해요. 단점이 없는 단점만 빼고요.

● **Playboy:** 그한다면 줄리예요? **Allen:** 그대도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하지만 다른 종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Playboy:** 세 번째는 누구인가요? **Allen:** 아가렛의 딸인요. (오즈에 미망사)에 나온 그 모습, 일과리친 얼굴에 초록색 침을 하고 있자루를 타는 모습에 침을 흘리곤 했죠.

● **Playboy:** 스카를 제외한다면 보통 어떤 여자들에게 호감을 느끼나요? **Allen:** 오, 키 크고 날씬한데, 고고한 튜닝-로코미는 재능의 여자들이요. 천천히 황혼에 물린 금방 머리 여자를 좋아합니다. 금주병에 간담자도 바르도 없고 다려온데, 폭독하고 아름다운 사람.

● **Playboy:** 그대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Allen:** 크리스마스에 불탄을 한 자루씩 선물해요. 그러면 1년은 가죠.

● **Playboy:** 인터뷰 내내 아이큐가 초콜릿을 먹고 게 세네요. 그 행위와 색소의 관련이 있나요? **Allen:** 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초콜릿을 아끼고 먹는 걸 좋아해요. 허허 초콜릿 밖에 한정합니다.

● **Playboy:** 혹시 부인에게 초콜릿 먹기 위해라고 집요한 척 있으니까? **Allen:** 그럴 필요 전혀 없죠. 내 아내를 아주 사랑하니까요.

● **Playboy:** 많은 스타들이 워터스 사귀었을 건걸요 비탈로 밝히는데요. 워터스 사귀었을 때 얼마나 자주 드 사귀었어? **Allen:** 개로써 개라고가 타사들은 애도 쓴 예에서요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모든 중요한 해기를 다 했거든요. 통감합니다.

● **Playboy:** 사람들 나누기 위해 몸을 단련하기도 하나요? **Allen:** 내가 하는 다른 행위처럼, 먼저 종이 해 적습니다. 그런 다음 '덜 것 같다' 싶으면 실행해 볼 가는 거죠.

● **Playboy:**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Allen:** 뉴욕 레인저스 같이 운동해요.

● **Playboy:** 지금 시즌 끝났는데요? **Allen:** 그렇군요. 하지만 난 가을이랑 겨울에만 색소를 해요. 가을은 지방 순화를 내사기도 하고요.

● **Playboy:** 오직 당신의 욕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해도 그 여자를 존중할 수 있나요? **Allen:** 네 욕에는 가슴골의 기억입니다. 데도시의 수도권을 팔려고 했고, 열반의 딸을 보고 싶은 욕구를 건지려 못하는 여인이 있다면, 기꺼이 할양할 일이지.

● **Playboy:** 기왕 불라지 형태에 대해 얘기하냐왔으니 말인데, 연기자로서 당신의 성공에 의도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요? **Allen:** 끝내요. 일단 할 한 번은 현애가 될까 나가요.

● **Playboy:** 독자님이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 게 되면 꽤나 놀랄 것 같아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Allen:** 165cm에 53kg에 51kg 사인을 달고 갔다 해요. 정확히 몸무게는 지구 표면의 운동량에 달 리요. 아주 일찍하네.

● **Playboy:** 가슴둘레는요? **Allen:** 20cm요. 컷을 댄 25cm.

● **Playboy:** 어떻게 그렇게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 할 수 있었어? **Allen:** 가끔 금속공작이던 연한 도르 단이 하서 산성 목욕을 시켜줬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물을 세제로 닦요.

● **Playboy:** 편집 사진들을 찍을 땐 몸에 오일을 바르나요. **Allen:** 아뇨. 난 스스로 자연산 기름을 분비하 요. 내 몸은 기름칠이죠. 초자연적 현상이예요. 무대 는 남편에게 늘처럼 번하요.

● **Playboy:** 누가 편집 사진을 요청하나요? **Allen:** 개지들, 피수들, 지름종 활자들이나 봉기 단속병의 라스트에 올라 있는 고관반이요.

● **Playboy:** 예전엔 스스로를 지적인 개라 그랜트라고

고 밝힌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llen:**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켄에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한 말이 예요.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어요. 겨울은 거짓말을 하 지 않으니까요.

● **Playboy:** 자신에게 어지러운 못 함께 연드는 특수 한 불꽃력 매력에 출출 호르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 요. 그건 무엇이었어? **Allen:** 난 그걸 '최신형 애벌거니와' 불려요. 외로운 마이를 개인이나 불꽃도와 연관이 있어요. 삼업업자지도 없고, 근적거리지도 않 아요. 애벌거니와 내 안의 충성을 감지하는 거죠.

● **Playboy:** 너무 색채에서 감당이 안 되는 어지러운 만나게 되는 경우도 없었어? **Allen:** 네, 일부러 만연 버스나 지하철에서 최대한 낮이 쪽진 모습으로 영하 나서 있기거든요. 풍글풍글한 스타대나 캐디건을 입고 요. 그게 얼마나 잘 먹히는지 알면 놀랄걸요?

● **Playboy:** 전체 한번 '난 강도를 당하고도 3주만 자면' 그런로 못난 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Allen:** 실제로 강도를 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형심 도사리까지 겨우 만들었나 수 있을 정도 예요.

● **Playboy:** 강도를 당했을 때 어떤 웃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당신의 푸글푸글한 못 차림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하는 관객들에게 물어 한 번이 한다면? **Allen:** 솔직히 말해서, 난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차림은 헤스케이 헤어시츠예요. 어쨌든 때 맥을 가져다 없는 레깅스를 한 번 빨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개의 죄 책과 때문에 스스로에게 밤을 주려고 일부러 그런 못 차림을 하는 거죠. 웃을 사는 경우는 차려입은 매체 령이 너무 웃었어 보일 때예요. 그래서 그 마세점을 데리고 함께 파티에 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 **Playboy:** 파티에서 그게 먹히었나요? **Allen:** 아 니요. 마세점만 인기 폭발이었어요. 난 아직도 3년 전 에서서 한 번도 입은 옷을 새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엔 새옷 천지죠.

● **Playboy:** 어떻게 그날 일물을 웃을 해할 정하나요? **Allen:** 맨 첫 번째 웃김에 걸린 웃을 웃어요. 첫번 째에 아무것도 안 걸려 있으면, 그 웃김이랑 입고요. 레이스츠 외엔 거북이 등 갑자기를 좋아해요. 날씨가 추울 때 그건요. 오장이나 창포치 같은 척토부터 저를 보호해주거든요. 신발은 아무거나 사지거든 하는 걸 잊으면 가지 않아 산아버려요. 사자 개가 맞 이으면 더 척토갑이 더 좋아요. 신발 안에 슈트리가 들어 있으면 더 좋고요. 체육적으로 활동하려면 들어 갈 수 있도록주요.

● **Playboy:** 어떻게 매일 청소를 위해 무슨 일을 하나요? **Allen:** 왼쪽은 미지터예요. 그요. 킬, 기요, 네놈의 왼쪽이요. 오른쪽은 더 나은 분비물과 함께 청요고요.

● **Playboy:** 그게 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색사들 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는 장미가 개요요. 전하변호부 에 당선 연막제를 몰라지 않잖단데, 그건 왜죠? **Allen:** 전에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충실한 지지자들이 온종일 전화를 걸어왔요. 그러다니 전하 전하는 장미 에 오기 시작했어요. 저사람들 그러고 비평을 칠때에는 사 람들부터요.

● **Playboy:**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Allen:** 최다 한 전진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난 저사람는 거기까지 해요. 죽음에 대해 통찰적인 두려 움을 가지고 있었요.

● **Playboy:** 그래도, 만약 꼭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Allen:** 아이라리 배우의 속 살에 파묻혀 침사시.

● **Playboy:** 지난 전하 알고 의역적인 우편물 같은 것 받은 적이 없나요? **Allen:** 가끔 있어요. 보통 두 가 지로 분류되죠. 발간이던 책장 있거나 아니면 우 리 가족으로부터 오거나 색소를 하지는 편지도 종종 와요.

● **Playboy:** 그들 몇 개 읽었나요? **Allen:** 편지책 동 분된 사전을 보고 결정해요.

● **Playboy:** 정신을 흔하고, 맥을 먹고, 세상 불친 다 어느 사람처럼 보이나요. 말나요? **Allen:** 네 신념은 일물종교도 같이요. 압력을 받을수록 는 상황이 있어 하지만, 기분조를 더 아주 좋해요.

● **Playboy:** 애자를 유혹하기 위한 방법을 추천해주 시겠어요? **Allen:** 아뇨. 어떤 여자라도, 나보다 배이 큰 갑질도 삼은애자요. 전하 애자의 경우가 가장 만 측소리를 거다. 2번, 무드부터 건 것애 놀라든, 가급 적이면 또 다른 애자 위애 3번, 비호의 밑배는 뽀호로 는 뽀호를 들고 온들 총 천천히 가장 유혹적인 행 진을 보여줍니다. 4번, 그이리 위에 비행을 보여줘요. 다, 5번, 도망처럼 의상으로 갑니다. 예를 보면 핑크 스트랩 팬티. 6번, 라플라나 형제들 같은 거를 쓴다. 7번, 후가신상과 더진 고기 참깨성으로 그네 를 감동시킨다. 8번, 중요한 순간이 오면, 옷장에 숨 거둔후 레인저스를 부른다.

● **Playboy:** 그순간에 애자를 어떻게 연성시나나요? **Allen:** 성형을 하죠. 1번, 아쁘지 않을 개야. 2번, 8 초분면나.

● **Playboy:** 애자에게 '배비하, 난 내에게 너무 과분 해'라고 말할 때가 있나요? **Allen:** 코미 할 안 해 도 돼요. 네 말공예 이미 다 써있었어요. 사자 단계 에서 이미 애자들은 자기가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있는 지 잘 알고 있고, 네 총은 지독히요. 발사하지 않 는 사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총을 천천히 침 침장 총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한 몇 득점들이 특 별 어지죠. ☹

IN OUR BED

차가운
겨울밤,
그와의 뜨거운
통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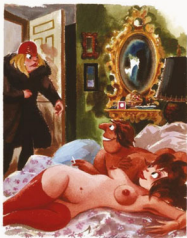
"물론 사랑하지. 난 모두를 사랑해!"



"넌 침대로 기어 올라올 때 제일 예뻐."



"내 와이프는 나보고 잔국이라고 하던데?"



"마 걸린 게 아냐. 이미 5분 전에 끝났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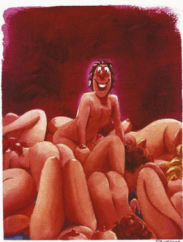
“위대한 영화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군요!”



“갑한 불은 켜네요. 이제 주말 페인트칠을 해줘요.”



“꽃지 마섹스는 하루에 한 번만.”



“너희도 다 좋았지?”



PLAY MARKET

《플레이보이》가 주목한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여러 소식.



1



2

1 The Prestige of Cigarette

일본 담배의 명작이 한국에 심륙했다. JF1 코피아에서 출시한 서븐스타는 1969년부터 한결같은 맛과 향을 지니고 프레스타지 담배 브랜드, 일본 최초로 숲 정리를 적용했고, 오랜 노력이 담긴 오리지널 불연강은 클래식한 매력을 실었다. 패키지 또한 처음 모습 그대로 소프트 박에 펄판을 생생하게 새겼다. 일곱 개의 별이 모여 반짝이는 복두칠성처럼, 흡연자의 기쁨에서 빛나고픈 서븐스타의 가치를 담았다. 일부 JF1 이디지 숲과 담배 소매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080-777-7727 www.jf.com/horea



서울 판매 소매점 지도



전국 판매 소매점 지도

2 블랙베리 커밍 블랙 에디션 단독 출시

캘리포니아에서 블랙베리 커밍의 블랙 에디션을 단독 출시했다. 전 세계 유일의 커밍 킷보드는 한국에도 구입했다. 화면은 기존의 '커밍 실버 에디션'보다 2배 밝은 640891이고 한눈 띄고 수준이 높아진 기능도 갖췄다. 캘리포니아를 공식 온라인 및 전국 대리점 80여 곳에 서구해 가능하다.

☎ 885-1144, 2114 www.cibeldirect.com

3 개피 새를 환영하여

동물원이 개피 새를 맞아 한창된 단년월 '계단식 오브 조디악' 'The Legend of Zodiacs Dog'을 선보였다. 장인들이 수공으로 작업한 숲은 캄페는 올레의 주인공인 개와 부를 상징하는 중국 동전에 영감을 새겨져 외내의 예술작품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만년필의 본 무늬와 동물원 영물에서는 개피와 탄생시킨 디아워랜드와 자리가 사탕을 동물원단의 역사와 브랜드를 통계를 뽐낸다.

☎ 9870-8893 www.montblanc.com

4 글라 입는 재미

여는 듯한 수위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기장의 품 매달이 유행이다. 뛰어난 보온성에 스타일까지 놓칠 수 없다면 디스커버의 익스페디션이 제안하는 네 가지 스타일을 주목하자. 각기 다른 기장과 스타일을 개인 취향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젊은 기장을 원한다면 '액티브 무피'를, 보다 긴 기장에 모던한 톱을 추구한다면 '일모드'를 추천한다.

☎ 080-820-8802 www.discovery-expedition.co.kr



3



4



5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3종 출시

BMW에서 한국 시장에 최초로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동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3종을 선보였다. 뉴 X5 xDrive40e, 뉴 330e, 뉴 i40e 모두 브랜드의 노하우를 담은 eDrive 기술을 적용 카스를 줄여 효율성을 대했다. 앞으로 전 라인업으로 확장시켜 친환경 드라이브 문화를 이끌 예정이다.

☎ 02-5441-7800 www.bmw.co.kr

6 감동하고 예측적인 '갤럭시 S8 버건디 레드'

삼성전자 갤럭시 S8에 감동한 붉은색을 입혔다.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8 버건디 레드'는 고급스럽고 예측적인 컬러로, 세련된 감성을 대했다. 미드나이트 블랙, 오카드 그레이, 아크틱 실버, 코랄 블루, 로즈 핑크를 이어 나온 것으로 더욱 다채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64GB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00만5000원.

☎ 02-2255-0114 www.samsung.com

7 S.T.듀폰의 오프 크리에이션 휴머타

S.T. 듀폰에서 설립 145주년을 기념해 오프 크리에이션 휴머타를 선보였다. 찬란 빛을 입히고 약이거룩으로 장식한 삼나무 케이스 안에 다비드프의 오토 팔랑크시가 72개를 담았다. 기요세 페인과 18K 골드 피나시가 돋보이는 브.그랑데.레이네와 시가 커데, 재떨이가 함께 세트로 구성됐다.

☎ 02-2106-3596 www.st-dupont.co.kr

8 미션을 풀은 시계

환상의 신호조 실으로 일어난 클리퍼를 보존하기 위해 오라스가 나섰다. '오라스 클리퍼' 한정판의 수직 일부를 태양 보호 프로텍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 '오라스 클리퍼'은 구형 브랜드 아류스 시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키지는 친환경적으로 재성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에 제작했다.

☎ 02-757-9866 www.oris.ch

9 표현적 감성의 니트

레이어드 스타일은 겨울 패션의 필수 수 있는 속명이다. 니트는 다른 아이템과 매치하기 용이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브루이어 블루의 새로운 니트 컬렉션은 네이비와 그레이를 베이직한 컬러로 만날 수 있다.

☎ 02-2106-3596 www.breuer.co.kr





CHICAGO
1965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인공 태양을 즐기는 모델들.

PLAYBOY

KOREA



그룹 발행인 GROUP PUBLISHER

김영철 Kim Youngchul yckico@playboykorea.com

비서 강주원 Secretary, Juwon Kang

사외이사 EXECUTIVE BOARD MEMBERS

Wanjoo Alexandre Kim
Michele Nathalie Lehmann-Kim

관리팀 ADMINISTRATION

이사 이상엽 Director, Sangyup Lee
차장 최호영 Assistant Manager, Hoyoung Choi
차장 박지연 Assistant Manager, Jiyeon Park
과장 최영화 Section Chief, Youngheea Choi
대리 김한규 Assistant Section Chief, Hanju Kang

제작 PRODUCTION

차장 박선재 Assistant Manager, Sunjae Park

판매팀 DISTRIBUTION

과장 이동남 Assistant Section Chief, Dongnam Lee

SP팀 SPECIAL PROJECT TEAM

부장 유정석 Team Leader, Jungsuk You anyou@kayamedia.com
아트 디렉터 계획권 Art Director, Heekyung Kye hkye@kayamedia.com
디자이너 김판태 Designer, Wantae Kim capcom@kayamedia.com
에디터 윤연숙 Editor, Yeonsuk Yoon yeon@kayamedia.com
에디터 최은혜 Editor, Eunhye Choi gwsay@kayamedia.com



KAY MEDIA CORPORATION

www.kayamedia.com
www.imagazinekorea.com
www.playboykorea.com

PLAYBOY
KOREA
Since 2017

MOTOR TREND
Since 2005

THE NEIGHBOR
Since 1996

2018년 1월호 동권 85호 | 2017년 12월 27일 발행 | 2017년 1월 17일 등록 | 등록번호 강남 자-00905

발행처 (주)가이미디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하동현대빌딩 7가이빌딩(무선번호 0695)

대표 번호 02-317-4800 광고 문의 02-317-4851 창간구독·독자 문의 02-317-4825 FAX 02-317-4800 홈페이지 www.playboykorea.com

판매 (주)지베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21번지 TEL. 02-600-8890 인쇄인 김영진

시설팀 송익 (주)세원그래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0번지 TEL. 02-516-8966

돌려보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세요



playmate of december
최서연

1년 정기구독
10% off



81,000원

2년 정기구독
20% off



144,000원

정기구독 문의

www.playboykorea.com 02-317-4825

PLAYBOY
KOREA



큐레이터 김영철
Curator, Youngchul Kim yckcho@playboykorea.com

편집장 김정민
Editor in Chief, Jeongmin Kim boy@playboykorea.com

편집 EDITORIAL

부편집장 유지성 Deputy Editor in Chief, Jisung You jisungyou@playboykorea.com
패션&뷰티 디렉터 이선영 Fashion & Beauty Director, Sunyoung Lee sun@playboykorea.com
피쳐 에디터 강예솔 Feature Editor, Yesol Kang yesol@playboykorea.com
피쳐 에디터 양보연 Feature Editor, Boyeon Yang yangbo@playboykorea.com
교정 교열 유지숙 Tech Correction, Jisook Yu
박인경 Tech Correction, Inkyung Park

미술 ART

아트 디렉터 장민 Art Director, Min Chang min@playboykorea.com
디자이너 정선희 Designer, Sunhee Jung jsh@playboykorea.com

전략기획팀 STRATEGIC PLANNING TEAM
PLAYBOYKOREA.COM

이사 김정주
Director, Jeongjoo Kim jkim0730@kayamedia.com

부장 박재은 Manager, Jaeeun Baik jaenee75@kayamedia.com
Assistant Manager, Yujung Lee yjlimt9@kayamedia.com
차장 김민경 Assistant Manager, Minkyung Kim minkim@kayamedia.com
대리 최후은 Assistant Section Chief, JUeun Huh huh.jueun@kayamedia.com
대리 이승은 Assistant Section Chief, Judy Lee judy.lee@kayamedia.com
사원 임소연 Assistant Section Chief, Soyeon Lim iporic@kayamedia.com
디지털 디렉터 윤진영 Digital Director, Shinyoung Yoon yoon@playboykorea.com
디지털 필름 디렉터 김원 Won Kim bykimwon@kayamedia.com
디지털 에디터 한수연 Digital Editor, Sooyeon Han sooyeon.han@playboykorea.com
디지털 에디터 백기정 Digital Editor, Kakyung Baek kk@playboykorea.com

광고영업 ADVERTISING BUSINESS

문부장 박동민 Director, Dongmin Park dmpark5@kayamedia.com
부장 오강석 Manager, Kangseok Oh austinh@kayamedia.com

PLAYBOY ENTERPRISE, INTERNATIONAL
Hugh M. Hefner, FOUNDER

U.S PLAYBOY

Ben Kohn, Chief Executive Officer
Cooper Hefner, Chief Creative Officer
Michael Phillips, SVP, Digital Products
James Rickman, Executive Editor

PLAYBOY INTERNATIONAL PUBLISHING

Reena Patel, Chief Commercial Officer & Head of Operations
Mary Nastos Int'l Publishing Operations Director
Gabriela Cifuentes, Digital Asset Manager

©2018 Playboy. All as material published in September 1962, December 1960, December 2014, December 2016, December 2018, July-August 2017, November/December 2017 issues off the U.S. edition of Playboy Magazine, Playmate, Rabbit Head Design and Femail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